

第108回國會 文教公報委員會會議錄 第20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1年11月27日(金)

場 所 文教公報委員會

議事日程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계속)

陳述人

가. 金元龍 나. 林承國 다. 全海宗 라. 李基白 마. 李元淳 바. 安承周

審査된案件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계속)(公聽會) 1面

(14時17分 開議)

○委員長 韓柄來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次 文教公報委員會를 開議합니다.

1.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계속)
(公聽會)

○委員長 韓柄來 議事日程 第1項 國史教科書內容是正要求에 관한請願을 계속 上程합니다.

오늘도 本 請願에 대해서 어제 會議에서와 같이 公聽會를 통해 먼저 陳述人의 陳述을 듣고 質疑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公聽會 進行은 오늘 陳述人으로 모신 여섯분의 陳述을 다 듣고 난 뒤에 委員님들께서 內容을 綜合해서 質疑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陳述에 앞서 오늘 陳述人으로 모신 여섯분을 오늘 陳述順으로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元龍教授를 紹介합니다.

(金元龍教授 人事)

다음 林承國教授를 紹介합니다.

(林承國教授 人事)

다음 全海宗教授를 紹介합니다.

(全海宗教授 人事)

다음 李基白教授를 紹介합니다.

(李基白教授 人事)

다음 李元淳教授를 紹介합니다.

(李元淳教授 人事)

다음 安承周教授를 紹介합니다.

(安承周教授 人事)

그러면 陳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元龍教授 나와서 陳述해 주세요.

○陳述人 金元龍 尊敬하는 委員님! 여러분 앞에서 長時間 지루한 이 陳述을 열심히 들어 주시고 또 진지한 質問을 어제 해주신데 대해서 느낀 바가 많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성실하게 또 委員長님의 各별하신 그 당부 말씀대로 人身攻擊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主張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發表의 要旨을 여러분께 돌려 드리도록 벌써 내놓았는데 「제복스」 복사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차차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考古學의 입장에서 檀君과 古朝鮮關係 그리고 漢四郡問題 그 다음에 高句麗의 北京領土關係 또 百濟의 南京統治關係 그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歷史는 先史時代와 歷史時代로 나누며 歷史時代의 시작은 記錄의 存在와 그것이 考古學的으로 뒷받침되는 段階로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도 天地開闢의 신화가 B.C 8世紀부터 記錄에 나오나 靑銅器文化뒤 B.C 189년때까지의 「헤로도토스」의 記錄이 考古學的 證據로 證明이 되는 데에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印度에서는 印度 「아란」族 移住에 의한 靑銅器 流入段階 이것은 대체로 紀元前 2500年 정도입니다. 이 段階부터가 印度史의 시작이라고 看做되고 있으며 「이집트」에서도 西紀前 3世紀에 쓰여진 「마네토」의 記錄과 B.C 3000年頃을 다룬 「팔레르모스톤」 또는 「로제타스톤」의 뒷

받침 등으로 歷史의 시작으로 看做되고 있습니다. 獨逸民族은 天神「만누스」와 地神「튀스토」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의 後裔라는 神話 또는 傳說이 있으나 이것은 靑銅器時代의 몇 個 部族의 存在를 反映하는 것일뿐 그 民族의 正體는 考古學 資料의 缺乏으로 애매하다고 스스로 自認하고 있습니다. 中國에서도 夏殷周 3代로 하고 있으나 近年에 와서 夏代의 遺跡 遺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出現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禹王朝의 存在를 論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世界 어느 나라나 歷史性을 지닌 國史의 시작은 누구나가 首肯할 수 있는 記錄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考古學的 資料의 合致로서 잡고 있으며 그것이 先進國 文化國의 國史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先進國들의 歷史는 考古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信憑性없는 古代의 그것도 外國의 記錄에 나오는 零細한 資料로 國史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文化國중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日帝時代의 우리나라 考古學은 日本人의 專有物이었으나 그때 세워진 知識體系는 解放以後에 우리들에 의한 새로운 研究와 發見으로 무너지고 오래고 우리 考古學은 그 科學的인 研究方法와 外國文化와의 比較研究에 의한 學問的인 編年體系를 통해서 淸목할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考古學에 관한 한 植民地史觀 운운은 이제 당치도 않은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考古學에서는 두 개의 絶對原則 즉 하나는 우리 文化는 모두 우리 國土內에서 發生하였다. 둘째는 우리 文化의 年代는 덮어놓고 끌어 올려야 한다는 두 原則을 세우고 南韓考古學者들을 모두 美帝 日帝의 御用學者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2年 日本「다카마즈즈카」古墳 調査時 南北考古學者가 합쳐서 對談을 하는 것을 본 日本의 어떤 저명한 考古學者 이 사람은 그 때까지는 左傾學者로 이름난 사람입니다마는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北韓考古學은 學問이 아닌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말하며 그 後에 親韓派가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歷史를 半萬年이니 1000年을 줄였다느니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全谷里 石壯里 점말동 前期舊石器 遺物이 나오고 中期舊石器時代의 말하자면 10萬年

前의 人骨들이 南·北韓에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1萬年前쯤 해서 氣候의 變化와 함께 移動해 가는 즉 그 사람들의 食糧을 따라 北쪽으로 가버렸고 紀元前 4000年代에 와서 氣候가 따뜻해지면서 「시베리아」地域의 古亞細亞族 一派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漁撈와 狩獵 위주의 北方系의 新石器人이고 곰을 崇拜하였고 「사마니즘」이 信仰이었습니다. 그러나 紀元前 2000年頃부터 華北地方으로부터의 영향으로 穀食栽培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實物이 黃海北道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土器形式이 빗살무늬에서 曲線紋으로 바뀌고 農耕을 背景으로 하는 定着農村들이 村落들이 江邊에 나타나게 됩니다. 檀君時代는 바로 이 段階에 該當되는 것이며 檀君이 韓民族의 開祖가 되려면 그 年代는 2000年이 더 올라가서 西紀前 4000年으로 고쳐 놓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世界 어느 나라도 돌도끼로 나무를 찍던 시기에 나라가 생긴 곳은 아무 데도 없고 移動하는 動物群처럼 年長者 또는 經驗者를 指導者로 하는 酋長의인... 酋長이 있는 그러한 村落段階가 新石器段階였습니다. 그래서 古代國家는 뒤에서 보듯이 첫째 文字가 생기고 靑銅道具라는 道具革命이 일어나는 段階에서 생기는 것이며 따라서 檀君은 新石器 後期 또는 靑銅期時代의 生活文化 發展段階를 反映하는 理想的 象徴的 族長神이며 그 民族과 文化가 오늘의 우리와 直結한다는 점에서 우리 民族의 祖上神으로서 崇拜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歷史的 實在의 人物로 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神話의 人物을 歷史人物로 國史教科書에 내놓기는 현재의 발달된 우리나라로서는 國家의 體面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學界 全體의 體面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靑銅器時代인데 이것은 靑銅의 使用·바퀴·車輪의 發明으로 機動力이 생깁니다. 또 특히 文字의 發明이라는 文化的 特徵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文字의 發明이야말로 國家體制 維持에는 絶對 必要한 것이었습니다. 法令은 말로 실시할 수 없고 무슨 記錄이 있고 文字가 있어야 비로소 國家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近東 印度 中國 모두 이 段階... 이것은 B.C 3000年에서 1000年代에 이르지 만 여기에서 비로소 國家 또는 王朝가 나타

나고 있는 것이며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漢字의 使用이 시작되었을 아마 B.C 삼사世紀頃에 비로소 어떠한 國家形態가 成立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考古學에서는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그것이 箕子朝鮮이건 衛滿朝鮮이건 古朝鮮은 우리나라 靑銅器時代 後期の 어느 段階에 나타났을 것이고 箕子나 禰尼 이름이 붙어있지만 그것은 後에 그 歷史를 길게 만들고 祖上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實地로는 靑銅器時代 後期를 넘지 못하는 것이 우리 古代國家의 形成期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靑銅器時代는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圖表에서 보시다시피 「시베리아」文化와 直結되며 B.C 1000年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고 있고 以北에서는 紀元前 2000年頃까지 올리고 있으나 현재 放射線 炭素年代로는 그年代는 紀元前 팔구世紀 이상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靑銅器時代가 「시베리아」 靑銅器와 直結된다는 착각때문에 이것을 「시베리아」 靑銅器年代와 관련시켜서 1000年頃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내리라고 하면 또 무슨 事大主義라고 욕을 먹을까봐 저는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靑銅器는 紀元前 칠팔百年頃이 그 上限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나라 靑銅器의 紀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카라스크」地方 여깁니다. (地圖提示)

그런데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도스」 靑銅器가 있고 中國靑銅器가 있고 요령 靑銅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靑銅器가 바로 여기에 직접 連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오르도스」로 오고 「오르도스」는 近東 「스키타이」 中國에서 오고 그것이 遼寧地方에서 독특한 靑銅文化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예맥 「통구스」文化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鴨綠江을 넘은 단계에서 우리의 철저한 韓國式 靑銅器時代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漢四郡問題인데 漢四郡이 우리나라 밖에 있다면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樂浪郡의 유적 유물이 나오

는 것은 현재의 平壤地方에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 大學生 1000名을 모아놓고 「버어마」에 대해서 아는 바를 써라 그 位置가 어디냐 물으면 가지각색의 說이 나올 것입니다. 하물며 古代에 있어서 地理에 관한 記錄이란 이것은 절대로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地理에 관한 한 그러한 古代記錄에 대해서 이것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록은 일단 덮어놓고 遺跡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平壤地方에서는 完全 中國 漢式의 木槨墳과 磚室墳이 나오고 中國 國家工場에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다는 年代 이름까지 적혀있는 철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기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그 무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靑銅器 이것도 韓國式이 아니고 토기도 中國式이고 또 하나 여기에 들고 왔읍니다마는 封泥라고 하는 遺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때 公文書를 말아가지고 그때 대나무를 썼지만... 말아가지고 끈으로 매고 封印을 흙으로 찍고 圖章을 찍은 것입니다. 그것이 古文書 文書庫가 붙이 나서 그만 구어져서 그대로 圖章이 남은 것인데 이것이 平壤 토성의 地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직접 만난 지금 작고하신 어떤 學者..... 다른 분도 계시지만 이것은 전부 가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樂浪太守부터 樂浪郡 縣名 이름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라는 것은 진짜가 있고 나서 가짜가 생기는 것이지 이런 가짜를 전혀 상상해서 만들어낸 天才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가짜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1935년에 發掘했을 때 그 속에서 11個가 學者들에 의해서 發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封泥를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짜라고 와서 할 때에는 長官도 말이지요 지계꾼이 와서 너는 長官이 아니라고 마구 넘비면 달아나야 합니다. 이것을 考古學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짜라고 우기면 싸움도 안되고 그저 달아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平壤地方에서 나오는 遺跡 遺物들에 대해서 北韓學者들도 中國것이라고 認

定할 수밖에 없으니깐 그것은 高句麗 貴族들이 輸入해서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高句麗 貴族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數百名の 王族 貴族이 中國式 무덤 속에 들어가서 中國式 판에 中國式 귀고리 中國 모든 것을 圖章도 王氏 이름의 圖章을 가지고 들어가 누어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됩니다.

또 南韓에서는 解放直後에 지금 以北으로 갔지만 홍기문이라는 분이 新聞에 樂浪은 전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 때에 약관이었지만 新聞에다가 일격을 가했습니다. 考古學을 모르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라고... 그 다음에 新聞의 連載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考古學을 전혀 모르는 文獻史家들이 考古學 資料를 文獻史料에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진짜나 가짜나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 1963년에 발견된 延嘉 7年 銘佛이라는 佛像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佛像입니다. 이것이 慶尙南道 의령에서 나온 佛像입니다. 이것이 539년이란 銘文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年代를 가진 가장 오랜 高句麗佛像인데 이 光背뒤의 銘文에 延嘉 7年에 樂浪東寺(樂浪의 東쪽 절)에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 樂浪이라는 것은 平壤입니다. 말하자면 539年 樂浪郡이 망한지 불과 2세기 뒤에 平壤사람들이 平壤을 樂浪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高句麗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北京의 樂浪을 高句麗로 갖다놓은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도저히 안됩니다. 또 이번에 高麗大學의 윤동석教授와 서울大學의 考古學科 大學院을卒業한 이남규 두 양반의 金屬分析을 통한 研究結果 우리나라 鐵器技術은 漢나라의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金屬學的으로 證明이 되었습니다. 또 成均館大學의 家庭大學長 윤성욱教授의 研究에 의하면 이 사람은 衣裳學者입니다. 平壤古墳 壁畫에 나오는 高句麗 貴族들 옷은 中國式的 右衽이 많습니다. 이것은 中國式 옷이 많고 通溝地方에서는 高句麗式的 左衽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모르던 사실을 衣裳學者가 발견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平壤地方에 들어간 高句麗 貴族들이 平壤地方에서 樂浪傳統을 말

하자면 樂浪 居留民들 後裔들로부터 中國式 영향을 받았다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考古學에 관한한 제가 眞番郡 玄菟郡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樂浪郡 帶方郡에 관한한 그의 여러 가지 많습니다는 平壤 이의를 떠날 수 없는 것이 樂浪郡입니다.

또 그 다음에 壁畫古墳의 문제가 있습니다. 以北에서 1949년에 發掘된 것이 소위 冬壽墓입니다. 이것이 安岳 3號墳입니다. 이것은 黃海道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덤속에 글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무슨 郡에 冬壽라는 사람이 69歲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무덤이라고 銘文이 써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 무덤에 그런 墓誌가 써 있으면 그 墓誌의 主人公의 무덤 이것은 考古學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中國 무덤이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美川王陵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그 冬壽라는 사람은 그러면 뭐냐 이것은 무덤을 지은 공로자다 말하자면 建築業者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누가 들어가서 낙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學問以前의 世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冬壽무덤이라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金元龍 저놈은 事大主義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考古學에서는 世界學界에 論文을 내놓아서 다들 그렇다 할 때에 韓國에 있는 學問의 수준이 좋다 韓國은 文化國이다 그렇게 認定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以北처럼 억지 學說을 세워 外國에 가서 발표할 때 그것은 愛國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冬壽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德興里 古墳이 1976년에 平壤 西北方 大安市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무덤에서는 銘文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무슨무슨 鎮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郡 新都縣 都鄉 무슨 甘里에서 出生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新都가 以北學者에 의하면 平安北道 嘉山の 古名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嘉山出身이니깐 바로 韓國人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위 幽州刺史를 지냈다. 幽州가 바로 北京地方입니다. 그러니까 高句麗人이 幽州의 刺史를 지냈으니깐 北京이 高句麗의 領土였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어서 좋다고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지만 新都는 高麗때의 新都郡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新都縣이고 이 都鄉이라고 하는 것은 中國人이 地名을 매 자주 나오는 文句로서 都鄉은 무슨 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新都縣 이것은 어디나 하면 바로 지금 北京 남쪽에 있습니다. 漢나라 때 新都縣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北京出身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덤을 쓰는 날짜를 周公이 정하고 時는 누가 정하고 이것은 전부 中國式 書式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때 北京 幽州刺史를 지낸 아무개가 高句麗로 歸化를 했다 말하자면 歸投를 한 사람의 무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高句麗에 歸投했다면 高句麗가 東洋의 아주 強國이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中國에서 내놓으라 했을 때 못내놓는다 그럴만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高句麗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日本學者中에 그 以北學說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日本사람들은 무엇이고 하니 北韓갈 때 「비자」를 못받을까봐 그냥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日本사람들은 아시다시피 強한 때는 머리를 숙이고 약한 때는 우쭐하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歸化人이다 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제가 무슨 愛國精神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考古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百濟의 상해통치 문제입니다. 百濟의 墓制는 첫째는 高句麗式의 石室이 基本墓制입니다. 그런데 公州에 가서 현재 두 개의 博築墳이 있는데 그 博築墳이 南京地方에 있는 中國 六朝時代의 博築墳을 「모텔」로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中國은 漢나라 때부터 「벽돌」로 무덤을 쌓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武寧王陵은 부분적으로 고쳐서 독창적인 면이 있습니다. 만일 百濟가 上海地方을 統治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百濟의 石室墳이 적어도 上海 근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高句麗 遺跡 遺物이 北京地方에서 나오면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考古學的인 뒷받침이……

도리어 南京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文獻만 가지고 우리가 上海를 統治했다 上海나 北京이 지금 빈 땅이 아닙니다. 遊休 空閑地가 아니라 外國領土입니다. 外國을 우리 領土라고 할 때에는 중대한 外交問題도 있습니다. 우리가 文化國으로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만일 다른 나라가 韓國全體가 자기 나라 땅이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실 중대한 문제를 發說할 때는 國際學界에 나가서 전부가 다 손뼉을 치고 首肯할 그럴 근거를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지 않고서 여기에서 영세한 文獻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해서 모르는 사람들만 통쾌하게 와와 해서 이 史學界를 혼란시킨다는 이것은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上海問題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나 제가 上海나 北京地方에서 百濟 高句麗의 遺物이 안 나온다고 아주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올 때는 다 손뼉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考古學 자료 가지고는 현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學問과 學問結果의 이용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史學家는 제대로 된 民族精神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史學家가 제대로 된 精確한 國史를 밝혀내면 그것을 꼭 國史時間이 아니라 倫理時間같은 데서 좋은 것은 발전시키는 정신으로 나쁜 점은 이것을 서로 반성하는 방향으로 教師가 學生을 指導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教科書에 집어넣어서 外國人이 보아도 수긍이 안 가는 그런 文句를 넣어야 하는 것이 國史教科書입니까? 제가 밤낮 주장하지만 國史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國史를 美化하는 것이 國史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國史를 도리어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後進의인 극단적인 國粹主義는 지금은 「방글라데시」같은 後進國家나 할일이지 지금 韓國같은 文化國은 좀 자신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니냐 말입니다. 日本學者들은 外國學界에 나가서 자기 나라 욕 막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나라 욕을 했다면 돌아와서 우리는 맞아죽습니다. 이 國史問題도 이것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신없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車를 부리려고 그리고 자기꾼일수록 더 身分證

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제는 文化國民으로서 자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李承晚 大統領께서 三田渡碑가 나라의 창피라고 漢江속에 집어쳐 넣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李承晚時代에는 그러한 環境이 있습니다. 그러나 全斗煥 大統領께서는 歷史의 恥部도 國民에게 알려서 장차 國家發展의 敎訓으로 삼으라고 指示하셨습니다. 이것이 1980年代의 우리나라의 發展의 基本方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8세기 19세기의 歷史理論을 가지고 나와서 敎科書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日本이 1940年頃 한참 극단적인 皇國史觀이 날릴 때 竹越이라고 하는 評論家가 뭐라고 말했나 하면 “古典과 神話를 합부로 들어맞추어서 일종의 夢幻的 日本을 만들어내는 狂信者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喝破했습니다. 그 우려가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國史學界는 건전합니다. 請願者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國史學者 전부가 머리가 돌은 國賊 처럼 되고 있지만 한 나라 國史學者 전부가 머리가 비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敎授들이 졸업한 大學은 무엇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文敎部는 가운데 끼어서 공연히 고생하지만 國史는 國史學者들에게 맡겨서 적당한 研究와 論文發表를 통해서 國史 모두가 바라는 올바른 國史學으로 발전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부탁 드리는 것은 이것은 學問입니다. 그 學問은 學界에 맡겨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學問의 결과를 評論家가 또는 政治에서 그것을 國民을 敎導할 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國史學者는 學者로 있으면 됩니다. 評論家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는 學者로서 제 本分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할 말씀이 많습니다는 오늘 여섯분이 기다리고 있고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逆效果가 날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혹시 말 도중에 기본을 상하게 만든 그런 분이 계시면 그저 저는 學問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고 民族을 위한 그런 증정에서 한 것이고 무슨 個人的인 원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陳述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林承國敎授의 陳述願이 되겠습니다. 陳述하시기 전에 本委員長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金元龍敎授님께서 學問은 學界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 學問「세미나」가 아니고 國民으로부터 請願이 들어왔기 때문에 請願을 審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受驗生이라도 문제를 잘못보고 쓴 答案은 아무리 잘 써도 그 答案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문제는 學問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請願을 審査하는 것이고 그 請願의 議題는 黑板에 掲載된 대로 國史敎科書內容은 正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國史敎科書는 法에도 있고 憲法에도 있습니다마는 國家에서 定하는 國定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請願을 審査하면서 公聽會에서 필요한 의견은 이 國定敎科書를 是正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教育政策的으로 參考가 될까 해서 여러분의 公述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陳述하시는 분도 그 점을 諒知하시고 陳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라 한 것 저희들 전 우리 文公委員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은 國政에 관한 基本的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林承國敎授 陳述해 주세요.

○陳述人 林承國 委員長님과 陪席하신 여러 委員님들 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우리 民族史로 말하자면 1000年만의 改革 1000年만의 革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와 動機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史學的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植民史學以來 71年만에 이러한 중대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 大韓民國 國會에서 이러한 계기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71年이라고 하는 말의 「뉴앙스」를 좀 이상하게 받아 들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日本時代를 36年間 日帝 36年間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냉정한 입장에서 計算을 해 보시면 아마 36年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1945年에서 1910

年을 빼면 算術計算的인 數字로 35년이 틀림 없습니다. 날짜까지 따지면 35年에서 14日이 도리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는 1年14日을 보테서 36年 36年하고 정말 光復以後 36年間이나 떠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우리 學界에서는 文敎部當局에다가 이 用語가 잘못 됐으니까 35年으로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建議도 여러 차례 냈읍니다. 바로 어저께 講義해 주신 朴時仁博士 名義로 建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역시 이 장소에 나와서 答辯해 주신 國史編纂委員長으로부터 回信도 받았어요.

제가 오늘 그 회신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했읍니다마는 “우리의 計算法이 틀렸으니 다시 檢算해 보시고 建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골이 아둔한 사람이라도 45페이지 10이라고 하는 빼기計算을 다시 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今年 4月에 文敎部에서 이 문제에 대한 決定을 봤읍니다. 新聞에 報道된 바에 의하면 “明年度 82學年度 各種 教科書부터는 日帝35年으로 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45페이지 10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數學計算을 하는데 36年이나 걸린 셈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文敎部 자꾸 얻어맞는데 이런 말씀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마는 36年 빼기 10 하는 計算하는데 36年이나 걸렸는데 우리 民族史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運動이 하루이틀에 되겠습니까? 정말 雞卵가지고 바위를 깨려고 하는 試圖나 마찬가지로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國會에서 우리 史學者들의 意見을 받아들여서 이런 좋은 기회까지 마련해 주시니까 그 難攻不落의 植民史觀이 71年만에 해결될 줄 압니다. 解放以後 36年됐으니까 분명히 71年입니다. 71年만에 깨질 公算이 보입니다. 可能性이 보입니다. 기왕 35년에다가 36年の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우리 韓國사람들 즉 學者나 學者아닌 사람이나 韓國사람 一般이 우리 祖國史에 대해서 어느 정도 無關心한가 하는 實例를 한번 들어 보겠읍니다. 어저께 朴時仁博士께서는 朝鮮王朝의 太祖의 姓銜이 누구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 본 줄 압니다. 李成桂라고 하는 이름은 高麗 將軍當時의 이름이시고 그가 太祖로 登極하자 이름을 바꿨읍니다. 즉 날日 밑에 한一字 짝 근것 地不

線위로 떠오르는 「라이징 선」 떠오르는 해라는 뜻의 日字로 바꿨읍니다. 그래서 李 트이라고 한 것입니다. 朝鮮王朝의 歷史를 그렇게 力點을 두고 工夫하고 있는 소위 우리 韓國의 史學者들이 朝鮮王朝實錄의 첫「페이지」 첫 줄도 아직 읽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관심이 없다는 얘지요.

高麗青磁 다음에 우리 陶壺器 歷史는 흔히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李朝白磁라고 합니다. 또 우리 正史册의 제일 마지막 册이 뭐냐고 하면 흔히들 얘기하기를 李朝實錄이라고 그럽니다마는 도대체 李朝라고 하는 王朝가 어느 때 있었읍니까? 倭人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말이 李朝예요. 李朝라고 하는 말은 「미스터」李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李朝實錄이라고 하는 册이 과연 있었던가요? 없었읍니다. 그것은 朝鮮王朝實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歷史에 대한 無關心이 우리 實生活와 國家生活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읍니다. 저는 空軍士官學校를 벌써 6年째 나가고 있읍니다. 요전 水曜日 거기 나가서 이런 講義를 했읍니다. “내가 陸士를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花郎道精神을 떠들더라 저 鎭海에 있는 海士에 가 봤더니 忠武公精神을 떠들더라 그런데 우리 空軍士官學校에서는 무슨 精神을 떠들어야 할까? 위대한 사람은 다 뻗겼고 우리 옛날에 飛行士없었으니까 安昌男이 精神이나 떠들까”라고 했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現行憲法 前文에는 “3·1精神에 빛나는 獨立精神을 繼承하여”로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新憲法에서는 4·19 5·16 다 빼버렸읍니다. 제가 이것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1運動 이전에 사시면 우리 祖上들은 과연 무슨 精神으로 살았을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의 國家理念이나 혹은 民族精神이라고 하는 것이 時代에 따라 어떤 團體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 건너 日本사람들한테 너희 나라의 精神이 뭐냐고 거리에 지나가는 市井輩를 붙들고 물어봐도 아마 「야마도 다마시」라고 할 것입니다. 美國사람 보고 물으면 「퓨어리타니즘」이라고 할는지 모르지요. 英國사람은 「젠틀맨 쉽」을 얘기할는지 모릅니다. 틀림없

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은 「시오니즘」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韓國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現實的으로 우리가 倭놈들하고 決鬪를 한다고 합시다. 칼을 뽑아들고 혹은 拳銃을 뽑아들고 싸운다고 합시다. 우리 相對方 倭놈은 「야마또 다마시」로 처음부터 달려 드는데 나는 칼 뽑아들고 花郎精神 忠武精神 3·1精神 찾다가 벌써 칼이 들어와서 죽을거예요. 싸우기전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統一된 民族理念은 뭐냐? 아까 金元龍博士께서는 바로 이 자리가 學問討論의 場이라고 말씀하시고 불평을 하셨지만 잘못 보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學問討論의 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民族史에 대한 一般的인 關心이 이처럼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國家生活과 社會生活에서 그리고 現實的으로 있을 수 없는 不條理가 우리의 눈앞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의 立政府에서 한번 反省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공청회의 根本趣旨인 것 같습니다. 우리 韓國에서는 지금 많은 貧困이 解消됐습니다. 그러나 絕對價值的인 面에서 봐서는 우리의 貧困이 아직도 많이 潛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韓國 最高最大의 貧困이 뭐냐?”고 묻는다면 “哲學不在!”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教科書에 대한 是非가 기왕 나왔으니까 教科書的인 次元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日本의 國民學校 教科書 第一章 第1「페이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고하니 “후지상 후지상 세카이 이 저노 후지상” “富士山 富士山 世界第1의 富士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바뀐 줄로 압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國民學校 1學年 教科書 제일 첫장이 뭐로 되어 있었는고 하니 “바둑아 바둑아 나하고 놀자” 바둑이는 개새끼를 바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韓國教科書 第1장이 개새끼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國民學校 教科書 하나 쓰는 때도 執筆者的 哲學과 國家의 意志와 國家의 未來像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새끼 타령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이 教科書도 물론 文敎部에서 作成한 것입니다. 어저께 李龍範教授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이른바 專門家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3男1女를 가지고 있는 家長인데 바로 엇그

저께 82學年度 大學入試學力考查를 본 막내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고명딸인 셈이지요. 아버지가 民族史學을 하고 있으니까 내 딸이 孝女 노릇한다고 大學校 史學科 특히 韓國史學科를 志望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를 말렸읍니다. “네가 史學을 하고 싶거든 그대로 다른 學問을 하면서 해라 지금 韓國史學科 들어가서 배우면은 다 植民地史學을 배우게 되어 있어. 그러니 제발 거기는 가지마라! 네 뜻은 고맙다마는 제발 하지 말라”고 충고했읍니다. 지금 제가 植民地史學 71年을 얘기하는 이 時間에 지난날의 植民地史學을 배운 식민사학 전문가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이 말에는 조금도 秋毫도 矛盾이 없읍니다. 日本時代에는 檀君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우리 古代史의 온갖 자료는 全部 禁書處分돼 있었읍니다. 우리 韓國古代史만이 아니고 中國正史 소위 “25史”라고 하는 冊도 모두 禁書處分되었읍니다. 만일 이런 책들을 보면 잡혀 갔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學問하는 사람들 특히 韓國史 工夫한 사람들은 무슨 史學을 했겠읍니까? 不問可知입니다. 물론 李龍範教授께서는 年齡等으로 봐서 그 당시에 工夫하신 분으로는 제가 보지 않읍니다마는 저 총독부의 “朝鮮史編修會”에 韓國人 學者로서 參與해서 활동하다가 今年까지 生存해 계신분 즉 日本時代에 高等官을 지내신 분도 제십니다.

그 가운데 한분은 돌아 가시고 지금은 꼭 한분이 標本처럼 남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의 訓導 밑에서 史學을 배운 분들! 그분의 監督 밑에 監修 밑에 審査 밑에 學位를 받은 분들! 저는 단순히 李龍範教授 한분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現役史壇의 全部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는 1945年 光復이라고 하는 것을 두가지 側面에서 봅니다. 政治的인 制度史的인 文化 學術的인 側面的인 光復과 또 하나의 光復을 맞이하지 못한 分野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國史分野입니다. 이 國史라고 하는 것은 韓國政策의 死角地帶에 溫存하면서 光復이라고 하는 惠澤과 時代的 評價나 照明을 전혀 받지 못한 分野입니다. 이러한데 李龍範教授는 그 植民地史學을 과거에 배웠거나 그 스승 밑에서 그 訓導 밑에서 성장한 史學을 지금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나 같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非專門史學者 「아마추어」史學者와는 對話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모처럼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듯한 表情은 정녕 學者로서의 「에티케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侮辱도 그런 侮辱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公聽會에서는 제발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倭놈들은 “朝鮮總督府”라고 하는 機關에서 “鮮朝史編修會”라고 하는 말하자면 朝鮮總督府 職制에 明示된 機關에서 “朝鮮史”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中國 “25史”가 成立되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行政主體 統治主體와 歷史를 叙述하는 叙述主體가 본래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漢나라의 歷史는 司馬遷이 바로 자기의 今上陛下인 漢武帝때까지의 歷史를 通史形式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前漢時代의 歷史는 정작 누가 썼느냐 하면 後漢時代의 班固가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王朝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王朝에서 그 지나간 王朝의 歷史를 적습니다. 우리 韓國史도 마찬가지입니다. “高麗史”라고 하는 책은 高麗 사람이 적지를 않고 朝鮮初期의 學者들이 적었습니다. 역시 한 王朝가 지나간 다음에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朝鮮朝 500년의 歷史는 누가 적었는가? 이는 당연히 우리가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적은 「朝鮮史」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役割을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總督府입니다. 그 冊이 무엇이냐? “朝鮮史”라고 하는 冊입니다. 그런데 이 “朝鮮史”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正史는 바로 지나간 王朝에 대한 單代史를 썼는데 이 朝鮮史라고 하는 책은 朝鮮 5000年 歷史를 全部를 다 다뤘습니다. 매우 건방진 構想이에요.

그래서 이 “朝鮮史”가 문제가 되고 植民史 撰이라고 하는 烙印이 찍힌 것도 바로 이때 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倭人들은 “朝鮮史”라고 하는 “通史”를 썼는데 그 編制는 統一新羅以後의 역사만을 취급했어요. 統一新羅 以後에서도 高麗史 以後에 力點을 두었고 또 高麗史 以後 가운데서도 “朝鮮王朝”에 力點을 두고 적었습니다. 그 “朝鮮史”라고 하는 冊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數를 「프로페이지」해 본 것이 있어요. 그 결과 “朝鮮史”는 名實相符하게 “朝鮮王朝史”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朝鮮史”라고 하면 모르는 분들은 우리 한글로 적은 冊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明治時代의 딱딱한 文語體의 日本말로 쓰여진 冊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國恥입니다. 우리의 歷史를 倭말로 적다니 말이 안되지요. 자 그러면 이 朝鮮史라고 하는 冊이 어떠한 角度에서 쓰여졌느냐? 크게 얘기해서 세가지 측면에서 저는 「朝鮮史」를 分析합니다. 즉 時間的인 側面과 空間的인 側面과 그리고 精神史的인 側面입니다. 이 세가지 側面 가운데 시간적인 측면을 보면 고려사 이후 千年史觀입니다.

“朝鮮史”의 「액센트」와 「포커스」는 바로 高麗史 以後에 있습니다. 王建太祖가 高麗라고 하는 王朝를 建國하신 해가 918년에요. 그런데 倭놈들이 우리나라를 뺏은 해가 1910년이니까 “朝鮮史”가 1910년까지의 역사를 다 쓰지도 않았습니까마는 그것까지 다 썼다고 하더라도 1000年 「마이너스」 8년에요. 992年間의 歷史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5000년의 韓國史를 고작 1000년의 韓國史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게 “朝鮮史”를 이 “千年史觀”에 立脚한 植民史書라고 부릅니다.

한편 空間的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韓國史가 이 韓半島에 접어든 年代는 高麗의 建國 918年 보다도 8年後인 926年인데 이것은 公式記錄입니다. 渤海帝國이 滿洲大陸을 상실한 해가 바로 926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韓半島에 접어든 이후 우리 韓國史의 「센터」는 韓半島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 역사는 천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천년 이전에 이 韓半島밖에서 살아온 우리 檀君할아버지 이래의 5000年史가 展開된 역사강역을 외면하고 단군 이래로 한반도에서만 살아온 역사인 것처럼 歷史를 적고 있습니까? 아까 金元龍教授께서 말씀하신대로 漢四郡같은 것은 당연히 韓半島안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宿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觀念的으로 「韓國」이라 하면 豆滿江 鴨綠江 以南의 삼천리 半

島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현재 우리 行政疆域은 休戰線以南입니다. 말하자면 半半島입니다. 「해프 페닌슐러」이지요. 또 우리 「매스컴」이나 一般에서는 韓半島가 韓國으로 通用되고 있습니다. “韓半島問題!” 하면 으레히 “韓國問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上古史를 공부하고 韓國通史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 疆域을 “現韓半島”란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大陸에서 살다가 동방 한꺼번에 옮겨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非論理的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안됩니다. 적어도 1000年 이전의 우리 韓國史는 그 「센터」가 大陸에 있었지 이 半島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우기 아까 金元龍教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解放 36年 동안 우리 韓國考古學에는 굉장한 發展이 있었다고 自負하셨읍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일단 認定은 합니다. 그러나 이 考古學이라고 하는 학문은 時間과 空間的인 制約을 받는 學問인 것입니다. 지금 考古學이 연구 對象으로 하고 있는 空間을 한번 따져 보세요. 그것은 당연히 現實的으로 休戰線以南입니다. 지금 金日成이가 앉아있는 北韓땅에 가서 우리가 考古學的인 發掘이나 研究를 못하지 않아요? 半島나 大陸에 있는 考古學的인 資料들은 모두 外信으로 알뿐이며 그래서 요새는 新聞考古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므로 고작 新聞考古學이나 外信考古學을 하시면서 크게 發展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지난날에 倭놈들이 쌓아올린 考古學的인 業績을 가지고 그것을 되짚으면서 굉장한 發展을 했다고 한다면 金元龍教授께서는 뭔가 좀 착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外國의 史學은 考古學에 앞서 있고 그 다음에 史學이 뒤따라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失言에 속하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考古學 이전에 이미 史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考古學이 史學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예요. 저도 「크리스찬」의 하나입니다만 敎인들이 읽는 聖書 「홀리 바이블」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스라엘」民族史입니다.

「홀리 바이블」은 물론 考古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다이안」將軍은 世界가 다 잘 아는 考古學博士입니다. 骨董品蒐集熱이 대단한 분이예요. 그가 蒐集하고 있는 骨董品 가운데 물론 그만 蒐集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 대부분이 「바이블」의 기록을 考古學的으로 입증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이들 考古學者들은 聖經에 記錄된 것을 하나하나 立證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이블」考古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史學과 考古學의 관계는 史學이 주요 考古學이 從입니다. 또 史學이 先이요 考古學이 後입니다. 보세요 B.C 4世紀를 말씀하시던 考古學的인 青銅器 年代가 요새는 B.C 10世紀로 올라갔다가 다시 B.C 7世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考古學이라는 것은 항상 年代自體가 流動的인 반면 文獻史學的인 年代는 確定되어 있습니다.

考古學的인 번덕스런 성과와는 초연하게 떠나 있는 文獻史學的인 분야는 考古學 以前에 이미 秩序를 갖고 있습니다. 文獻史學的인 大宗이라 할 수 있는 東洋의 正史 즉 中國의 二十五史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아실 겁니다만은 실로 엄청난 양이예요.

제가 한번 그 統計를 내봤어요. 지금 韓國에서 25史 나오는 것을 보면 한 「페이지」에 原文 4「페이지」가 인쇄되어 縮小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2「페이지」면 原文이 8「페이지」인데 만일 사람이 태어나는 날서부터 매일 8「페이지」씩 25史를 읽으면 61살에 한번 읽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양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하고 정연한 歷史의 記錄인데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긴합니다만 이러한 記錄 考古學이 立證해 주지 않았어도 存在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史學은 어디까지나 文獻史學이 주요 考古學 一般社會科學은 從입니다. 文獻史學을 뒷받침해주고 實證해주는 從의 役割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考古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歷史討論場에 考古學만을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金元龍博士의 입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正鵠을 얻지 못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기왕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마는 오늘의 演士配定만 보아도 저는 어저께까지 나 이외에 우리 相對方學者분들 즉 答辯하시는 被請原者側의 學者분들이 네분이고 나까지 합해서 다섯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請願者側을 代表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싸우는 相對가 1對 4정도나 된다 이렇게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보니 상대방에 한분이 더 늘어서 5對 1의 비율이 된셈이네요. 따라서 오늘 저는 紅一點입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시오. 이렇게 사정하는 대신에 차라리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어요. 내가 이 진술을 끝마치고 들어가면 내뒤에는 내 얘기를 반박하는 분들이 즉 계속해서 네분이 더 나오실 것 같은데 한 분이 10分씩 쓰신다면 한 時間을 쓰게 되는군요. 그러니 저한테는 時間을 1:1(일대일)로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저한테 時間을 충분히 주신다면 이제는 本論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請願 당초에 벌써 약간의 異意를 단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請願을 하는데 項目을 너무 여러 가지로 늘어놓지 맙시다”라고 安浩相 博士께서 請願代表가 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歷史대목하나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17個項目이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저는 오늘 나와서 제가 애당초에 얘기한 것처럼 정원항목을 줄여서 제가 말은 分野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分野는 바로 아까 金元龍先生께서도 「티치」하신 漢四郡問題와 三國疆域問題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많이 말씀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百濟疆域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은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漢四郡問題를 저는 세가지 각도에서 分析합니다. 첫째는 史料的인 측면에서 두번째는 狀況的인 常識的인 측면에서 세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考古學的인 측면에서인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분야를 더 보탠다면 地理的인 측면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서너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常識的인 狀況的인 측면에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教科書가 漢四郡을 設置한 年代를 B.C 108年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中學生 高等學生 누구나 붙잡고 漢四郡이 언제 滅亡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선 제 딸한테 물어봐도 문교

부가 어떻게 國史敎育을 철저하게 잘 시켰는지 “樂浪郡이 제일 오래 存屬하다가 A.D 313年에 滅亡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紀元 313년에다가 紀元前 108年을 합치면 總計가 421年이나 되는데 漢四郡이 421年이나 존속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東洋史의 ABC만 아는 사람도 이 421年이라고 하는 숫자를 納得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中國의 25史라고 하면 25王朝의 歷史를 적은 책인데 즉 漢나라때부터 明나라때까지 2000年 동안에 中國에서 亡하고 興한 王朝의 숫자가 모두 25個 王朝가 된다는 것인데 그 25個의 歷代王朝의 年代가 300年을 「오버」하는 王朝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外國에 있는 植民地가 421年이나 存屬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中國 王朝가운데 200年을 「오버」하는 王朝가 고작 네 個예요. 後漢 唐나라 明나라 淸나라입니다. 淸나라도 사실은 血族史的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系統입니다마는 하영든 네 個밖에 없습니다. 300년넘은 王朝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海外에 나가있는 孤立無援의 植民地가 400年동안 存屬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421년동안에 中國側에서 登落한 王朝를 보면 漢武帝의 前漢이 亡하고 王莽의 新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는 後漢 그리고 그 다음에는 三國志에서 말하는 曹操의 魏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西晉입니다. 이 5個 王朝를 거치면서 漢四郡이 무슨 戰利品인가요? 내가 가졌던거니까 네가 물려가져라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5代 王朝를 거치면서 歷代 王朝에 根民地노릇을 했다 이것이 漢四郡이다 한다면 이는 史學이 아니요 童話의 소재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漢四郡을 設置했다고 하는 이 植民地의 宗主國이 어떤 나라냐 하면 前漢입니다. 그런데 그 前漢은 A.D 8年에 滅亡했습니다. 그러므로 宗主國도 亡하고 없는 植民地 그런 植民地의 概念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國史敎科書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어드린 資料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國史敎科書에서는 “漢나라의 植民地인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 設置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植民地라는 政治述語조차 그런 정치 概念조차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접도 없이 “漢나라의 植民地인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 設置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넌센

스)예요. 그래서 저는 戰略的 狀況的인 측면에서 또 常識的인 측면에서 宗主國이 滅亡하고 나서 300餘年동안 存屬되었을 뿐 아니라 亡해 버린 宗主國에 忠誠을 다하는 이러한 植民地가 存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 400餘年 동안이나 交通手段과 通信手段도 없는 漢四郡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樂浪郡이라고 하는 平壤의 北쪽에는 당시 東洋最大의 強國인 高句麗가 뻗치고 있습니다. 만일 漢나라 使臣이 내 植民地 樂浪으로 갈때나 高句麗사람한테 길좀 비켜달라고 했다면 高句麗사람들이 좋게 비켜 주었을까요?

交通手段이 없으면 通信手段도 없는 것입니다.

交通도 通信도 아무 수단도 없는 이러한 植民地가 있었다고 해보았자 그것은 이미 植民地가 아닙니다. 이상은 狀況的인 혹은 戰略的인 常識的인 측면의 漢四郡不在論입니다.

다음 史料的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決定的인 얘기입니다. 漢四郡의 設置는 B.C 108年이고 그 당시 漢나라 임금은 漢武帝입니다. 中國의 25史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漢武帝때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筆者는 바로 漢武帝의 臣下요 史官인 史馬遷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漢武帝의 臣下가 130卷의 史記를 적었는데 그 第115卷이 이른바 우리가 문제삼고자 하는 漢四郡의 記錄을 적은 “朝鮮列傳”입니다.

따라서 이 “朝鮮列傳”의 記錄은 漢四郡에 관한 한 우리 史學에서 얘기하는 “第1次 史料”입니다. 말하자면 原典이라는 뜻입니다. 이 原典속에 오늘날 우리 中高等學生들이나 여기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고 하는 四郡의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럼 지금 教科書에서는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는 글을 도대체 어디에서 누가 創作해 뒀단 말입니까?

歷史라는 것은 創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歷史事實에는 「플라스 알파」도 안되고 「마이너스 알파」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어찌 있었는가? 그 역사 사실이 본래 어찌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實證史學의 標語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實證史學者 「랑케」가 얘기한 것이예요. 實證史學이 鼻

祖「레오폴드 폰 랑케」가 한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同意해요. 歷史事實은 본래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해요.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운 대로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대로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우리들 正史學徒들을 가르켜 “韓國史의 영광이나 긍지만을 造作하고 創造해 내는 學者”라고 얘기한다면 이는 中傷이요 謀略입니다. 우리야말로 歷史를 있는 그대로 적어내자는 것이 그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때 훌륭한 實證史學徒입니다.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는 글은 第1次史料 史記朝鮮列傳에 없습니다. 즉 “遂定朝鮮爲四郡”이라 “마침내 朝鮮이 平定되어 四郡이 되었다”라는 기록 다음에 글의 순서로 봐서는 “樂浪 玄菟 眞蕃 臨屯也”라하는 記錄이 있어주어야 하겠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요새 植民史學家들이 “그래도 있어 주었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내쉴텐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하게도 이 四郡이라고 하는 말 바로 다음에는 글자하나 빼놓지 않고 바로 계속되는 다음의 글이 뭐냐 하면 “平州 荻苴 湟陽 瀋清”이라고 하는 朝鮮사람 네 사람이 다스리는 네개의 地名이 나옵니다. 文法的으로 보아서 이는 同格語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祖國—韓半島”라 하면 “나의 祖國”과 “韓半島”는 同格語입니다. 또 “古代史學者”인 “나 林承國”하면 “古代史學者”와 “나”는 同格語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은 “四郡”인 “平州 荻苴 湟陽 瀋清”이라고 읽을 수 있으므로 이 “四郡”과 계속되는 네개의 地名을 同格語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四郡이 모두가 漢나라側 統治者가 아니라 전부 朝鮮사람의 統治者예요. 그러니까 우선 大前題로 이 四郡의 이름을 저는 漢四郡이 아니라 朝鮮四郡이라고 일단 假定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假定을 立證하기 위하여 戰爭內容을 훑어봅니다. 戰爭의 相對者는 普通 “敵軍과 我軍”이며 “彼·我”의 雙方인데 漢四郡戰爭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彼·我” 말고도 「어나더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古朝鮮族의 세력입니다. 저는 衛滿政權과 그 被治者인 古朝鮮族의 세력을 分離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衛滿이라고 하는 政權은 箕子朝鮮을 둘러엮고 그 자리에 들어

선 政權입니다. “衛滿이 우리 韓國족이다. 箕子의 性氏는 韓이다”해서 韓氏朝鮮으로 말하는 이병도博士의 말씀도 있지만 여기서 國籍問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몽든 衛滿은 그의 國籍上의 소속은 燕나라 사람입니다. 위만은 古朝鮮 社會에 亡命해 와가지고 詐欺를 했어요. 詐欺의 내용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지만 “漢나라의 兵士가 여덟길로 쳐들어오니까 내가 王城에 들어가서 城을 지키겠소이다” 하고 箕子朝鮮의 마지막 王 箕準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國史에서는 箕子朝鮮은 否認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箕準의 이름을 밝혔어요. 즉 國史 教科書에 보면 “箕準을 내어 쫓고”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王인 箕準은 認定하면서 箕子朝鮮은 認定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닌센스」입니다. 승승을 마시면서 휘파람을 분다는 矛盾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선 衛滿政權이 다스리는 百姓들은 古朝鮮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箕子朝鮮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孫子 右渠때에 內部的인 말하자면 갈등이 일어났는데 古朝鮮사람들이 主動이 돼서 政權을 뒤엎습니다. 바로 이것이 漢四郡의 眞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戰爭이 나고 革命이 나니까 漢나라 武帝는 水陸兩軍을 슬쩍 보냈습니다. 이는 마치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바구니 들고 도둑질이라도 해볼까 하고 뛰어드는 格이에요. 漢武帝는 水陸兩軍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水陸兩軍이 아무 戰果도 올리지 못하고 패전만하고 돌아왔습니다. 재미 있는 것은 이 水陸兩軍 가운데 樓船將軍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락“樓”字 배“船”字니까 아마도 다락같이 큰배를 타고 出戰한 海軍提督이겠지요. 제가 海兵隊司令部에서 講義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樓船將軍 楊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마 中國의 海兵隊司令官일꺼라고 했어요 왜 그런고 하니 海軍提督이니까 큰 배를 타고 나갔는데 자기 卒兵들은 전부 물귀신 만들고 배는 破船되고 樓船將軍 楊僕은 “遁山中拾餘日”이라 했으니까 山中에 10餘日 동안 혼자 몸을 피해 도망다녔다고 하는 記錄이 朝鮮列傳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나간 사람이 “遁山中拾餘日”했으니까 이것 海兵隊司令官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韓國海兵隊야말로 귀신잡는 海兵隊요 常勝의 海兵隊지만 中國의 海兵隊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敗色이 짙은 海兵隊인가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水軍에 관한 얘기입니다마는 陸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左將軍은 陸軍司令官인데 그의 部下인 卒正多라고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戰線에 나가서 敗해 가지고 돌아오니까 “너 왜 後退했느냐”해서 死刑에 처했습니다. 이밖에 이 漢나라 측의 人物이 “史記 朝鮮列傳”에 등장되는 人物이 모두 여섯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쫓아들겨 보겠습니다. 涉何 天子의 使臣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卒正多 그리고 또 한 사람은 公孫遂이며 그 다음에 衛山인데 이 네 사람은 全部 天子의 使臣입니다. 여기에 陸軍司令官이 荀彘요 海軍司令官이 楊僕입니다. 그런데 戰爭이 끝나고 나서 이 여섯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涉何는 戰爭初期에 戰死했고 卒正多도 역시 法에 의해서 斬首되고 天子의 使臣 두 사람과 陸軍司令官 海軍司令官이 論功行賞을 받기 위해 漢武帝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論功行賞이 내려진 줄 아십니까? 높은 賞이나 높은 벼슬이던가? 아닙니다. 死刑이 내려졌습니다. 漢나라의 刑法에는 死刑의 種類도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死刑이 棄市라고 하는 死刑입니다. 廢棄한다는 “棄”字에 저자 “市”字입니다. 즉 市場에 버린다는 말이니 글자도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을 죽여서 四肢를 뜯어서 長安의 四大門에다 걸어 놓는 死刑이에요. 극악스런 정말 國事犯이 아닌 다음에야 처형할 수 없는 이런 死刑을 다 받았어요. 全員 死刑입니다. 將帥나 天子의 使臣할 것 없이 全員 死亡! 이런 승리도 있습니까? 關係者全員 死亡 全員處罰 全員處刑이라고 하는 이런 승리도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그런 승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戰爭에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平州 菽菹 湟陽 灑清”이 四郡의 행정책임자가 된 조선사람들입니다. 물론 史記는 郡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四候”라고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명하겠습니다. 이

四郡의 統治者로 등장한 古朝鮮族 네 사람이 소속된 古朝鮮 즉 箕子朝鮮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衛滿朝鮮이라고 하는 하나의 統治機構가 무너지고 그 統治機構가 네個로 갈라지고 그 통치 主體가 箕子朝鮮人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저께 金哲煥博士께서는 “史記年表”를 動員하면서 이렇게 設置된 朝鮮사람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10年 20年 뒤에 다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치기간이 길고 짧은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戰爭의 勝敗를 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이 朝鮮사람 네 사람에게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 사람은 다 死刑됐는데 이 사람들만이 地域의 통치자로 군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은 그 옛날 箕子朝鮮의 땅이고 또 무너진 衛滿朝鮮의 疆域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위치를 어디라고 史記年表는 밝혔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全部 “渤海沿岸 즉 「보하이」灣 沿岸에서 山東半島에 걸치는 곳에 四郡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滿洲大陸도 아니고 韓半島는 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着眼하셔야 합니다.

李亨求教授가 79年度에 發表한 것을 보면 (지금 李亨求教授는 臺灣에 가 계신 줄로 압니다만) “箕子の 遺物들이 中國의 喀左縣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喀左縣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朝鮮人四郡이 설치된 바로 그 地域이며 옛날에는 箕子朝鮮의 땅이었습니다. 李教授는 이 出土物들을 研究하여 碩士學位까지 받았읍니다.

箕子朝鮮 있던 곳에서 箕子遺物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韓半島인 休戰線以南에서 出土되는 遺物들을 가지고 古朝鮮의 歷史를 證明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考古學이 안고 있는 학문적 限界性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南北統一은 빨리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中國땅에 가서 考古學과 韓國古代史를 연구해야겠읍니다. 武寧王陵에 관한 말씀도 했습니다만 中國땅에 가 보면 武寧王陵과 꼭 같은 梁나라의 墓制가 많이 있는데 武寧王陵의 墓制는 이상하게도 百濟武寧王陵의 墓制와 꼭 같습니다. 그렇다면 梁나라 하고 百濟는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 거의 틀림없지 않겠

읍니까? 그러나 과거와 같은 의례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즉 “墓制가 같으니 아마도 梁나라쪽에서 百濟를 쳐들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反對로 「百濟가 梁나라에 進出했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지는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던 司馬遷은 “史記 朝鮮列傳”을 다 적고나서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太史公曰”이라는 대목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記錄이나 하면 자기가 적은 歷史記錄에 대한 史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太史公曰”에서 “荀彘爭勞(순채쟁로)하여” 즉 “荀彘는 陸軍司合官인데 그가 功勞를 다투다가” “與遂皆誅(여수개주)라” 즉 “公孫遂(天子的 使臣)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兩軍俱辱(양군구욕)이라” 즉 “水陸兩軍이 모두 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辱을 당했다”는 말은 戰線司合官이 戰線에 나가서 뒤 적장에게 함이라도 맞았다는 말인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軍事術語인데 “졌다”는 뜻입니다. 自己側의 記錄을 敗라고 적는 法이 없습니다. 따라서 “辱”이라는 말은 졌다는 말입니다. “졌다”는 말을 漢文에서는 여러가지로 表現합니다. 自己側이 “졌다” “降伏”했다고 하는 表現을 “敗”나 “降”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까 “三田渡”의 이야기도 나왔읍니다만은 우리 仁祖大王께서 淸太宗한테 곤두 七拜하면서 降書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史書에서는 이를 뭐라고 적었고 하니 “城下之盟”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城下에 내려가서 盟誓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盟誓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條約締結이라도 했다는 말인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降伏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漢文의 「뉴앙스」입니다. “盟誓한다”는 “盟”字나 “講和한다”는 “和”字는 모두 降伏을 뜻합니다.

丙子胡亂때 南漢山城에 仁祖大王이 피난가 있을 때 臣下들은 “主和派”와 “斥和派”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崔鳴吉을 中心한 “主和派” 三學士를 中心한 “斥和派”였읍니다. 말하자면 즉 和를 反對하는 派예요 그러면 한쪽은 講和條約을 하자는 派요 한쪽은 降伏하자는 派고 한쪽은 降伏하기 싫다는 派입니다. 기왕 말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여기 李樂薰委員께서도 계시는데) KBS 「프로」 가운데 “大命”이라는 「프로」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仁祖大王의 丙子胡亂을 배경으로 해서 엮여지고 있는 「프로」입니다. 이 “大命”이라는 「프로」에는 아! 가만히 있어요. 제가 自己紹介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제 만아들놈이 바로 KBS 「탈랜트」인데 어찌자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大命” 「프로」에도 아들놈이 잠깐 출연했어요. 내가 왜 이 “大命”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五千年 韓國史에서 “城下之盟”을 맺은 사건! 즉 이 나라의 임금님이 직접 降伏한 「케이스」는 바로 이 丙子胡亂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歷史素材를 고를 것이 없어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大命”을 엮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大”字가 부끄러워요. 大命이라니 小命도 안돼요? 잘못입니다. 이 映畵가 主和派 崔鳴吉에게 「액센트」를 두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斥和派인 三學士 吳達濟 尹集 等에게 「액센트」를 두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形式論理로는 “降伏하기 싫다”고 하는 三學士의 斥和派에게 「액센트」가 있는듯 합니다. 분명히 KBS는 거기다가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다마는 잘못되었어요. 이는 著者의 史觀이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三學士가운데 한 사람인 尹集은 저 宋尤庵先生이 지은 “三學士傳”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仁祖大王에게 바친 이른바 上疏文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明之於我者는 父母之子也”라 즉 “明나라와 우리나라—朝鮮王朝와의 關係는 父母와 자식의 관계와 같소이다”하는 말입니다. 참 좋습니다. 또 “淸之於我者”는 “父母之讎也”라 했는데 즉 “淸나라와 우리하교의 關係는 父母의 怨讎다” 왜 그런고 하니 淸나라가 明나라를 자주 공격하고 침략하니까 말입니다. 또 “明之神宗之恩 咀嚼之間 夢寐之間 不忘之大恩也”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明나라 神宗은 壬辰後亂때 軍隊를 보내줘서 우리의 國難을 克服하게 하였으니 그 神宗의 은혜를 생각하던 “咀嚼之間”에도 “夢寐之間”에도 즉 “음식을 씹는 사이에도 잠을 자는 사이에도”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明나라와의 義理를 어떻게 저버리고 우리가 淸나라에 降伏

하겠습니까? 이것은 父母에 대한 不孝을 시키는 말입니다. 三學士의 忠誠이 자기의 祖國 朝鮮王朝로 向한 것입니까? 혹은 仁祖大王으로 向한 것입니까? 혹은 事大主義의 祖國인 明나라로 向한 것입니까? 더 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사실을 배경으로 한 TV 「프로」 “大命”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盟”이라 하는 말이나 “和”라고 하는 말은 모두 “降伏”했다는 말이며 “兩軍이 俱辱이라”한 이 말은 “水陸兩軍이 모두 辱을 당했다”는 말인데 이는 “水陸兩軍이 모두 敗했다”는 얘기입니다. 漢文의 「뉴앙스」를 아셔야 합니다. 또 “太史公曰”은 말하기를 “將率問莫侯矣”라 했습니다. 여기 “率”은 주로 읽습니다. 즉 “將校나 卒兵이나 간에 아무도 侯가 된 자 없다” “賞받은 者 없다”는 얘기예요. 賞은 무슨 賞입니까? 侯는 또 무슨 侯입니까? 모두 死刑 당했는데! 그러므로 “졌다”고 告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東洋史에서 歷史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太史公司馬遷이며 또 漢武帝 自身の 史官인 司馬遷이가 쓴 글에 “漢나라가 졌다”고 그랬습니다. 진 사람이 植地地를 設置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韓國正史라는 冊을 썼는데 대답하게도 “漢四郡은 없었다”하는 副題를 달아서 冊을 냈습니다. 이 冊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팔렸겠지요. 漢四郡은 없었습니다. 우리 “學界에서 漢四郡은 없었다”고 최초로 떠든 사람은 아마 冊으로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일 것이예요. 漢四郡은 없었습니다. 一次 史料上에 明示되어 있지 아니한 漢四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質問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마는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고 하는 四郡의 이름을 어디서 採取했느냐 설마 創作은 안했겠지요. 물론입니다. 史記 다음에 中國 25史는 前漢書입니다. 班固의 前漢書입니다. 史記와 前漢書의 時代的 「갯」이 180年 내지 200年입니다. 적어도 2世紀 以上 가까이 돼요. 後漢時代의 班固가 적은 前漢書에서 비로소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고 하는 여덟글자가 “加筆”이 됩니다. 제가 加筆이라고 하는 말에 「액센트」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班固의 朝鮮傳은 史記朝鮮列傳을 그대로 複寫한 것처럼 그대로 베꼈습니다. 글자하나 글

자의 順序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 베겼어요. 베졌는데 이상하게도 “遼定朝鮮爲四郡”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만은 爲字하고 “四”字 중간에 주 「遼定朝鮮爲」 다음에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이라는 여덟 글자가 붙어나고 그 다음에 “四郡”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遼定朝鮮爲 遼 國 玄 菟 眞 蕃 臨 屯, 四 郡) 이것은 분명한 加筆입니다. 나는 이를 班固 自身の 加筆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唐나라 이후 中國의 史筆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班固의 前漢書 이후 우리 韓國의 史學이나 東洋史學이 漢四郡을 擧論하면서 “史記朝鮮列傳”을 증거 자료로 들먹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지능적인 처사예요. 왜 그런고 하니 四郡의 이름이 들어 있는 “漢書朝鮮傳”만을 들먹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三國遺事의 “衛滿朝鮮”條만 보아도 “漢書朝鮮傳云”하고 註를 붙인 후 “樂浪 玄菟 眞蕃 臨屯也”라고 죽 적었어요. 정확한 “詐款”記錄입니다.

史記 朝鮮列傳에는 없고 그 200年後인 “한서 조선전”에는 실려 있는 四郡名입니다. 이 200년이라는 時間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一次史料上에는 漢四郡의 이름조차 없으니까 漢四郡은 본래 없었던 것입니다. 原典 곧 登記文書上에 없는 漢四郡입니다. 그런데 登記文書上에 없는 漢四郡을 漢의 植民地라고 漢側이 主張한다면 登記簿上에 없는 不動產을 自己것이라고 主張하는 꼴입니다.

내가 原典인 史記·朝鮮列傳에 樂浪 玄菟...등 四郡名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그때 있는데...”라고 反論할런지 모릅니다. 요새 翻譯되어 나오는 朝鮮列傳을 보면 四郡名이 있다는 얘가지요. 기왕 翻譯文化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참 기가막힙니다.

특히 漢文翻譯文化라는 것은 더욱 엉망입니다. 지금 漢文世代는 내가 54인데 아마도 내가 마지막 世代인 듯합니다.

漢文世代는 지금 잔들잔들해요. 우리가 解放後 36年 살아왔는데 이제 30年만 더 산다면 나도 安浩相博士님 나이보다 많아집니다. 84歲가 되니까요. 그쯤 되면은 아마 우리 韓國의 漢文世代가 끊어지기 前에 빨리 國史를 찾아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漢

文世代가 없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翻譯文化가 큰 일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朝鮮列傳이 翻譯된 것 많이 있습니다. 檀國大學 明知大學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各有名出版社 乙酉文化社 三星文化財團등에서도 史記 朝鮮列傳의 翻譯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된 朝鮮列傳을 보면 “마침내 朝鮮이 平定되어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의 四郡이 되었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史書의 原文과 “註”를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史書의 原文과 “註”를 구별한다는 것은 古典의 常識인데 저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5史는 심지어 註를 欄外에 따로 적고 있어서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古典들은 대개 原文을 한줄로 “... 이렇게” 적고 “註”는 작은 글씨로 두줄로 적어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그 “註釋”의 書名을 “集解”나 “正義”나 “索隱”이니 하고 적고 있습니다. 혹은 直接 “註者”의 이름을 “韋昭曰” “徐廣曰...”하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南北朝時代~唐나라 이후의 註書들입니다. 따라서 原文을 쓴 時代와는 대개 500年~800年 사이의 時差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原文과 “註”를 混同하거나 同一視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學校에서 “樂浪 玄菟 眞蕃 臨屯”을 배웠던 터에 古典을 번역하다 보니까 “遼定朝鮮爲四郡” 그 다음에 “樂浪 眞蕃 玄菟 臨屯”이라고 “註”를 끌어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史記 朝鮮列傳의 原文에도 없는 四郡名이 翻譯版 史記에 실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考古學에 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자꾸 敷衍하는 것같으나 金元龍博士께서는 修壽의 무덤을 말씀하셨습니다.

金元龍教授는 뭔가 의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韓國의 考古學者 가운데 修壽의 무덤을 美川王의 무덤이라고 倣倣學者들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修壽는 저도 주장하기를 여러 군데 글을 썼습니다마는 修壽는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修壽가 高句麗에 항복했다는 記錄이 資治通鑑에 나온다는 事實입니다. 항복한 자가 그의 무덤을 韓半島 땅에 남기는 것은 당연한 애

기입니다. 北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시다라는 우리들의 學問的인 主張을 왜 자주 北쪽에서 하는 主張과 우리들의 주장이 같다는 식으로 관련시켜서 얘기합니까? 우리 南쪽 學者들이 修壽의 무덤을 美川王 무덤이라고 主張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과 문헌 탓인지 모르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측에선 그런 사람 없습니다. 北쪽에서는 修壽의 묘를 美川王陵이라고 主張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修壽의 무덤이 1946年度에 발견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解放 다음해 1946년에 發見되었기 망정이지 이것이 만일 불행하게도 解放前에 왜놈이 있을 적에 발견되었다면 이 修壽墓도 아마 왜놈들에 의해서 漢四郡을 조작하는 考古學的인 反證資料로서 이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修壽墓에도 樂浪이라고 하는 墨書가 나왔으니까 沙里院땅이 또 한번 樂浪郡地가 될 뻔 했던 것입니다.

마침 修壽墓가 1946년에 發掘되었기 때문에 이런 禍를 면한 것입니다. 修壽의 무덤 비명가운데 歷史를 捏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資料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슷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金教授가 아까 자주 말씀하셨던 博墓가 있습니다. 中國사람들의 墓地는 당연히 博墓(벽돌무덤)입니다. 이 博墓가 韓半島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張武夷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帶方太守였습니다. 그의 무덤이 사리원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韓半島땅에 帶方郡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推定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왜놈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 張武夷도 아까 얘기한 修壽와 마찬가지로 高句麗에 포로로 잡혀온 漢人이었어요. 修壽에게는 항복의 記錄이 있습니다. 즉 “奔走高句麗云云” 하는 記錄이 資治通鑑에 나오지요.

따라서 修壽가 高句麗에 亡命 降伏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 張武夷에 대해서는 그런 記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비문상에 그가 항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즉 제일 마지막 대목에 “趙主簿가 令博 하니 慙意不臥”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趙는 성씨요 主簿는 高句麗의 벼슬이름입니다. 世上이다 아는 高句麗벼슬입니다. 三國史記의 官職考를 보면 主簿라고 하는 벼슬은 5等官입니다.

大韓民國의 身分法으로 보면 “主事補”에 해당합니다. “趙主簿가 令博”하니 “令”은 使役動詞입니다. 그의 명령으로 “博”하니 “벽돌을 구어서 博墓를 쓰게 되니”라는 뜻이요 “慙意”는 “은근한 뜻”이란 말이요 또 “不臥”라는 말을 “쉬지 않노라”라는 뜻이므로 “탱큐 베리 베리 마취”하는 뜻입니다. 즉 趙主簿의 은혜가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太守요. 그의 무덤에다가 “趙主簿가 令博하니 慙意不臥”라 즉 “5等官 趙主簿의 그 고마운 뜻을 길이길이 잊을 수가 없노라”고 했다면 帶方太守 張武夷는 趙主簿의 명령일하에서 이리 가라하면 이리가고 저리가라하면 저리가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現職의 太守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太守는 한 地方의 生死與奪權을 걸머지고 있는 地方長官인데 5等官의 명령에 의하여 그의 턱끝에서 돌아났다면 이러한 사람은 포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博墓 즉 벽돌무덤이 발견된 것도 土城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高句麗의 傳統的인 城法은 石城입니다. 그런데 土城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高句麗의 防禦用的 城이 아니고 그 城은 포로 程度를 수용할 수 있는 도망을 방지할 정도의 城이었으니까 土城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張武夷는 高句麗 兵士에 의해 사로잡혀온 漢나라 포로가 틀림없습니다. 또 金元龍教授는 封泥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다 지난날에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造作品 가짜입니다. 解放後 韓國의 學者들이 研究해 낸 것이 아닙니다. 봉니(封泥)라는 것은 옛날에 公文書를 보낼 때 나무 상자속에 書類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열십자로 끈을 묶은 다음 거기다가 아무도 개봉 못하도록 진흙을 뭉쳐서 發送官의 圖章을 찍는데 여기에서 發送官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發送官이 만일 樂浪太守이면 “樂浪太守之章”이라는 圖章이 찍혀서 이 진흙이 마른 다음에 사자를 시켜서 보내는 것인데 말하자면 옛날의 通信手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말로 말하면 “書類를 封한 泥” 즉 “泥”자가 진흙니자 이니까 “發送官의 圖章이 찍힌 진흙덩어리 마른 것” 그것이 “封泥”입니다. 요새 우리들의 通信手段은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의 消印을

황하고 적는데 요사이 우리가 보는 消印적인
우표! 그것을 封泥라고 보면 돼요. 樂浪太守
의 圖章이 찍힌 封泥가 平壤에서 발견되었다
고 한다면 平壤은 到着地입니다. 發送官인 樂
浪太守는 平壤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發送
地는 딴 곳에 있던 말입니다. 내 冊床위에
는 美國의 내 친구한테서 온 편지가 많이 있
습니다. 「워싱턴 디지」의 「스텝프」가 황 적혀
있습니다. 美國 우표까지 붙은 편지예요. 자!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서울은 「워싱턴」이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워싱턴」 즉 發
送地는 美國에 있지요. 樂浪封泥 數百個가 나
왔습니다. 樂浪太守의 封泥만이 아니라 縣吏
의 封泥도 있고 심지어 里長의 圖章까지 찍
힌 封泥가 있어요 옛날엔 里長은 도장도 갖
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里長의 封泥까지 나왔
답니다. 이렇게 왜놈들은 樂浪郡을 조작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한 考古學的 造作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漢四郡의 考
古學的인 문제는 이따 내 講演이 끝난 다음
에 朴時仁博士께서 補充說明해 주실 것으로
알고 내 이 정도로 考古學的인 문제는 줄이
겠습니다.

그 다음에 漢四郡의 문제와 관련시켜 歷史
地理學的인 측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遼東이라
고 하는 땅은 오늘날 遼東半島라고만 생각들
을 하고 있습니다. 요하 동쪽이란 뜻의 遼東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上古社會의 遼東은
現 遼東半島가 아닙니다. 遼東이 아니라고 하
는 한가지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즉 碣石山
의 史料입니다.

“碣石山은 在漢遼東縣하니 秦築長城이 東截
遼水하고 起於此山이라” 이것은 옛날 遼水에
대한 絕對史料입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碣
石山”이라는 山은 中國의 山海關 동쪽 海岸
에 있는 山名인데 이 碣石山은 漢나라 樂浪
郡 遼東縣에 있다 秦始皇의 萬里長城이 東
쪽으로 遼水를 끊고 이 山에서 일어났다 꼭
데기에는 長城의 遺蹟이 아직 있다는 말입
니다. 나는 中國胎生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이 碣石山은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解
放前까지 中學校 4학년 생도로서 中國땅에
서 태어나서 中國에서 컸어요. 그렇다면 그 갈
석산이 어디에 있어요? “樂浪郡 遼東縣에 있

었다”했습니다. 그런데 갈석산은 지금도 山海關
東쪽 海岸에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滿
洲와 中國 國境사이 國境都市 山海關에 있습
니다. 山海關의 海岸쪽을 내려다보면 바위의
돌산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 보입니다.
이것이 갈석산입니다.

이 山이 바로 萬里長城의 출발점입니다. “碣
石山은 在漢樂浪郡遼東縣”이라 하였으니 여기
가 樂浪郡 遼東縣이었습니다. 그런데 李丙薰博
士의 冊을 보면 이 遼東縣을 韓半島 黃海道
의 遼安이라고 했어요. “遼”字는 같은 “遼”字
예요. 遼安이 왜 그놈의 “遼”字를 쓰게 되었
는지 모르지만 “遼”字가 같다고 中國에 있는
遼東縣이 황해도 땅으로 올 수 있어요? 이것은
「년센스」예요. “秦築長城이 東截遼水하고 起於
此山”이라 “秦始皇이 쌓은 萬里長城이 동쪽으
로 요수를 끊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遼水가 어디에 있습니까? 萬里長城을 끊고
흐르는 江 그것이 바로 요수입니다. 여기에
地圖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山海關이고 바
로 여기가 碣石山입니다. 萬里長城은 地圖上에
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 萬里長城이 동쪽으
로 끊고 흐르는 江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그
江의 이름을 灤河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江이 옛날엔 遼水였던 것이예요. “萬里長城이
東截遼水”하는 江 그것이 옛날의 遼水였습니
다. 물론 최근의 遼水는 현 遼東半島를 南流하
는 遼河인데 바로 여깁니다. 地名이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동합니다. 최초의 遼東은 여러분들 상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最初의 遼東은 山西省
에 있었습니다. 山西省에 “遼”라고 하는 地名이
지금도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 보세요. 왜 이
런 資料를 알려 주어도 찾아 보지 않고 자꾸
反對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山西省의 “遼”라고
하는 地名이 있습니다. “讀史方輿紀要”라고 하
는 책은 中國 최대의 歷史地理書입니다. 거기
에서 “遼州”를 찾아 보세요. 山西省 條目에 있
어요. 거기 遼山이 있고 遼水가 있고 거기에
遼陽이 있고 現 南滿洲 遼東의 地名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최초의 遼東은 바로 이곳이예요.
그런데 一般은 13世紀 이후의 現 遼東만을 遼
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
다. 나는 北傀의 史學을 되도록이면 소개하
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하나

만 딱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린」이라고 하는
 學者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
 니다.

그 사람이 쓴 歷史冊을 나는 國土統一院 圖
 書館에서 읽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遼東概
 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동원한 資料는 溟水의 位置에 대한 대
 목이었습니니다.

“溟水出樂浪郡鏤方縣 東方過於臨溟縣 東入于海”
 (溟水는 樂浪郡 鏤方縣에서 흘러나와 東쪽으로
 臨溟縣을 지나서 東쪽으로 바다에 흘러든다)
 여기 溟水를 모두 大同江 또는 淸川江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學校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
 문입니다. 요새는 溟水의 위치가 조금 복잡해
 서 모두 淸川江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溟
 水가 “樂浪郡 鏤方縣에서 흘러 나오는데 東쪽
 으로 臨溟縣을 지나서 “東入于海”라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했습니다. 이것은 “水經”이라고
 하는 冊의 기록입니다. 물에 관한 기록으로서
 는 中國최초의 地理書입니다. 그런데 이 책
 에 溟水를 이렇게 적었어요. 대동강 淸川江 압
 록강이 모두 서쪽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東西南北의 方位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
 라면 아마 다 아실거예요. 우리 韓半島의 물
 은 모두 “西入于海”지요. 대동강도 서쪽으로 바
 다에 들어가고 그 많은 물들이 모두 동쪽으
 로 흘러드는 물은 아마도 두만강 이외에는 없
 을 거예요. “西入于海”가 아마도 半島에 있는
 水流의 方向일 겁니다.

그런데 溟水는 동쪽의 바다로 들어간다고
 “東入于海”라 했어요. 그런데 이 「溟水」를 지
 금까지 대동강 또는 淸川江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린」이라는 사람은 水經의 溟水記
 錄을 인용하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남쪽 史學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水經”이라고 하는 冊의 서문을
 보면 “수경은 오늘날 萬里長城 남쪽과 양자
 강이북 이 사이에 있는 물에 관한 記錄이
 지 滿洲에 관한 기록이거나 바다나 대륙을
 건너 뛰어서 韓半島의 물에 대한 記錄을 적
 은 冊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명
 패한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韓半
 島의 강물이 대동강(溟水)밖에 없나요? 淸川
 江 鴨綠江 豆滿江 洛東江등 얼마든지 많습
 니다. 그런데 「水經」속에는 하필이면 대동강의

溟水만을 뽑아서 적었올리가 없습니다. 수경이
 라고 하는 冊의 서술 범위가 長城以南의 中
 國 河川에 관한 기록이지 韓半島의 河川에 관
 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韓國사람들
 이 이 溟水를 갖다가 대동강이다 淸川江이
 다 하고 웃기는 소리만 하는지 알 수 없습
 니다.

熱河日記를 적은 우리 實學의 대표 朴趾
 源先生은 熱河城까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熱河日記”라고 하는 冊을 적었습니다. 그 冊
 을 읽어보면 中國의 溟水를 직접 보고서 적
 은 글이 있어요. “或指大同江 爲溟水 或指
 鴨綠江 爲溟水 或指淸川江 爲溟水 是朝鮮舊疆
 不戰自虜矣”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者는 大
 同江을 溟水라 하고 어떤 사람은 鴨綠江을
 溟水라 하고 또 어떤 者는 淸川江을 가르켜
 溟水라 하나 이는 朝鮮의 옛 땅을 싸우지도
 않고 남에게 내어주는 꼴이다」라고 개탄하였
 습니다.

“朝鮮舊疆不戰自虜矣”라! 요새 우리들도 이
 런 짓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熱河日
 記의 주인공 朴趾源先生의 탄식처럼 史學의 인
 부조리가 우리에게 과연 없는지요. 정말이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漢四郡에 관한 結
 論을 내리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만 기
 왕 내가 말아가지고 나온 百濟강역에 관한 結
 論으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
 百濟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마
 는 왜 정곡을 얻는 얘기를 못하시는지 모르
 겠어요. 어저께 이용빈교수가 하신 말씀에 하도
 답답해서 오늘은 제가 滿洲源流考라는 冊을 들
 고 나왔습니다. 李教授께서는 마치 滿洲源流考
 를 해설하는 것이 史學의 본분인 줄로 착각
 하는 듯한 기분이예요. 淸나라 乾隆皇帝가 지은
 책이 滿洲源流考입니다. 이 淸나라의 建國國
 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
 다. 아까 三學士 얘기를 했습니다만 三學士 계
 통의 사람들은 아마 淸나라 전위황제가 쓴 滿
 洲源流考를 싫어할 거예요. 淸나라는 “脫明斥漢
 主義”의 國是를 가진 나라입니다. 즉 “明나라 傳
 統에서 이탈하고 漢나라를 배척한다”는 뜻입니
 다. 淸나라는 혈통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와 같
 은 동족입니다. 동시에 高句麗의 후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많은 高句麗 百姓들이 다 어디로 갔을 것입

니까? 이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後裔인 청나라의 國是와 傳統이 “脫明斥漢主義”가 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乾隆皇帝는 청나라 역대 왕 가운데에서도 淸나라에 문예진흥을 主導한 아주 위대한 임금이었읍니다. 그의 승으로 지은 이 冊은 한 사람에게 의하여 적힌 冊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적혔읍니다. 그런데 왜? 이 滿洲源流考를 나무랍니까? 淸의 脫明斥漢主義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까? 요새도 저 三學士와 같은 崇明事大主學者가 있는 모양이지요? 항차 請願者側의 史學이 滿洲源流考의 典據하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百濟 얘기를 하면서 누가 滿洲源流考를 들먹저렸는가요? 물론 아닙니다.

滿洲源流考는 역대 中國의 25史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著者 自身の 意見을 겸손하게 달았읍니다. 즉 “謹按……” “삼가 생각컨대” “考컨대……”하고 註를 달았읍니다. 따라서 이 冊은 史學의 「가이드스」 역할을 해 준 冊입니다. 즉 中國 25史에 대한 「가이드스 북」이요.

그런데 이 책을 나무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항차 나는 滿洲源流考를 引用하며 百濟疆城을 說明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史學은 中國正史인 25史를 토대로 하여 成立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主導하는 學會는 “韓國正史學會”입니다. 즉 正史를 土臺로한 學會입니다. 百濟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제가 동원한 史料는 中國의 正史인 “二十五史”입니다. 中國의 正史인 二十五史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誌” “晉書” “宋書” “梁書”……등등 이렇게 해서 明나라의 역사책인 “明史”까지 二十五個王朝의 歷史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中國 二十五史 가운데 “百濟傳”이라고 하는 記錄을 公式의으로 記錄한 史書는 史記 前漢書 後漢書 三國誌 晉書 다음의 宋書부터 입니다. 즉 二十五史中 6번째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梁書 南齊書 北齊書 周書……” 이렇게 해서 “明나라 歷史”까지 이것이 中國二十五史의 체계인데 우선 宋書의 記錄부터 한번 소개하겠읍니다. 宋書 梁書의 기록은 꼭 같

습니다. 저는 正史의 記錄을 가지고 얘기하지 결코 野史나 非正規史料를 들지 않겠어요. 中國歷史의 記錄도 부인한다면 學問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宋書의 百濟傳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百濟者 後漸强大 兼諸小國 其國 本與句麗在遼東之東 晉世 句麗既略有遼東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 今柳城北平之間自治百濟郡”(宋書·百濟傳)

제가 이렇게 原典을 읽어 봤자 잘 理解하지 못할 것이므로 간단하게 解說하겠읍니다. 즉 “百濟라고 하는 나라는 後에 점점 強하고 커져서 여러 작은 나라를 併合하고(兼諸小國) 그 나라(百濟)가 본래 高句麗와 함께(其國本與句麗) 遼東의 東쪽에 있었는데(在遼東之東)” 여기서 高句麗를 句麗라고 적은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나 이는 中國사람들의 筆法입니다.

어떤 사람은 句麗와 高句麗를 區別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잘못이에요. 같은 나라입니다.

“句麗”에는 “高”字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안썼는가 하면 中國史筆처럼 오만한 史筆은 없습니다. “高”字가 높을 “高”字이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이는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王莽이란 자가 漢을 멸망시키고 “新”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는 周邊에 있는 나라 이름 山의 이름 地名들을 멋대로 고쳤는데 高句麗라는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고쳤는지 아십니까? 그는 “高”字가 보기 싫어서 “下”字로 고쳤어요. 그래서 “下句麗”라고 불렀어요. 中國人들의 심보를 이만하면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中國史筆에 세가지 原則이 있는데 첫째 “爲中國諱恥”(中國을 위해 中國의 수치를 숨기고) 둘째 “矜華夏而陋夷狄”(中國을 높이고 外國을 깎으며) 셋째 “詳內略外”(中國內國의 歷史는 상세하게 外國의 歷史는 簡略하게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不遜한 史筆精神 밑에 歷史를 적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與句麗在遼東之東”이라고 “高”字를 쓰지 않고 “句麗”라한 것입니다.

“其國本與句麗在遼東之東”이라는 대목의 “遼東”도 現在의 “遼東”이 아니고 저 上古時代의 “遼東”입니다. 위에서 碣石의 史料를 말씀드리

면서 “遼東의 概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알기 쉽게 萬里長城의 東쪽을 우선 “遼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現在의 韓國사람보고 百濟의 位置를 적으라고 한다면 “百濟與新羅在半島之西南地矣”라고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宋書百濟傳은 “其國本與句麗在遼東之東”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의 宋書百濟傳 原文을 繼續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晉나라 때(3世紀中葉) 高句麗가 이미 遼東을 占領하고(晉時 句麗既略有遼東) 百濟 역시 遼西 晉平의 二郡을 占領하니(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 지금의 柳城과 北平사이로다.(今柳城北平之間) 스스로 百濟郡을 다스렸다.(自治百濟郡)”

위의 晉時의 晉나라는 265년에 建國합니다. 이때 高句麗가 이미 遼東을 占領했다 했습니다.

또 위의 “百濟亦據有遼西晉平二郡地矣”라는 말의 遼西晉平二郡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高句麗가 遼東을 占領했는데 百濟는 遼西와 晉平을 占領했다 했습니다.

遼西가 韓國땅이 아니고 中國땅인 것은 確實합니다. 遼西란이 아니라 晉平郡의 二郡의 땅을 占領했다고 正式으로 적었어요 “註”에 뭐라고 적혔는고 하니 “柳城北平之間”이라고 했습니다. 버들 “柳”字와 재 “城”字! 아마 좀 낯선 地名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地圖를 찾아 보시면 黃河남쪽에 柳城이 있습니다. 河南省이지요. 北平은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오늘날로 中國의 서울입니다. “柳城과 北平사이” 거기에 遼西郡 晉平郡이 있었는데 “自治百濟郡”이라 했습니다. 즉 “百濟가 百濟郡을 自治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正史의 記錄이요. 特히 東洋正史의 記錄입니다. 나는 여러가지 수수께끼가 많이 있지만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뭘지 아시겠습니까? 이 글은 被害者인 中國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國史當局은 어째서 이 記錄을 못 본체 하십니까? 中國이라고 하는 나라는 百濟에게 자기의 땅을 뺏기고 主權을 유린당하고 被害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中國正

史속에 百濟가 遼西 晉平의 二郡을 占領했다 自治百濟郡을 했다고 적었는데 왜 우리 國史當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外面합니까? 여기다가 살 불이고 분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적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알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알파」는 물론 안되지요. 史料라고 하는 것은 歷史事實이라고 할 때 당연히 協商의 대상이나 總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史料를 있는 그대로 우리 國史教科書에 反映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이 수수께끼가 풀어주세요. 어떤 자는 이 史料를 斷片的인 記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宋史 한군데만이 기록이 있는 것이라면 斷片的이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宋史 梁史 北齊史 南齊史 周書... 심지어 滿洲源流考까지 이러한 記錄으로 꼭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記錄을 왜 斷片的인 記錄이라고 합니까? 또 왜 이것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이유를 알아요. 이는 韓國의 榮光과 관계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證據로 어저께 李龍範教授는 韓國의 榮光이 強調되고 韓國의 主體性이 뚜렷한 冊! 例를 들면 “滿洲源流考”나 “遼史地理志” 같은 책을 모조리 잘못된 책이라고 나무랐으니까요? 25史 가운데에서 “地理志”가운데 가장 參考할 것이 많은 地理志가 遼史地理志인데 하필이면 이런 主體性있는 冊은 용케도 골라서 못된 책이라고 그러는가 말예요. 나 그 意圖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지난날의 崇明事大主義者들이 하는 짓이에요. 明나라가 天下의 제일이고 明나라가 미워하는 나라는 淸나라요 滿洲族입니다. 그래서 淸은 嚴明斥漢을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과거에 明나라가 미워했으니까 淸나라에서 쓴 책이나 滿洲族이 쓴 책(遼史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모조리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것이 崇明事大主義의 再版이 아니고 됩니까? 그래서 現代版 三學士들이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이 땅에 三學士傳統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紹介한 “百濟史料”는 “絶對史料”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어요. 絶對史料라는 意味를 強調하

기 위해서 百濟는 後漸強大하여 兼諸小國하고 其國이 本與句麗로 在遼東之東하더니 晉世에 句麗가 既略有遼東하고 百濟亦據有遼西 晉平二郡地矣라 자! 이 記錄 왜 外面합니까? 外面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北史 및 周書에는 어떤 記錄이 있느냐 하면 “百濟…… 自晉宋齊梁據江左右”라는 記錄이 있습니다. 즉 “百濟는…… 晉나라 宋나라 齊나라 梁나라 때부터 揚子江·南北(左右)을 다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晉宋齊梁의 諸國은 모조리 揚子江 南쪽에 있던 南北朝時代의 南朝諸國들입니다. 中國史에선 “江” 이라면 “揚子江”을 뜻하고 “河”라 하면 黃河를 뜻합니다. 또 “揚子江”의 “左側”이라 하면 (“江左”라 하면) 물이 흐르는 上流에 서서 左右를 基準하므로 揚子江 北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據江左右”는 “揚子江 南北을 占領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百濟나 上海等地를 統治했다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架空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中國史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東城王의 國書오늘은 제가 그 윤곽만 말씀드리고 다음 公聽會때 좀 더 자세한 發言을 하겠습니다.

“中國二十五史”의 “南齊書百濟傳”을 보면 참기가 막힌 內容이 있습니다. 東城王은 中國의 南北朝時代의 人物인데 모하게도 “南齊”가 建國하는 해에 東城王이 임금이 되었고 南齊가 滅亡하는 해에 東城王도 昇遐하셨어요.

그러니까 東城王 一代하고 南齊라고 하는 나라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南齊와 같은 이런 「미니」帝國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미니」王國입니다. 이 南齊라고 하는 나라가 31년동안 계속되었는데 東城王도 역시 31년동안 在任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31년동안에 南齊의 王은 다섯 사람이나 登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임금의 平均 在位期間이 한 6年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百濟의 東城王은 南齊의 蕭蘭(소란)이라는 王한테 國書를 보냈습니다. 「레터 어브 스테이트」(Letter of state) 國書 말입니다. 이 國書의 內容이 “南齊書” 百濟傳속에 꼭 들어 있습니다. 現代人이 이 “南齊書”의 百濟傳을 보고서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 韓國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東城王은 中國의 山東半島에

서 南쪽으로는 上海까지 中國의 北京에서 東海岸을 7個地域으로 分割하여 百濟의 將軍 7名에게 그 統治權을 委任한다는 글을 前記 南齊의 「소란」王에게 國書로 보냈어요. 여기 이 地圖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마는 자! 여기 보세요! 中國의 地理的인 與件은 東海岸에 平野地帶가 密集되어 있습니다. “北京에서 上海까지”는 地圖만 봐도 과한 색깔로 칠해진 平野地帶예요. 여러분들에게 參考的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中國歷代의 王朝가 가지고 있던 首都가 어디지 아십니까? 이 平野地帶 살기 좋은 이 곳에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山東半島는 왜 山東半島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山西省 西쪽으로 여기 太行山脈이라고 하는 山脈이 흐릅니다. 지도상으로는 여기 이렇게 별경게 表示되어 있습니다. 이 太行山脈 東쪽이라고 해서 山東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山東省 西쪽은 河南省인데 黃河 南쪽이라는 뜻이지요. 河南省의 西쪽이 山西省인데 이는 太行山脈의 西쪽이라고 해서 山西省이라 하는 것이고 그 山西省 西쪽이 바로 陝西省(섬서성)인데 中國歷代 王朝의 首都는 바로 이 陝西省에 있었습니다.

그 陝西省에 周나라 殷나라 때의 長安 鎬京 秦나라때 咸陽 심지어 唐나라때 西安도 모두가 이 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地圖에도 鎬京 長安 西安 咸陽은 모두 이 陝西省에 表示되어 있습니다.

이 陝西省은 숭악한 山골짜기입니다. 여기에 歷代 中國의 首都가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사는 中國사람들이 그 東쪽의 살기 좋은 平野地帶에 살고 있는 우리 東夷族을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羨望의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東夷라고 했습니다. “夷”라는 글자는 오랑캐 “夷”라고 읽어서는 안됩니다. 「說文」이라는 책에서는 “夷”字를 “與古文仁同”이라고 했습니다. 즉 古文의 어질 “仁”字와 같은 글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中國古典은 이 “夷”字를 굉장히 羨望하는 讚辭를 써서 적고 있습니다. 어제 “東夷가운데서도 織貂……만이 韓國族”이라고 金哲俊博士가 말씀했는데 그런 斷定的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난 東夷만이 아니라 西夷도 우리 系統이라고 봅니다. “舜東夷之人也”라 “周文王西夷之人也”라

이는 “孟子”의 記錄입니다. 그러니 “夷”字는 마찬가지로 어찌 이를 달리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北京에서 上海까지” 中國의 實質的인 可住區域(사람이 살 수 있는 大陸) 그 全部를 7 個로 나누어서 百濟將軍 일곱 사람에게 統治權을 맡기는 글을 南齊의 소란이라고 하는 王한테 보냈어요. 그 당시 南齊는 百濟와 友好關係를 갖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協調公文이라고 할까요 그런 親書를 보냈읍니다. 그런데 中國史筆은 例의 그 傲慢不遜한 史筆로써 이 南齊書에 손질을 했읍니다.

가령 東城王이 木干那 贊首流 解禮昆…… 등 7 將軍을 太守로 任命했는데 그 國書의 序頭에 東城王이 “臣……假任 木干那……爲廣威將軍 云云”이라 하고 끝머리에는 “伏願……聽除 云云”으로 記錄한 것처럼 造作했읍니다. 즉 東城王이 31年間 겨우 存續한 南齊의 王한테 臣稱하고 “臣自昔受封云云”(臣이 옛날서부터 封을 받자음고……云云)했을 理가 있습니까? 또 “臣이 木干那를 임시로 任命하였사오니……願 除授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理가 있습니까? 정말이지 이는 「갓땀!」이요 「데버 하든」의 헛소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加筆만 빼고보면 이것은 百濟의 뚜렷한 榮光입니다. 中國의 東海岸을 「원 사이드」하게 支配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百濟 7 將軍의 姓氏만 훑어봐도 史學을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百濟에는 本來 八大姓氏가 있는데 中國二十五史와 우리 三國史記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百濟有 大姓八氏 沙氏 解氏 眞氏 木氏 國氏 燕氏 苜氏(或苗氏) 劬氏”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百濟 八大姓氏가 現在 南·北韓을 通하여 單 한 家口도 남지 않았는데 南齊書 百濟傳의 7 將軍 姓氏들은 대부분이 由緒깊은 八大姓氏들이라는 사실이에요.

東城王은 그 將軍들에게 中國의 東海岸을 支配하는 統治權을 委任하는 글을 적었어요. 아무 將軍은 이러저러한 功勞가 있기 때문에 靑河太守(山東省)로 任命한다는 등의 기록을 남겼읍니다. 때문에 그 當時 北朝가 魏나라인데 “魏나라의 軍隊를 무찔러서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붉게 물들였다”(僵屍丹野)라고 적힌 글을 보면 정말 피가 끓습니다.

百濟將軍들이 任命된 地名들만 훑어봐도 이

는 純粹한 中國大陸의 地名들이지 韓國의 東國 輿地勝覽 등 地理書나 史書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朝鮮 樂浪 帶方만을 除外하면) 즉 廣陽太守 廣陵太守 靑河太守 城陽太守 樂浪太守(北平近方) 帶方太守(北平地方) 朝鮮太守(역시 北京地方) 등 입니다.

여기 廣陽 廣陵 靑河 城陽 樂浪 帶方 朝鮮은 모두 中國땅에 있는 地名들입니다.

〈참고〉 「朝鮮城在今永平府(北京) 境內」 (大明一統志)

그런데 妙한 것은 中國史家들이, 南齊書百濟傳을 보다가 自尊心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어떤 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推理컨대는 唐나라 때의 史家の 짓으로 봅니다마는 南齊書百濟傳 序頭部分을 북! 뜯어냈어요. 百濟의 榮光이 하늘을 찌르고 中國의 威信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아마 文敎部에서 갖고 계신 25史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마는 저도 25史가 두 軀이 있는데 이 두 軀이 다 그래요. 뜯겨 나간 자리가 表示되어 있는데 하얀 空間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없어요. 그리고 그 空間에다 글자 네 개를 박아 놓았어요. 이것은 中國史家の 良心을 表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此下闕文”이라 “이 아래 글이 좀 빠졌시다”하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百濟의 榮光 東城王의 榮光은 이 “此下闕文”이라고 하는 空欄 다음에 계속되는 글의 內容입니다. 사실이 뜯겨 나간 자리에 있었던 百濟의 榮光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들 팔리 南北統一합시다. 그래서 옛날처럼 自由中國 中國大陸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나부터 먼저 中國땅에 가겠어요. 이 “此下闕文”의 空欄속에 들어 있던 글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中國땅에 가면 찾을 가망있어요. 나는 中國말 곧잘 합니다. 거기서 中學校 4 學年까지 다녔으니까요. 저기 宋志英教授께서 계신데 아마 中國말 석 잘 하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 總動員해서 中國에 가서 이를 찾아옵시다. 이것도 國史 바로 잡는 作業의 하나입니다. 아뭏든 이러한 百濟의 記錄을 外面하고 있는 現 史壇의 아리송한 태도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大陸百濟를 外面하지 맙시다. 아까 序論에서 말씀드릴 때 植民史觀——“朝鮮史”의 三原則을 말씀드리면서 半島史觀(空間)과 1000年史觀(時間)까지 말씀드렸으나 그 精神的인 側面은 일부러 미루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끝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結論을 맺겠습니다. 朝鮮史의 세번째 側面은 精神文化史的인 側面인데 그것은 곧 敗北主義입니다. 韓國은 外國과 싸우면 지는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韓國의 歷代史家가 “侵”字를 정식으로 쓴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韓國이 外國을 侵略했다”는 글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韓國이 外國을 侵略하다니 무슨 말이나? 外國의 侵略을 말하는 쪽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崔致遠이 唐나라의 太史侍中이라는 벼슬아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좀 특수합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南侵吳越云云”하고 “侵”字를 썼어요. 이진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高句麗 百濟全盛之時 強兵百萬 南侵吳越北擄幽燕齊魯 爲中國巨害隋皇失馭 由於征遼(三國史記·崔致遠傳) 즉 “高句麗百濟가 全盛했을 때 強兵百萬이 南쪽으로 吳나라 越나라(上海동지)를 侵略하고 北쪽으로 幽州·燕나라(北京쪽) 齊나라(山東半島) 魯나라(山東半島)를 쥐어흔들어 中國의 큰 적이 되었소이다. 隋煬帝가 亡한 것은 遼東(=高句麗)을 征伐하려다 그것 때문에 亡했소이다云云”한 것입니다. 崔致遠의 이 “上太史侍中狀”하나만 보아도 百濟가 揚子江 南쪽까지 세력을 뻗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왜 外面합니까? 저는 文敎部의 어떤 獎學官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은 압니다마는 實名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三清洞에 있는 어떤 研修院에서 이런 講演을 했다고 불평을 나한테 늘어놓는 어느 受講者의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가냐 하면(이 獎學官은 西獨까지 가서 獎學官노릇을 했다고 하며 머우기 現職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韓國은 實質的인 歷史가 2000年밖에 안되고 그 가운데서도 獨立史는 겨우 200年 정도에 不過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亡國의인 發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亡國이라고 한다고 해서 나를 나무라지 마세요.

韓國史가 2000年밖에 안된다 했으니 B.C

4世紀라고 하면 2400年인데 그러면 국사교과서 보라도 400年이나 작아버렸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國史敎科書에도 고작 B.C 4世紀라고 우리의 建國을 못봐지 않았어요. 요새는 조금 發展해서 B.C 10世紀로 그 年代가 올라갔어요. 아까 金元龍博士는 B.C 7世紀라고 했고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韓國의 實質的인 歷史는 2000年밖에 안되고 또 實質的인 獨立期間은 200年밖에 안된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韓國사람의 祖國觀은 모두 비뚤에 젖어 있고 敗北主義에 젖어 있습니다.

제가 文敎部에서 設定한 어떤 敎育機關에 가서 강의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被敎育者는 바다 건너 日本에서 온 男女僑胞 大學生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講義를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제 講義를 절반쯤 하였을 때 女學生들이 울기 시작해요. 噫황했습니다. 왜 울었는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委員님들도 海外에 있는 僑胞가 흘린 눈물의 뜻을 모르실 거예요. 왜 울었는지 아시겠어요? 나는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講壇에 섰는데 나보다 먼저 나와 꼭 같은 民族史를 들고 나와서 講義한 史學者가 있는데 그 사람은 첫날에 “우리 韓國史는 有史以來 지금까지 外侵을 받은 回數가 936回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아 주었겠지요. 그 다음날 다른 敎授가 역시 같은 民族史를 들고 와서 講義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한술 더 뒀습니다. “3,000餘回나 外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文敎部 어떤 獎學士의 말처럼 韓國史가 2000年밖에 안된다면 3,000餘回의 外侵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1년에 1.5회꼴로 外侵을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1년에 1번이라도 2,000회밖에 안되는데 計算 한번해 보세요. 1년에 거의 두번씩이나 外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外侵의 記錄을 가지고 있는 民族이라면 분명히 世界-最高記錄란 收錄하는 「기네스 북」에 우리 民族이 올라가야 됩니다. 敗北主義 統計에는 것이 史學의 本分인 줄 아는 모양이죠? 왜들 이렇습니까? 여대생들이 눈물을 흘린 뜻을 알겠습니까? 나의 “祖國史의 榮光”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저들은 너

무 감격해서 울었던 거예요. 저 李樂薰委員님이 계신 KBS TV부터가 그렇습니다. 왜? 자꾸 “大命” 「프로」같은 것만 합니까? 이게 이런 것 좀 벗어나자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이 얘기하려고 책 한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金言으로 본 韓國遺史”라는 책인데 이 책의 「캐치프레이즈」 말하자면 宣傳文句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글을 쓰시고 著書를 남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있습니다. 우리 韓國史를 이런 「스타일」로 표현해선 안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있는고 하니 “이 책속에는 우리 祖上들의 웃음보다 한숨 기쁨보다 눈물이 주름져 있다” 참 좋습다! 또 “이 책속에다 누가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과거는 이렇듯 비참했든가를 숨김없이 털어놓은 벌거벗은 지난날의 우리들 모습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 두겠습니다. 자 이런 글 쓰지 마세요. 敗北主義 녀두리입니다. 알기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祖國을 敗北主義傳統에 빛나는 祖國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내 祖國을 사랑하는 愛國心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國家代表 蹴球「팀」인 花郎「팀」을 應援하는 이유가 우리의 代表「팀」이 海外에 나가서 外國選手들 하고 싸워서 이기는 率이 한 80% 정도는 되고 또 倭놈들과 싸울 때는 반드시 100% 이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拍手하고 蹴球「팬」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蹴球「팀」을 보는 蹴球「팬」의 눈이나 國民이 자기 祖國을 보는 눈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有史以來 우리나라에 3,000餘回 1년에 두번씩 外侵을 당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 위해 愛國하고 忠誠할 마음이 생길까요? 지금 우리는 큰 戰爭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南北對決 國土統一이라는 戰爭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戰爭은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아십니까? 委員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傍聽客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치르고 있는 戰爭이 무슨 戰爭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가가 치르고 있고 자기가 所屬되어 있는 이 集團이 치르고 있는 이 戰爭의 「컬러」와 性格을 몰라서야 되겠음

니까?

알기쉽게 얘기하면 史觀戰爭입니다. 이것은 現實이에요. 냉철한 입장에서 이 現實을 直觀합니다. 즉 이 戰爭은 唯物史觀 共產主義와 史觀으로 싸우는 戰爭입니다. 우리앞에는 이러한 現實이 절벽처럼 다가 서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의 在來式 戰爭 在來式 武器에 의해서 싸우는 6·25戰爭에 직접 몸을 담아 陸軍航空隊 7期生 操縱士로서 이 戰爭을 내 몸으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戰爭은 在來式 戰爭 在來式 武器에 의한 戰爭이지만 이제 우리앞으로 다가올 戰爭은 史觀戰爭입니다. 우리가 唯物史觀을 이길 수 있다면 金日成을 이길 수 있고 이 戰爭에는 “승리한다”는 確率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史觀의 준비가 없다면 戰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對備를 해야 합니다. 자기 祖國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忠誠心이 샘솟는 원천이요 精神戰力の 샘터입니다. 위대한 祖國 공지와 영광이 아롱지는 祖國을 發見합니다! 제가 오늘은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체 조금 多血質인 탓에 좀 흥분한듯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全海宗教授 質疑에 陳述해 주세요.

○陳述人 全海宗 西江大學에서 東洋史를 연구하고 있는 全海宗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手中에 要約으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께서도 私席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公席에서 말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要旨만 말씀드리고 또 다소라도 격한 얘기는 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쓴 要旨가 며칠 전에 좀 줄속하게 쓰느라고 해서 要旨의 표현이 조금 부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安浩相博士 그리고 親知로서 잘 알고 있는 朴時仁先生 두 분과 오늘 相反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우 날카로운 筆鋒으로써

雜誌에 健筆을 휘드루고 계신 林先生은 紙上을 통해서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과연 熱辯을 토하셨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熱辯을 토할 수 있다면 저도 두 時間 세 時間 계속하겠읍니다마는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피곤하실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평이한 얘기인 까닭으로 여러분이 보시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本論의 序論이 30分 넘었읍니다마는 저는 本論을 합쳐서 30分이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할 要旨을 적은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本論의 말씀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教科書를 여러 委員님들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中學校 教科書 23「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23「페이지」 첫줄입니다. “그후 百濟는 近肖古王때에 馬韓의 남은 勢力을 征服하여 湖南地方을 완전히 統合하고 南海岸까지 그 勢力을 뻗었다 한편 옛 帶方郡의 땅을 사이에 두고 高句麗와 여러번 충돌한 百濟는 中國이 쇠약한 틈을 타서 遼西地方을 占領하기도 하였다” 아마 지금 매우 열렬하게 장시간 말씀하셨는데 教科書에도 이 점이 反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이 말씀한 가운데 제가 한 두가지 더 첨가할 것은 “東夷”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저의 要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南齊書 百濟傳에 몇 글자 빠진 것이 네글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300餘字이며 정확한 글자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빠져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 일곱 여덟가지 項目을 가나다라로 적었읍니다마는 그 중에서 처음 서너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에 重點을 두고 대부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山海經이라는 資料가 어떤 것인가 어저께 安浩相博士께서 나쁜 資料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좋은 資料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山海經의 朝鮮에 관한 부분을 잠깐 우

리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原文이 그렇고 제 翻譯이 조금 서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들으시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舜(요순의 순)의 妻 登比氏는 宵明과 燭光을 낳고(소명 밤 소자하고 밝을 명입니다. 촉광 촉이라는 촉자하고 빛광 이것을 불빛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마 아이들 이름같읍니다.) 黃河의 큰 못에 살았으며 두 사람이 여자의 靈魂은(靈魂이라는 말이지요) 이곳 方百里를 비칠 수 있었다(그 다음에) 蓋國(蓋馬라고 하는 蓋지요)은 강대한 燕의 남쪽 倭 이북에 있으며 倭는 燕에 속한다 朝鮮은 列陽의 동쪽바다 열량은 연에 속한다” 그리고 한 20餘字 빼겠습니다. 다음 “陵魚는 人面으로 수족이 있고(陵魚는 고기 이름입니다) 물고기 몸으로 海中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山海經의 序文을 쓴 郭璞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山海經을 읽는 사람들은 다 荒唐無稽하고 奇拔한 말이 많아서 의문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郭璞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神秘主義가 되어서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마저 이 책을 荒唐無稽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手中에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도 그림도 재미있고 해서 한 장씩 寫本을 드렸읍니다. 그 괴상한 짐승이 있는 그림입니다마는 그것이 山海經 廣註(넓을 廣字 주석이라는 廣註)에 부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山海經註는 물론 後代에 된 것입니다. 淸나라 때에 된 것인데 그 註가 매우 재미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山海經에 그림으로써 註를 단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것은 사진이 8개만 실려있읍니다마는 사실은 200個 더 있으니 꼭 재미나신다고 생각하는 분은 더 「체류스」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상 山海經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滿洲源流考는 여러번 말씀이 나왔읍니다. 저로서 한 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滿洲源流考가 생겨난 그 당시에 淸代의 政治的 社會的 環境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淸나라가 처음에 建國했다고 하는 것이 1616年이고 中國에 들어가서 明나라를 대신한 것이 1644年입니다. 그리고 이 滿洲源流考가 이루어진 것이 그 보다 130年後인 1770餘年인데 처음에는 淸나라는 中國에 들어갈 적에 中國의 漢民族하고 자기들 滿洲族하고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말하자면 滿漢一體라는 說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들이 진정한 漢民族의 文化의 愛護者라고 하면서 愛護者니까 中國사람을 支配할 수 있다는 說을 내세웠어요. 그러나 中國사람들한테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00餘年間 그런 政策을 썼습니다마는 그 후에 中國사람의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반발을 사게 되니까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滿洲族의 國粹主義라는 것이 되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를 美化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編纂事業을 합니다. 여러 가지 編纂事業을 하는 중에 하나가 滿洲源流考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歷史書籍이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를 美化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린 데에는 古今地名大辭典이라든가 漢韓大辭典하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의 문제는 歷史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基礎的인 常識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史料라든가 어떤 證據가 있을 경우에 하나의 證據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證據라고 提示하기 어렵다 그 證據가 定說로서 定해진 學說로서 成立되기 위해서는 몇 個의 傍證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證據를 孤證이라고 하지요. 時間이 아깝습니다마는 雜談 비슷한 극단한 例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20年前에 外國사람이 쓴 冊이 있었읍니다. 「코리언즈 아 화이트」라는 冊입니다. 題目이 하두 이상해서 뒤져봤읍니다. 「매케비치」인가 하는 美國사람이 쓴 것입니다. 重點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韓國戰爭에 參加했었는데 아마 希臘系統의 사람이었던 모양이지요. 美國에 돌아가서 「그릭오스투스처치」에 갔읍니다. 거기에 갔더니 「아멘」 대신에 韓國에서 들던 예에 소리를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었어요. 야 이상하다

韓國에서도 예라고 하고 「그릭오스투스」에서도 예라고 한다 그래서 비슷한 말句를 찾기 시작했읍니다. 한 100「페이지」되는 冊을 냈읍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韓國말 「예」뿐만 아니라 中國말 「스」(是)라는 말까지 알았다면 「예스」 즉 「코리언즈 앤드 차이니즈 아 화이트」라는 冊을 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遺憾스럽게도 「코리언즈 아 화이트」라는 冊만 내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證據의 反證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個의 證據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의 反證이 있다고 하면 그 反證을 철저히 封鎖할 수 있는 또는 除去할 수 있는 方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證據가 있다고 해서 “야 이것 되었구나” 하며 하나의 證據를 찾고 만족하신 분들은 그때그때 喜悅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史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證據가 나오면 이것이 무슨 反證이 없겠는가 그것을 찾느라고 늘 애를 먹읍니다.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은 하나의 證據를 갖고 거기에 만족하시고 이것을 내세우는데 왜 反證을 즉 거기에 反對되는 證據를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우거나 하나의 證據가 아니라 正史(아까 正史의 얘기를 여러번 하였고 사실 中國史를 하는 立場에서 보면 세분 先生님이 다 中國史를 소중히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합니다마는)에도 여러 가지 誤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나온 正史에 하나의 誤謬가 시작되면 그以後의 正史가 그것을 본받아 버립니다. 그리하여 아마 죄송합니다마는 安先生께서 쓰신 글에도 저희같은 正史같은 것은 年代가 오랜 것부터 듭니다. 그런데 뒤의 것을 먼저 들었다가 앞의 것을 들었다가 하시는데 저희 같은 먼저 드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 하는 것을 表示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이 혹 저희하고는 觀點이 다르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史料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께 朴時仁先生께서 滿洲老檔秘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귀중한 資料입니다.

한데 이왕 滿洲老檔秘錄을 보시려면 만문노

당을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길에 접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滿洲老檔秘錄에는 誤謬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후에는 만문노당을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다음 補助科學이라는 문제 이것도 제 자신이 補助科學에 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소리로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歷史하는 사람으로서는 늘 補助科學에 대한 關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最大限의 任務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어저께 安浩相博士께서도 三皇이야기를 여러번 하였고 東夷族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民俗學이라고 할까요 神話學에 있어서는 三皇뿐만 아니라 5帝까지도 지금은 歷史에 담념어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神話 내지는 傳說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三皇五帝傳說같은 것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三皇이 있고 그 다음에 五帝中에도 黃帝가 있고 맨 끝에 堯舜이 있고 그 다음에 禹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傳說이라는 것이 생겨날 적에는 맨 뒤의 것부터 먼저 생겨난다 말이지요. 禹의 傳說이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堯舜 즉 우리 것은 더 오래다 하는 것으로서 堯舜을 내세운다 좀 더 오래다 다음에는 우리는 五帝中의 맨 꼭대기 黃帝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三皇의 傳說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三皇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더 信憑性이 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傳說의 成立時期는 中國에서 말하면 起源의으로는 오래지만 이러한 傳說들이 盛行하기 시작한 것은 孔子時代로부터 戰國時代 末期니까 約 3, 4世紀 동안에 時代順으로 이 傳說이 반대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韓國史에 있어서도 考慮를 할 하시고 時代的으로 더욱 늦을수록 神話나 傳說이라는 것이 더 오랜 것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낱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補助科學에 관하여 「프린트」에 제가 예로서 들었습니다. 鷄林과 吉林 溇水の 溇와

白, 몇분 先生님께서 쓰신 論文을 보았습니다. 물론 鷄林하고 吉林에 관한 것은 滿洲源流考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滿洲사람들이 無識해서... 無識하지 않더라도 모르는 척하고 일부러 利用했는지 모르지요. 왜 이것을 그때 당시에 鷄林이 있을 때 당시에 鷄의 音하고 吉林을 古代音으로서 表示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래도 좀 비슷한 얘기가 되지요. 現代音으로(古代音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韻字를 볼 적에 한글자는 質字韻이고 韻字는 齊字韻인데 이것이 어떻게 갈을 수가 있습니까? 또 朴先生께서는 이번에 새로 아마 漢四郡에 관해서 쓰신 論文을 日本에 가서 學界에서 發表하실 모양인데 거기에 溇字하고 溇 白字를 中國語를 利用해서 「마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現代音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 溇水가 문제되는 그 時期에 과연 갈았을까 溇하고 白이 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東夷에 관한 문제입니다. 東夷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세분 先生님께서 약간씩 意見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마 朴時仁先生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意見하고 매우 接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安先生께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오늘 말씀하신 林先生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요컨대 東夷라고 하는 것은 普通名詞지 固有名詞는 아닙니다. 東夷는 우리 古代에 있던 맥까지 합쳐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古代에 있던 韓族하고 같은 것은 아닙니다. 東夷속에는 朴時仁先生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安先生께서 말씀하신 肅慎같은 滿洲族이 우리하고 同族이라고 하게 되면 왜 倭族은 우리하고 同族이 아니라고 합니까? 같은 東夷가 아닙니까? 그런 論理가 成立해야만 肅慎이나 滿洲族이 우리 東夷하고 같다는 理論이 成立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朴時仁先生께서 李滿住의 얘기를 고집어내셔서 李滿住의 후예가 「누르하치」라고 하신 것같은데 제가 혹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뒤 後字는 후예가 아닙니다. 역시 時間的인 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저

게 神話에 관한 얘기에서 朴時仁先生께서 「라이샤워」의 東洋文化史 「그레이트 트레디션」을 引用하셨고 또 中國의 學者 동작빈을 擧論하셨습니다. 사실 「그레이트 트레디션」이라는 冊의 번역은 그 部分은 제가 擔當하지 않았으나 마는 中國史部分을 제가 擔當해서 譯者로서 責任도 느끼고 해서 어저께 잠깐 冊을 뒤져 거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B.C 2333年 하는 年代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의 說明이 결코 朴先生이 주장하는 理論에 적합한 說明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中國의 最初의 傳說的 王朝」라고 하는 夏의 建國에 대체로 時間的으로 견주어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서 나타난 것이 2333年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이 部分은 「라이샤워」가 쓴 部分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와그너」라는 教授가 썼을 때 쓴 글입니다. 그 節의 全體 「타이틀」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朴先生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화운데이션 어브 미스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傳說이라고 하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朴先生이 주장하시는 立場에서 적당한 引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작빈의 경우 저는 아직 동작빈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동작빈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는 甲骨學을 하는 사람입니다. 甲骨文字를 基礎로 해서 2333年이라는 年代가 나왔다면 그것은 매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大學에서 最初로 外國사람으로서 文學博士學位를 받은 點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待接으로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대한 歷史를 무엇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點은 아무리 外國學者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專攻分野가 아니면 外國學者의 權威를 빌어서 證據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朴先生은 어저께 「이노우에 히메오」씨의 冊을 김동욱씨가 翻譯한 것을 빌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동에 朝鮮이 있었다 하는 말씀인데 물론 저 個人으로서도 「이노우에 히메오」씨도 잘 알고 그 분이 韓國史에 대해서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古朝鮮問題나 또

는 요동에 관한 積極的인 言及을 할 位置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이것은 아카 林先生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학자가 作成한 地圖를 「이노우에」씨가 그대로 引用한 것을 말씀한 것인지? 「이노우에」씨 自身이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실혹 自身이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노우에」씨의 言及을 가지고 이것이 證據라고 내세우기에는 미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時間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 部分에 도달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이 많았습니까마는 歷史를 美化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이것은 과연 統計的으로 보아서 우리의 歷史를 너무 좋지 않은 點만 들추어서 表現을 했다면 教科書에 있어서도 마땅히 그것은 북한 中 高等教育에 있어서나 國民學校教育에 있어서나 是正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美化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저께도 韓·日合邦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韓·日合邦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했는데 外部的인 要因만 중요한 것인가? 日本이 나쁜놈들이니까 그 놈들이 우리를 합쳤다 그것만으로써 說明이 不可能할 것입니다. 우리도 나쁜놈들이니까 나쁜 것입니다. 外部的인 要因을 強調할 적에는 過去에 日本사람들이 우리한테 強要하면 他律性이라는 것이 強化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自律性이 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責任이 있었다 責任을 느낌적에 비로소 自律性이 생기는 것이고 소위 主體性이 생기는 것입니다. 責任은 日本한테 돌린다 이것은 他律性史觀하고 마찬가지로 結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美化한다는 것이 특히 教育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全的으로 美化한다는 것은 教育上으로도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 “바” “사”의 “사”에 대한 것은 어저께도 言及되어서 省略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아” “자”項目을 합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적은 까닭은 어제 오늘 여기 委員長께서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자연히 우리 學界의 學問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직 원숙한 境地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學問的으로 충분한 成果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재로서 자기의 學說을 主張하려

고 하는 傾向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人身攻駁도 나타나고 感情的으로 호르기 쉽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느정도 學問이 完熟될 때까지는 특히 古代史研究에 있어서는 論文으로서 發表를 하고 論文을 통해서 相對方의 意見を 攻駁하고 하는 것이 당분간은 正道가 아니겠는가 그것은 彼此의 感情을 폭발시키지 않는 方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한 論文中에는 人身攻駁은 없어야 되겠지요. 남을 捏造해서 謀陷하려고 하는 意圖는 물론 없어야 되겠지요. 말하자면 學問的인 相互批判을 위해서는 論文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段階가 지난 다음에는 公開的인 討論이라든가 公聽會 이라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제가 드릴 말씀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행히도 韓國史專攻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委員님들께서 저회돌보다는 立法機關에 계시니까 行政機關을 통해서 또는 立法機關에서 직접할 수 있는 일일텐데 韓國古代史가 아직 發展이 遙遠합니다. 좀 더 여러가지 方法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외람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事情이 있어서 부득이 質疑에 앉아있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쉬운 말씀을 드려서 質疑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혹 質疑가 있으시면 제가 李龍範教授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承諾을 하셨습니다. 質疑가 있으시면 李龍範教授한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陳述人 朴時仁 委員長님! 全先生님께서 나가시기 전에 한 2分間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에. 말씀하십시오.

○陳述人 朴時仁 어저께 제가 引用한 가운데 滿洲老檔秘錄을 引用하고 왜 滿文老檔을 引用하지 않았느냐고 하셨는데……

○陳述人 全海宗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力點을 두었다는 것이지……

○陳述人 朴時仁 제가 故意的으로 어느 冊을 피하고 다른 冊을 引用한 것처럼 誤解될 염려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滿文老檔은 滿洲말로 되어 있습니다. 滿洲語

로 되어 있기 때문에 日本 東京에서 그 말소리를 「로마」字로 고쳐쓰고 의미를 日本語로 번역해서 낸 冊도 있습니다. 그 책은 서울大學校圖書館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貸出하여 秘錄과 함께 제 研究室에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서로 대조하며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引用한 글의 內容은 두 책에서 완전히 같습니다. 왜 秘錄에서 引用하고 다른 책에서 引用하지 안했느냐는 全教授님의 말씀은 두 冊의 內容이 완전히 같은 것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서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陳述人 全海宗 제가 아까 틀린 것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그 정도로 되었습니까. 또 있습니까?

○陳述人 朴時仁 그 다음에 溟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溟水의 溟와 白河의 白은 中國發祥으로 다같이 「보」 혹은 「파이」로 오늘날 같은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도 같았느냐 하는 疑問은 提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溟水에 대해서는 저 혼자 獨斷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无涯 梁柱東先生의 學說에 따라서 「溟」 혹은 「白」은 우리말 「밝」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梁柱東博士가 고가연구에서 맨 初頭에서 平州 溟水 白河 등은 다 같이 우리 말 「밝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고해서 溟水와 白河는 같은 地名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滿洲源流考에서 引用한 李滿住가 朝鮮 咸吉道에서 建州에 이사하여 云云하는 글 가운데서 其後라는 말은 나중에 라는 뜻이고 後孫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全博士께서는 말씀하셨는데 統其都統하는 말에 비추어도 後孫이라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은 나중에 우리 先輩되시는 全先生과 個人的으로 이야기 할까 합니다.

그 다음 「라이샤워」씨 冊에서 제가 引用한 것은 神話라고 紹介하는 대목에서 引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이 神話에는 東北亞細亞系統의 아주 오랜 民俗이 담겨 있어서 年代가 오랜 것으로 짐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제께도 저는 완전히 歷史라고는 안 했습니다. 歷史라고 보기에 는 疑心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否認할 資料가 없으니까 저는 否認을 못합니다. 아무도 否認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은 井上秀雄教授의 말에 대해서인데 그것은 延世大學校 金東旭博士가 翻譯한 것입니다. 저는 金博士가 翻譯을 責任있게 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日本語로 된 原書를 보자는 않았습니다는 譯書에는 제가 引用한 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冊은 흔한 冊이니까 누구든지 求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 말씀을 끝 마치고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全海宗教授 答辯 안 하시겠습니까?

○陳述人 全海宗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그러면 다음은 李基白教授 陳述해 주세요.

○陳述人 李基白 존경하는 文公委員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 나와 셧습니다마는 마음은 착잡합니다. 지금 請願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古代史를 주로 하지만 制度史 즉 政治制度史 軍事制度史 社會制度史 그리고 思想史 이러한 面에 주로 研究를 해 왔습니다. 또 政治制度史를 했다고 하지만 新羅의 경우에 가령 和尙會議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항하는 王權을 중심으로 하는 執事部의 制度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밖에 많은 政治制度가 있고 거기에는 또 다른 專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一生동안 韓國史 공부를 마음먹고 今年에 꼭 40年 공부를 해 왔습니다는 제자신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고 솔직한 이야기가 아는 것은 티끌만큼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은 泰山과 같은 그런 기본에 휩싸여서 冊을 뒤지고 그러는 겁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제시했지만은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서 우리나라 歷史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一生을 바치고 사고를 했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 民族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지니고 있는 제

간절한 所願입니다. 그런 기본은 저와 같이 여기에 서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로일 것으로 분명히 믿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이 갈라지고 의견이 對立되고 그런 의견의 對立이 단순한 學說의 對立만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에 저는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슬픔을 솔직히 禁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기 請願書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중에서 제가 對答할 수 있는 사실을 對答할 수 있는 대목들이 조금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委員長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충고라고 할까 좋은 의견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저도 이 原稿를 작성했습니다.

사실은 그그저께 大學豫備考査의 監督을 하고 나와서 저녁에 그 請願書를 받았습니다. 寫本을 받고 國會에서 보내 주신 것은 어저께 저녁에 받았습니다. 제 옛 住所로 갔더구만요. 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그날 저녁에 받고 읽어 봤는데 문제가 多岐에 걸치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冊을 읽어 왔습니다는 整理가 안되고 그 다음 날은 저희 大學의 博士學位 論文審査가 있어서 종일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이 原稿를 作成했습니다.

그래서 不充分하고 또 혹시 잘못된 점이... 갑자기 쓰느라고 잘못 表現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원고를 읽어가면서 補充說明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請願書를 내신 분들이 關心을 가진 상당한 部分이 歷史地理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領土가 넓었다 그런데 왜 좁혔느냐 民族의 영광을 왜 埋藏하느냐 그러한 抗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랬는지 國史教科書를 是正하자고 하면서 지금 全海宗先生이 읽어 주신대로 명백히 教科書에 적혀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써 넣어라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은 무언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는가 그 請願自體가 다른 대목에는 또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좀더 基本的인 根

本的인 論議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특히 史觀 우리나라 歷史를 보는 觀點 게다가 그것을 통한 第二世國民에 대한 教育의 문제 이것은 장래의 우리 民族에 대한 중대 문제입니다. 이 教育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컨대는 植民主義史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目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植民主義史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에매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領土가 넓었다고 하려면 植民主義史觀이 극복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같은데 제 생각은 그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中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論議하고 있는 日帝植民主義史觀에 대한 극복은 무엇보다도 그 植民主義史觀의 基本性格에 대한 認識이 앞서지 않고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不可能한 일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植民主義史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地理的 決定論입니다. 地理의 狀況이 歷史를 決定한다 歷史의 運命을 決定짓는다 그러한 論입니다. 물론 그 理論이 地理的 決定論을 이끌어 내는 過程에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가령 우리 주위에 있는 中國 滿洲 日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셋을 들었습니다. 이 強大國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中國과 滿洲는 領土가 넓다 日本은 領土는 넓지 않지만 바다나라다 섬나라다 그래서 強大國일 수 있다 마치 「유럽」에서 英國과 같다 이었습니다. 이 強大國들에 의하여 우리의 歷史가 他律的으로 움직여 왔다는 他律性理論 이것은 다른 表現으로 하게 되면 事大主義理論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事大主義理論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事大主義가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고 우리 歷史를 叙述하는데 事大主義라는 用語를 말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어제 朴時仁先生이 제 의견에 同調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먼저 그런 주장했을 것으로 믿고 있고 사실은 그 주장을 글로 쓴 것은 제가 먼저지만 그런 發說을 한 것은 돌아가신 李相佰先生입니다. 어떻든 이 他律性理論은 事大主義理論 혹은 半島史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領土가 半島에 局

限되어 있기 때문에 他律的일 수 밖에 없다는 理論입니다. 이것을 他律性理論이라고 제가 하는 것은 事大主義理論이나 半島史觀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日本의 三品彰英이란 사람이 「朝鮮史概說」을 쓸 때에 「朝鮮史의 他律性」이라는 한 「책타」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 사람이 붙인 이름에 따라서 他律性理論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三品彰英이라는 분은 어제 李龍範先生이 말씀하신 稻葉岩吉과 쌍벽을 이루는 日本植民主義史觀의 代表的인 보다 더 세련된 그런 論理를 展開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理論에 의하게 되면은 宿命論 韓國사람들이 宿命論의이다 黨派性이 있다 雷同性 즉 아무 일없이 한 사람이 떠들면 거기에 우 하고 따라가는 雷同性 등의 나쁜 民族性이 先天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後天的이 아니라 先天的으로 運命지어 졌다는 民族性理論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땅이 작고 民族이 弱하기가 強大國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은 中國에 볼고 어떤 사람은 滿洲에 볼고 어떤 사람은 日本에 볼고 그러니까 黨派性이 생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強大國이 左之右之 하니가 宿命論에 빠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強大國이 왔을 때에 自己의 주장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우 하고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 理論입니다. 그러니까 地理的이요, 역시 地理的인 것이 決定的으로 韓國사람들의 宿命論 黨派性 雷同性 이런 것을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後天的이 아닙니다. 땅덩어리는 고치지 못하니가 後天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社會는 옛날의 그대로이고 조금도 發展이 없다는 이 停滯性理論 이것은 이 사람의 理論은 아닙니다. 社會經濟史를 하는 四方博이란가 이런 사람들의 理論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물農事를 하는 논農事를 하는 社會이기 때문에 이것은 大規模 農業이 不可能하고 따라서 近代의 大資本이 發生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 있었다 논農事를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이것은 宿命이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社會가 發展이 안됐다 이었습니다. 停滯性理論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

갈 것은 日本도 農事를 하는 나라인데 日本에 대해서는 이 理論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韓國과 中國과 印度에 대해서만이 停滯性理論을 적용하고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停滯性理論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거기서도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請願書를 내신 분들이 이 停滯性理論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 理論이 成立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대로 이 모두가 歸結하는 곳은 요컨대 地理的 決定論입니다. 그러므로 이 理論을 論破하지 않고서는 日帝의 植民主義史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광대한 領土를 가진 大帝國을 建設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高麗 以後로는 鴨綠江과 豆滿江 以南의 半島가 우리의 領土였고 또 현재도 그러합니다. 현재도 분명히 그러하며 그리고 이것이 他律性 黨派性(여기 原稿에 停滯性을 넣은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 停滯性은 削除해야겠습니다)의 이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이론에 의하면 過去에 아무리 偉大했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宿命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日本사람은 이것을 最初부터 豆滿江 鴨綠江 以南으로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請願書를 낸 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歷史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뒤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植民主義史觀은 극복하기를 願하면서 결국은 地理的 決定論을 믿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自己矛盾입니다.

이 矛盾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地理的 決定論 植民主義史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領土가 넓어야 偉대한 國家가 된다고 하는 생각에 따르면 현재의 우리로서는 悲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領土를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 主張者들이 믿고 있는 地理的 決定論에 따르면 不可能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는 땅덩어리가 작은데 어떻게 커집니까?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벌써 그것이 宿命的으로 運命을 決定해 줬는데 어떻게 커집니까? 人間을 度外視하고 땅덩어리만 보고하게 되면 이것은 不可能합니다. 절대로 不可能합니다. 過去에 넓었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못됩니다. 왜냐 하면 地理的 決定論에 따르면 현재의 우리의 領土가 좁다는 사실이 우리의 현재의 運命을 決定하는 要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理論的 矛盾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過去에 領土가 넓어서 偉大했으면 왜 좁아졌느냐 땅덩어리가 넓어서 偉대한 國家가 된다면 땅덩어리는 여전히 넓었는데 왜 좁아졌느냐 이 說明이 절대로 안됩니다. 人間을 無視하면은 이것은 說明이 안됩니다. 地理만 가지고 說明을 하려고 해 보십시오.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地理的 決定論은 歷史的 眞理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歷史는 人間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關心을 가지는 우리나라 歷史에 있어서는 이것은 모든 世界의 歷史에 다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두가지 面에서 證明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적으로 우리의 歷史는 우리의 힘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新羅時代의 骨品制社會라든가 혹은 花郎徒의 制度라든가 혹은 高麗時代의 여러가지의 文化라든가 혹은 朝鮮時代 世宗大王때의 찬란한 文化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民族이 원해서 만든 것이지 中國에서 주어서 日本에서 주어서 滿洲族이 주어서 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는 中國것을 썼고 制度의 명칭은 中國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中國의 制度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學者들의 研究에 의해서 많은 考證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면 우습습니다. 마는 하여튼 너무나도 명백한 例들이 많이 例示되어 있습니다. 또 軍事的 大國인 強大國에 대해

서 우리는 항상 항쟁하여 왔으며 절대로 心服한 일이 없습니다. 地理的 決定論에 따라서 宿命的이다 그러면 宿命에 순응한 事大主義, 事大主義라는 것은 결국은 強大國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따라갔다 이런 얘기인데 先生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歷史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例를 들어 주십시오. 戰爭에 진 일은 있습니다. 日本의 植民地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日本에 心服한 일이 있습니까? 滿洲族이 쳐들어와서 아까도 南漢山城 얘기가 나왔고 비석의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을 쓰는 本人도 원하지 않았어요. 누구보고 써라고 해도 쓰지를 않았어요. 몇번씩몇번씩 들어 고쳤읍니다. 그래서 滿洲족에서 보고 또 이 문장이 안 되었다 해서 뜯어 고치고 하면서 억지로 썼어요. 아무쪼록가 말아서 하였읍니다. 王命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들은 바에 의하게 되면 자손들이 그 이름을 깎아냈는지요. 글쓴 사람의 문장 지은 사람의 이름을 부끄럽다고 깎아냈읍니다. 그것이 우리 民族이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은 이전 國粹主義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 말을 하면 外國에 나가서 하면 다 國粹主義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外國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주면 좋겠는데 外國學者들이 그렇게 안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답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歷史的인 具體的 事實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아라 戰爭에 한번도 지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獨逸은 어떻고 英國은 어떠냐 모든 나라의 歷史를 보면 戰爭에서 다 졌읍니다. 戰爭에 지면 事大主義나라다 이렇게 規定하면 事大主義나라 아닌 나라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는 外國의 例와 비교하는 일입니다. 例를 든다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같은 조그마한 領土밖에 갖지 못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大帝國을 건설한 歷史的 事實이 업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俄國도 작은 나라였지만 위대한 文化的 창조를 했습니다. 물론 對外的으로도 많이 진출했읍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위대한 文化的 창조를 해서 현대 世界文化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고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領土의 넓이로서 歷史를 측정하는 척도를 삼으려는 그러한 견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國力이 文化의 힘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文化라고 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어제 金哲俊先生이 얘기한 광범한 綜合的인 여러가지 요소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文化란 뜻으로 썼읍니다.

現代에서의 具體的인 例로 「이스라엘」을 들어봅시다. 아주 조그마한 곳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살던 곳도 아닙니다. 2次大戰뒤에 정착을 해서 조그마한 나라를 세웠읍니다. 그 주위에 「아랍」 여러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걸터어 나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領土가 커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精神力 그 사람들의 文明의 높은 수준 이런 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랍」 여러나라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武力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俄國에 대한 얘기도 俄國이 外國에 많은 植民地를 만들었지만은 그것보다는 文化에 관한 얘기를 해 드린 것이 그런데에 있습니다. 가령 또 우리가 존경하는 나라 가끔 신문지상에 統計가 나옵니다마는 좋아하는 나라를 쓰라 그러면 대체로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의 이름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땅덩어리들이 커서 世界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땅덩어리는 작지만 훌륭한 廟社國家를 건설하고 훌륭한 文化를 만들고 그러니까 世界의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위대한 國家요 위대한 國民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소국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歷史的 事實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든가 부끄럽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이 學問的인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林承國先生께서 말씀하시기를 請願書를 내는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어

제 朴時仁先生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 보니까 請願書에 그것이 있습니다. 몇條입니까? 15條를 보면 말씀이지요. 그 土禍와 黨爭이 심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뺏으면 좋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政治的 견해 차이로서 다른 일이 있더라도 어린 學生用 教科書에는 신지 않는 것이 좋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 명에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빼자 이런 말씀인 것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제가 오늘 林承國先生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내용하고 어제 朴時仁先生의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원고를 作成했습니다. 그러니까 林承國先生의 말씀은 아마 請願書를 작성하실 때 참여 안하신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셨더라도 아마 잊어버리거나 그러시지 않으면 그런 말씀은 안 했을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客觀的인 歷史的인 사실로부터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敎訓을 배우는 것이 歷史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歷史的인 사실을 마음대로 어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學問的인 論文에서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분명히 學問 이천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學問的인 世界에서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歷史的인 진실 客觀的인 사실과 씨름을 해야 되는 이러한 냉혹한 學問的인 世界에서 묵묵히 作業을 계속해 온 것이 오늘날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썽을습니다. 이것이 學問的인 世界뿐만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國會議員으로 계시면서 政治나 혹은 外交나 이런데에 참여하실 기회가 많으실 것으로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에 감정을 노출해서 안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철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相對方 생각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一般的으로 인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할 것 없이 學問的인 世界에서는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할 철칙입니다. 조금도 여기에 어긋난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그런 철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敎育의 견지에서 특히 下級 學年의 敎育에 있어서는 學問的인 觀點 이상의 것이 요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은 저는 문의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敎育專門家의 研究가 반드시 필

요할 것입니다. 兒童의 心理라든가 혹은 또 中學生 정도의 成長期에 있는 學生들의 心理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정도에 따르는 敎育의 내용을 정다 하는 것은 이것은 敎育專門家들이 歷史로 말하게 되면 歷史敎育을 담당하는 분들이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領土가 넓으면 위대하고 領土가 좁으면 열등하다고 하는 식으로 國史敎育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日帝의 植民主義史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學生들을 宿命論者 悲觀論者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悲觀論者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事大主義者를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中國의 땅은 우리보다 월등 크고 그러니까 中國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러시아」도 領土가 넓으니까 위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結論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전성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 先生님들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領土가 넓어서 위대하고 자랑스럽다고 敎育을 한다면 후대에는 열등하고 불행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敎育의 문외한인 저에게도 옳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世宗大王代의 찬란한 民族文化의 건설을 說明할 길이 없습니다. 世宗時代는 朝鮮時代 初期요 분명히 國境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국한된 半島에 국한된 時代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世宗大王代에 그러한 찬란한 民族文化가 건설되었느냐 이것을 어떻게 說明할 수 있습니까? 說明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土禍와 黨爭을 부끄러우니 빼자고 하는 의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教科書에서 뺏으로 해서 은폐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學生들이 이 사실을 뒤에 알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충격과 실망을 또한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감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教科書를 실제 보았읍니다. 教科書를 보았더니 中學校 教科書

에는 306「페이지」에 꼭 한「페이지」가 士禍와 黨爭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教科書에 비하면 월등히 적어진 것입니다. 저는 사실 教科書를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 그렇게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高等學校에 조금 많아졌어요. 3번가량입니다. 3번 내지 4번, 이것이 두차례에 걸쳐 있는데 여기에 請願書의 내용의 「페이지」數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대조해보니까 4「페이지」이하예요. 어쨌든 저는 이 黨爭이나 士禍나 이런 문제를 學生들에게 사실만 가르치고 그러므로 해서 부끄럽다는 감정을 일으켜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시대에는 불가피했고 또 그런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의 黨爭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學生들에게 가르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黨爭이 가지는 規模라든가 性質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야 된다 설득시켜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教育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우리 民族의 先天的 民族性의 소산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黨爭이라는 것은 朝鮮王朝時代 中期에 와서 생겨난 것인데 先天的이라면 어째서 그 이전에는 黨爭이 없었나 하는 그 사실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명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토가 半島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생겼다 그러더라도 高麗時代부터 있어야 되는데 黨爭이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社會的 원인 때문에 政治的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안 드렸읍니다마는 星湖先生이 이미 17世紀에 18世紀가 됩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설을 해 놓았으니까 더 이상 보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서 黨爭을 다른 나라의 비슷한 것과 비교 설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日本의 武臣政權에서의 藩主들사이의 派閥싸움이 우리보다 더 오래 계속되고 더 끈질겼었다는 사실을 비교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日本의 武臣政權은 우리나라의 崔氏 武臣政權이 설 바로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明治維新 이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동안에 온통 全國이 갈갈이 찢어져서 싸우는 것입니다. 黨派싸움입니다. 다만 地方分權的인 社會였기 때문에 中央政治 무대에서의 싸움은 덜했습니다마는 地方의 싸움은 더 심하고 더 잔인한 칼싸움질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怨讎를 怨讎로 갖고 그 아들이 또 怨讎를 갖고 죽은 사람의 아들이 또 反對로 원수를 갖고 그것의 되풀이가 日本의 封建時代 武臣政權의 歷史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의 黨爭은 심한 것이 질배로 아니다 하는 것을 強調해야 될 것입니다.

또「유럽」에서는 中世 1000年 동안 領主들 사이에 치열한 대립 항쟁이 있었고 이것이 극히 최근이야 民族國家로서 統一되었다는 사실은 이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獨逸이 「비스마르크」때 統一되었습니다. 伊太利도 거의 같은 時代입니다. 佛蘭西에야 조금 앞섰지만은 「루이」 몇 世代입니까? 國民國家 形成된 시대 이것도 극히 최근입니다. 애초에 統一國家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싸움입니다. 獨逸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영주가 수백이나 있어서 그 결과로 30年戰爭같은 끔찍한 戰爭이 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해서 說明해야 합니다. 이 30年戰爭 저는 西洋史전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領主들이 黨派싸움 때문에 「오스트리아」軍隊 「스웨덴」軍隊 「덴마크」軍隊를 끌어다가 자기 자기편을 들어서 싸우게하고 戰爭마당은 獨逸인데 싸운 軍隊는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래가지고 30年동안 獨逸 땅마닥을 짓 이것어요. 그래서 人口가 절반이나 죽었다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 끔찍한 戰爭 이것은 黨爭입니다. 분명한 黨爭의 세상인데 그런데 獨逸사람들이 그것 조금도 가리지 않고 歷史에서 說明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敎訓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佛蘭西의 100年戰爭도 마찬가지인듯합니다. 英國이 침략해 와서 英國과 대항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佛蘭西의 諸侯들이 英國軍隊를 끌어들이다가 자기 反對諸侯들과 싸우는 것이예요. 國內戰爭이 없었으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실들이 外國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黨爭에 대해서 부끄럽다

는 감정을 學生들은 가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최선의 教育方法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의 사실을 숨기기 보다는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것이 만일 있다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의 부끄러움 때문에 좌절해 버리는 그런 精神의으로 연약한 자를 연약한 제2世를 우리가 教育해 내서야 되겠는가 잘못을 극복하고 훌륭한 것을 創造하는 위대한 國民精神을 우리 歷史에서 배우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주 傳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傳統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創造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傳統文化中에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한글이 있습니다. 高麗磁器가 있습니다. 石窟庵이 있습니다. 이것 다 당시에는 가장 위대한 새로운 創造物입니다. 절대로 그 前에 있던 것을 그대로 繼承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例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偉大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民族의 傳統의 遺産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돌아가신 朴鍾鴻先生의 말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朴鍾鴻先生의 말이 옳다고 믿고 또 그런 創造的 精神을 가지도록 國民을 특히 第二世 國民들을 教育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세째로 들어 가겠습니다. 韓國史를 研究하는 方法이 科學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教育과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科學的인 것이 아닌 것을 學生들에게 가르치는 경우에 나타나는 反應이라는 것 이것 여러 先生님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客觀的 事實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請願書中の 맨 처음에 있는 古朝鮮의 문제를 例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

습니다.

첫째로 이것이 神話나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檀君에 관한 가장 原初的인 傳承은 神話입니다. 이 原初的인 傳承이라는 것은 이 請願書에 낸 資料의 史料第一를 봐주십시오. 三國遺事가 있는데 이 三國遺事를 좀더 다 내주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한 구석에 조그맣게 석출만내고 朝鮮史略을 크게 냈는데 이 朝鮮史略이란 것이 近來의 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못해 帝王韻紀를 낸다는가 뭐 만 것을 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을 크게 내고 가장 基本的인 三國遺事를 이렇게 석출로 조그맣게 낸 이유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봐주시면은 맨처음에 “魏書云”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中國册이겠지요. 魏書에서 引用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줄 中間에 보십시오. “古記云” 그랬습니다. 古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의 옛 記錄입니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一然禪師가 三國遺事를 저술한 방법을 보면 명확하게 根據가 있는 것이 아니면 안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분들이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古記라는 책에 나오는 뒤가 잘려버린 그 이하의 部分까지를 포함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어제 國史教科書에서 어느 분이 읽어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原初的인 것입니다. 이것이 檀君에 대해서 記錄한 가장 基本的인 史料인데 가장 原初的인 史料라고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 뒤에 조금씩 조금씩 자기 생각에 맞도록 뜯어고친 것이 그 뒤에 나온 記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著者들의 意圖를 이해하지 않고는 檀君神話의 原初的인 모습을 읽을 열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文字 그대로 歷史의 사실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桓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꿈이 女子로 변했다 이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지만 學生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을 學生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神話는 建國神話입니다. 建國神話

라는 것은 建國을 前提로 하는 것입니다. 建國이 없는데 建國神話가 어떻게 생깁니까? 나라가 서지도 않고 나라가 선 이야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것은 곧 建國 自體는 客觀的인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古朝鮮 혹은 檀君朝鮮은 엄연한 歷史上的 存在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歷史上的 最初의 國家였습니다. 그리고 檀君 혹은 檀君王儉은 제 생각에는 固有名詞라기 보다는 宗教的 祭司長이자 政治的 君主를 가리키는 普通名詞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장도 사실은 제 주장이 아니라 六堂 崔南善 先生의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檀君에 대한 古朝鮮에 대한 研究가 많이 있지만 아직은 六堂을 따라갈 분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紹介해 드립니다만 六堂이 이것은 固有名詞가 아니라 언제 났다 언제 죽은 個人이 아니라 이것은 宗教的 祭司長이자 政治的 君主를 가리키는 普通名詞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年을 살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1000年을 살다가 山神이 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古記에는 記錄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檀君의 子孫들이 47代동안 王노릇 했다 하는 記錄은 後代의 造作입니다. 中國歷史冊도 그렇습니다. 史記를 보면은 五帝부터 시작인데 史記의 記錄을 보게 되면 三皇이 나옵니다. 後代記錄이 되면 될수록 古代 옛날 記錄이 더 자세해지고 年代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中國 사람들도 믿지 않아요. 이런 것은…… 물론 五帝도 믿지 않습니다. 三皇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後代의 造作이다 이렇게 봅니다. 日本도 마찬가지입니다. 日本에서는 가장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던 時節이 지금부터 100餘年前입니다. 100년보다도 더 오래 전에 이런 것이 시끄럽게 學界를 소란시켜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100年前에 日本에서 행해지던 일이 현재 1981年 오늘 韓國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문제되는 것이 檀君과 單一民族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神話로 보면 單一民族이라는 근거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民族이 單一民族이었다는 證據는 考古

學에서 더 뚜렷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컨대 支石墓(고인돌) 琵琶形銅劍 즉 만도린과 같이 생긴 그런 銅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전한 細形銅劍 그 다음에 多鈕細文鏡 꼭지가 두 개 달리고 그 위에 간단한 무늬가 있는 그런 거울 이런 것은 天下에서 全世界에서 우리의 祖上들만이 사용하던 物件입니다. 이것은 中國사람도 滿洲사람도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그때에는 滿洲에 우리 祖上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滿洲사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겠읍니다. 우리의 祖上들만이 사용하던 그런 物件들입니다. 그것이 出土되는 地域을 地圖上에다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 점을 포함하는 地圖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는 領域을 그려보면 그것이 우리 祖上들의 領土가 되고 우리 祖上들의 活動舞臺가 됩니다. 같은 文化 같은 物件을 創造하는 사람들이 一定한 地域에 같이 모여서 살았읍니다. 그리고 그 地域은 遼河를 中心으로 한 地域에서부터 遼東을 거쳐서 우리나라 半島 全域에 걸쳐있읍니다. 고인돌 같은 것은 一部山東半島나 北九州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一部가 그 쪽에 移住해 살았겠지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支石墓같은 것은 集中的으로 우리나라에 數萬個가 있는데 그런 例는 東洋에는 절대로 없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支石墓에 묻혀있는 사람은 이것은 장담하고 우리의 祖上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런 우리의 祖上들만이 쓰던 遺蹟 遺物의 分布狀況을 보면 그 單一性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山物的證據는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가 없읍니다. 아무리 우리나라를 믿게 보고 아무리 우리나라의 領土가 半島에 局限되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支石墓가 滿洲에 있는데 그것을 否認하고 그렇게 말할 權力이 없읍니다.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成立할 수가 없읍니다. 客觀的으로 學問的으로 認定될 수가 없읍니다.

세째로 王儉城이 平壤이면 곤란하다는 說도 納得이 안갑니다. 이것은 三國遺事의 古記에 있는 것이며 오늘날의 學者들이 날조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學者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뭔가 底意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읍니다만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古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當時의 歷史的인 태세로 봐서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

으니까 學者들이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歷史에 汚點이 된다 부끄러움이 된다 이런 結論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學問의인 再檢討의 對象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否認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遼東半島가 歷史적으로 空白이예요. 거기에 대한 記錄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어떠한 文化가 獨自의으로 成立 발전할 수 있는 素地가 있는데 그런 記錄이 없습니다. 거기에 獨自의으로 成長한 國家가 곧 亡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되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再檢討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平壤일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말씀 될 수 있으면 委員長께서 하지 않았으면 했던 말씀입니다만 어저께 어느 委員님께서 質問을 하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잠깐 言及하겠읍니다. 이 王儉城이 平壤이 되면은 이것이 金日成에게 正統性을 넘겨주는 것이 된다 하는 安선생님의 말씀이 제셔서 거기에 대한 質問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저녁에 國史編纂委員會에서 朝鮮全史 그것을 봤읍니다. 「제록스」해준 것을 봤더니 거기에는 이 古朝鮮의 서울을 阿斯達이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그것을 아마 遼東에 있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일 古朝鮮의 서울이 平壤이면은 金日成의 正統性을 認定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平壤이 돼야 된다고 주장할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니까 하등의 개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째로 年代의 問題가 있습니다. 종래 檀君의 紀元을 檀君의 建國年代를 B.C 2333年으로 믿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建國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靑銅器時代 以後입니다. 新石器時代에 建國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安선생님께서 그런 說이 어디 있느냐 그랬읍니다만 이것은 通說입니다. 오히려 新石器時代에 國家가 섰다는 說이 어디있느냐고 反問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人類學의 하나의 基本常識에 속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論議하지 않겠읍니다. 오히려 말씀이지요 靑銅器時代도 이르지 않느냐 鐵器時代부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古朝鮮이 國家가 아니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國家인 以上 靑銅器時代 以後에 建國되었다고 해야만 합니다. 현재 考古學者들은 靑銅器時代의 年代考證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여러 學者들이 여러 面에서 생각을 해서 많은 說을 냈읍니다. 아까 金元龍先生께서 여러가지 說을 提示했읍니다마는 저는 考古學者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考古學者들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로 最古로 잡는 것이 B.C 12世紀입니다. 아까 말씀은 以北에서는 B.C 20世紀라고 했다는데 글썽을 읍니다. 20世紀라는 것이 公認된다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古朝鮮의 建國은 B.C 12世紀以前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가 없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國家의 問題 이것 참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되어서 지금 韓國에 있어서의 國家의 形成이라는 것은 古代史를 專攻하는 學者들의 중요한 論爭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論爭을 하는 경우에 제가 옆에서 보고 느끼는 생각은 國家의 概念을 明白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國家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例컨데 大韓民國은 民主國家입니다.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國家의 紀元이 언제냐 이것은 B.C 몇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1948年이지요. 혹은 臨時政府가 선 1919年이 되겠지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古代國家가 언제냐 이것은 또 다릅니다.

글썽요 古代國家라는 것은 概念이 애매해서 저는 사실은 쓰지 않기로 했읍니다. 아예 公認해서 그런 애매한 말은 안쓴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古代國家라는 것은 民主國家하고는 絶對 다르지 않습니까? 專制君主가 있고 그런 政治制度인데요. 그런 國家는 언제부터냐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럼 檀君이 세웠다고 하는 古朝鮮 檀君朝鮮 이 國家는 어떤 國家냐 이것은 古代國家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古代國家일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國家의 形態 이것이 部族國

家라고 보고 갈게 저는 그것을 城邑國家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봅시다만 그런 國家의 形態에 따라서 紀元年代도 항상 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國家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것이 一貫되게 현재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것은 無理가 있습니다. 그 속에 王朝의 變化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다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프린트」에 적어 드린 것은 그것 뿐입니다마는 조금만 더 補充할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 밤에 쓰다가 時間이 모자라서 못했던 그런 部分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韓國史學이 당면한 여러가지 任務가 있습니다. 國內的으로는 물론 이 民族의 中興期에 精神的 支柱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 분명히 있고 그런 점은 國史를 研究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認識하고 있습니다. 또 日本의 植民主義史觀을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도 다 認定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견의 차이가 있고 또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견해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學問을 통해서 이 世界萬邦에 民族의 威信을 宣揚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댄분이 주장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國際學界에서 認定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孤兒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孤兒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政治的인 面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學問的인 面에서도 분명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大部分의 國史學者들이 外國에 나가면은 어제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民族主義者 國粹主義者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더러 國粹主義者 그렇게 말하는 底意는 뭔가하니 너희는 民族의 것을 民族의 榮光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가 와요. 이것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辨明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를 辯護해 줄 위대한 辯護士가 外國學者들한테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外國學者들이 우리 말을 잘 안들어줘요. 그러나 점점 그런 學者

들이 많아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金元龍선생이 唯物史觀으로 以北에 경도했던 考古學者가 韓國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歷史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日本學者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자꾸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역시 委員長님께서 個人 名銜을 밝히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밝히지는 않습니다마는 日本의 老大家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모든 委員님들과 傍聽客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 내가 젊으면 韓國에 留學오겠다 그렇게 직접 말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韓國史學의 水準이 그 사람들을 說得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外國에 나가서 外國學者들을 대할 때 사실은 하나의 學問的인 戰爭을 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에 젖을 때가 있고 또 혼자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說得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說得은 무엇으로 시키느냐 누누이 말했지만 科學的인 研究에 의한 客觀的 事實을 提供하는 걸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唯一한 길입니다.

先生님들이 3·1運動 때 獨立運動家들이 우리의 獨立을 國際聯盟에 呼訴하고 그러기 위해서 낸 「광플렛」 이런 것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日本의 侵略相을 날날이 들어서 具體的인 條項들을 들어서 說明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民族의 精神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 분들이 外國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렇게 해야만 國際的인 說得力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資料들은 獨立運動史 資料에 얼마든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個人 經驗을 또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이런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納得시키는데 效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도 아는 분은 알만한 그런 美國에서 日本史를 專攻한 가장 우수한 歷史家…… 글썽을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美國에서 日本史를 研究한 가장 우수한 학자 다섯사람중 한 사람이 될 美國에서 가장 우수한 大學의 가장 큰 研究所의 所長으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 분을 만났을 때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가 日本史를 한 입장

에서 제 얘기가 잘 納得이 안됐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伊藤博文이가 韓國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왜 伊藤博文을 죽여서 合併을 당했느냐 그것은 너희 罪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伊藤博文이가 쓴 글속에 한마디도 韓國을 먹자고 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참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은 제가 伊藤博文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둔한 사람입니다만 그때 아마 정말 하나님이 知慧를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말보다도 行動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歷史家라는 것이 그러한 侵略者들이 하는 말보다 그 行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底意를 캐는 것이 歷史家지 않느냐 그럼 너는 伊藤博文이의 秘書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것 제가 判定勝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분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뒤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對外的으로 處해 있는 學問의으로 처해 있는 상황이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學問이 世界의 最高의 水準까지 오르지 않고서 그런 認定을 받지 않고서 그들을 說得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歷史學은 지금 國際的으로 높은 水準이 분명히 認定받고 있습니다. 國際 歷史學會議라는 것이 國際的인 歷史學者들의 機構로서 가장 광범한 가장 權威있는 機構입니다만 우리 韓國이 거기에 加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趙義高先生님이 사실 그것도 참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혼자서 뛰었습니다.

趙義高先生 혼자서 東奔西走해서 거기에 參加를 했는데 그 加入하는 會議가 「모스크」에서 있었어요. 蘇聯나라 首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趙先生님이 가고 싶지만 그때 못가셨어요. 못갔는데 加入이 許諾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그 事務總長을 하던 佛蘭西의 「프랑스와」씨 그리고 「아시아」부의 責任을 맡고 있

는 日本의 高橋氏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歷史學界의 상황 學會들의 活動을 調査해 가지고 그리고 굉장한 감명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그때 저도 歷史學會의 代表로서 그 會議에 參席하고 옆에서 그 분들과 對話를 나누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합니다만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때 參席했읍니다마는 분명히 그 분들이 많은 감명을 받고 특히 解放뒤에 나온 젊은 학자들의 학문 活動이 두드러지고 훌륭하다 이런 것을 公言을 하고 갔읍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加入이 됐읍니다. 이것이 딱 오래 前의 일입니다. 이것 뭐 자랑삼아 얘기가 됐읍니다만 사실은 저는 자랑삼아 해도 괜찮다고 종래에 생각해 왔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은 좀 칭찬을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참 노망은 소리가 필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쓸쓸합니다.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金「메달」만 따와도 勳章을 주고 年金을 주고 그런데 말씀이지요. 學問하는 사람들이 學問의 世界에 나가서 「올림픽」 金「메달」 이상의 것을 그런 外交를 하고 그런 文化的인 宣揚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도 너무 쓸쓸합니다.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믿고 그런 方向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學界를 鞭撻하고 援助하고 激勵해 주시는 그런 措處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10分間 停會를 한 후에 다음 公述人의 陳述을 들도록 하겠읍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21分 會議中止)

(18時48分 繼續開議)

○委員長 韓柄來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다음은 李元淳教授 陳述해 주세요.

○陳述人 李元淳 먼저 本人의 紹介가 오늘 陳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大學에서 奉職을 하고 있으며 韓國朝鮮後期社會를 주로 專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歷史教育講座를 담당하고 있는 李元淳教授입니다.

學術의 論證이나 教育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國史教育의 內容에 관한 까다로운 문제가 결국 學問이나 教育의 마당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韓柄來委

員長님의 說明 말씀으로 公聽會 開催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學問의 問題는 역시 아까 어떤 教授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시 1次的으로는 學問의 마당에서 審議하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합니다.

어제 오늘에 걸쳐서 대략 重複되는 內容도 있었고 또 여러가지 專門의인 立場에서 史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신 줄 압니다. 本人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國史教育의 內容이 아니라 歷史教育이라는 側面에서 本件과 關係되는 몇 가지 基本的인 問題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委員님들이 가지고 계신 教科書가 1次的으로 發行이 된 다음에 이미 두차례 改正節次를 거쳤습니다. 현재 또한 國史教科書가 改正執筆되어서 改正作業이 進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李基白先生께서 黨爭에 관한 것을 中學校教科書의 事例를 들어 말씀드렸더니 어느 委員님이 책상에 가지고 계신 資料를 보시면서 다소 의아한 듯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에 發行된 教科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教科書는 바로 이렇게 教育課程에 따라서 教育課程의 改編에 따라서 改編되는 것이며 또한 그 당시의 學問水準과 學問內容을 담는 教育의 基本教材입니다.

本請願의 基本要旨가 결국 文敎部 發行의 初中高等學校用 國史學教科書에 있어서의 問題에 焦點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國會에서 보내주신 請願文 뒤에 請願要旨가 있습니다.

이 請願要旨가 첫째로 日帝時代의 植民史觀에 의해서 歪曲된 사실이 內容化되어 있어서 國民教育에 심한 害毒을 끼친다고 되어 있고 둘째로 그 教科書에 의한 國史教育이 民族的自尊心의 결핍 民族文化의 멸시 政府政治의 不信 違法精神 禮儀 道德의 缺如등 惡性風潮를 造成하고 있으니 세계로 따라서 現行 國史學教科書의 폐기를 요청하고 있는 점이 그 骨子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本請願의 內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司法權에 호소된 바 있었고 그 問題는 學問의 마당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棄却處分을 받은 바 있는 문제입니다.

國史教育은 우리 民族史의 省察을 通하여 民族主體意識을 함양하고 民族의 歷史的 能力을 確立하며 民族文化發展과 새 歷史創造를 위해 바른 價值觀을 定立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教育課程에 明示되어 있는 國史教育의 目標입니다.

國史教科書는 바로 이러한 目的을 지닌 國史教育을 위해서 教授學習現場에 提供되는 基本圖書으로써 國史學界의 學問的 成果를 集約하여 編修 製作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날 學校教育에 供給되고 있는 國定教科書가 탄생하기까지의 경위를 대략 존경하시는 文公委員님들께서도 짐작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本件에 關係되는 분들 가운데 혹시 그 過程이 이해가 좀 적은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잠깐동안 말씀드릴 것입니다.

1960年度 後半期부터 國籍있는 教育이 자주 論議되어 오는 가운데에 72年度에 들어가서 國史教育強化라고 하는 問題가 당시에 焦眉의 問題로서 등장해서 많은 論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國史教育強化委員이라고 하는 것이 靑瓦臺와 文敎部의 協議에 의해서 16名으로 構成된 機構가 있었습니다. 당시 大統領特別補佐官으로 계시던 朴通鴻先生이나 張동한 補佐官님 등을 위시하여 이 자리에 현재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崔昌圭議員 당시 서울大 教授로 계셨을니다마는 역시 16名 가운데 委員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마는 이 16名의 國史教育強化委員이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國史教育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겠느냐 또한 光復된 뒤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그 동안 國史學界의 研究成果가 상당히 集積이 되었는데 그것을 教育에 반영시켜 定着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意志를 모두기 위해 당시 朴大統領閣下께서 關心을 가지시고 閔寬植長官님 당시에 이 委員會가 組織되었고 同委員會가 4個月 이상에 걸쳐서 小委員會는 무려 10餘次에 걸쳐서 合宿을 하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1週 내지는 닷새마다 宿題를 가지고서 合宿에 들어가 研究하였습니다. 旅館 또는 「호텔」에서 作業을 했고 合宿해서 作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作定되고 討論된 內容을 가지고서 또한 혹시 過誤가 있지 않을까 해서 考古學의 경우는 考

古學의 專門家 美術史의 경우에는 美術史學의 專門家 그밖의 專門家를 한분씩 招致하여서 集中的으로 그 專門家의 의견을 듣고 또 차차 作定을 했던 것입니다.

열여섯분의 그 委員들의 作業에 의해서 國史教育強化의 方案이 提起되었음이다라는 여기에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 國定教科書의 문제였었습니다.

強化의 한 方案으로써 國史教科를 新設하고 國史教科書를 國定으로 供給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異論이 提起되었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사람도 國定教科書를 供給하는데 대해서는 反對意見を 가지고 있었읍니다. 혹시 해석의 劃一性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는 教師들이 教科書의 解說者의 위치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열려로서 이 사람도 그 당시에 反對를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閔寬植 長官님한테 몇 분이 불려가서 그 反對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점을 점심을 같이 하면서 討論을 가졌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政策이 決定된 다음에는 이 教科書가 그래도 바람직스러운 方向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한 反對意見은 個人的 것으로 접어두고서 國史學界와 한 사람으로서 關係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強化委員會 措置에 의해서 생겨난 그 精神을 받아가지고서 教科書가 供給된 것은 73年인데 이 教科書가 供給된 製作되어서 供給될 때 까지는 실로 99名의 關係者가 여기에 關係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一種圖書開發委員會라고 하는 것이 66名인데 그 66名에는 첫째로 國史編纂委員會의 委員들 여기에 18名의 名單이 있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教科書가 좋은 것이 되겠느냐 하는 協議에 參與하는 委員이 아홉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精神을 담아서 執筆의 어려운 일을 맡은 분이 여섯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執筆된 原稿를 가지고서 檢討를 해주신 분이 모두 33명이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렇게 된 原稿가 教科書가 될 때까지는 文敎部에 넘어가서 一種圖書審議編纂委員會 國史分科에 모두 審議委員이 스물한분 關係하고 있습니다. 그 名單도 역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教科書를 가

지고서 실제 學校에 供給하기 전에 實驗教科書라 해서 實驗學校에다가 먼저 적용을 시켜보아서 그것을 다시 檢討를 하는 節次를 거쳤었습니다. 그런 學校의 實驗學校教師 열두분이 關係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關係를 해서 생겨난 教科書가 바로 그 一種圖書 즉 흔히 불려서 國定教科書라고 하는 物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衆智를 모으느라고는 했지만은 人間이 하는 일이라 完全을 다 기하고 完全하다고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 冊이 나온 다음에 아시다시피 많은 是非들도 있었고 또한 國史學界에서도 이왕이면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要望事項도 있었고 또한 斷片的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후에 많은 論議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본다고... 여기 수반되는 몇 가지 문제를 첫째로 國史教科書는 아까 教育의 目的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國史教科書는 特定個人的 著書는 아닙니다. 基本教材로서 教科用圖書로서의 編修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執筆者가 쓴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그것이 內容化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차례에 걸쳐서의 檢討와 또 會議를 거쳐서 되는 編修物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다음과 같은 特性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國史學界에서의 學問活動을 通하여 다수의 의견이 集約된 可及的이면은 定說이면은 더욱 좋고 定說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通說 즉 多數說로서의 價値를 認定받을 수 있는 學問內容을 取해서 編修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첫째로 學問活動에서 例컨대 오늘 참으로 진지한 발표를 聽願人과 오늘 陳述을 해 주시는 여러 教授님들 사이에 있어서도 정말로 진지한 學術討論이 있습니다마는 學問活動에서의 個人的 의견은 參考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內容化될 수는 없는 編修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學術論文으로 발표해서 學界에서 이것을 수긍하는 의견이 다수 있어야 하고 學問的으로

評價될 때 教材化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林承國教授님께서 발표하시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百濟의 遼西支配의 문제 이것도 첫째번 教科書에는 收錄되어 있지 않았읍니다마는 그 후에 學界에서 다수의 報告論文이 있는 가운데 79年度の 教科書에는 이미 內容化되어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教科書는 不變의 것이 아니라 可變의 것입니다. 教育課程의 改正과 그밖의 필요에 따라서 改正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教科書 內容의 偏向이나 誤謬를 피하기 위해서 文敎部가 소집한 專攻學者들의 會合에서 檢討探擇된 國史教育內容統一을 위한 編修指針이라고 하는 것이 教科書製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指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오래전에 된 것입니다마는 光復 이후에 아직 日淺하여 여러가지 구구한 學問的인 해석이 檢認定教科書 이곳저곳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혼란을 1962년 頃에 당시의 水準에서 集約시켜 보자고 하는 가운데 作故하신 黃희돈선생님 그 밖에 元老 先生님들과 또한 당시에 國史學 關係教授들 約 30餘名이 모여가지고서 일면 討論과 討伐질을 해 가는 論爭過程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물론 그후에 다소 追加된 內容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좀더 문제가 될 수 있는 內容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물론 있습니다. 學問의 研究가 進行되고 集積됨에 따라서 再考되어야 할 것도 있을 것이나 그것이 教科書編修에 參考가 되고 指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教科書는 不變의 것이 아닙니다. 教育課程의 改正과 필요에 따라서 修正補完되어 教育現場에 提供되는 教育圖書입니다. 아까 日帝35年の 말씀이 나왔읍니다. 그것도 또한 教科書가 이렇게 다수의 의견을 좇아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表現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學界에서 수긍이 된다고 하면 그 內容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基本態度에서 생겨나는 改正인 것입니다.

따라서 本 請願에서 問題視하고 있는 教科書內容은 그후 修正된 것도 있고 현재 來年부터

사용될 새로운 國史教科書가 編修進行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지난 教科書를 가지고서 이렇게 장구한 세월을 두고서 論議하는 것은 時間과 精力의 浪費가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國史教科書의 編修에 관련된 100餘名의 關係者를 除外하고라도 오늘날 現行 教科書를 全面 否定하거나 全面 廢棄를 주장하고 있는 國史學 關係教授는 國立大學이 되든 私立大學이 되든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습니다. 部分的으로는 문제가 지적된다 할지라도 全面 廢棄를 주장하는 분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見地에 선다고 하면은 이들 全國 國立大學 國史學教授들이 全員 請願要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어마어마한 反民族的인 反國家的인 罪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獨斷的인 斷定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앞으로 國史學界의 學問成果가 集積됨에 따라서 教科書는 改正 때마다 신중하게 內容이 選別되어서 貴重한 學問成果가 教科書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文敎部當局은 國史教科書開發機關을 指定을 해놓고 있으며 또한 그 開發機關에서 계속 研究를 하는 줄 알고 教材編纂委員會라고 하는 組織도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큰 문제의 세째로 國史教科書는 韓國 教育의 全部를 擔當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教育의 한 分野를 擔當하는 教科입니다. 또한 社會現象이 國史教科書만이 全面的인 책임을 질 것도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民族的 自尊心의 缺如나 民族文化의 蔑視나 政府 및 政治의 不信이나 違法精神 禮儀 道德의 缺如 惡性風土 造成등 이것은 請願趣旨의 要旨에 나와 있는 것을 옮긴 것입니다마는 國史教科書가 이런 일에 全的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發想은 首肯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國史教科書로 教育받은 人士들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光復後에 學校教育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教科書에 의해서 教育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텐데 우리 전부가 反民族的인 人間으로 轉落하지 않는 사실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現行 國史教育課程이나 國史教科書에 강조되고 있는 바는 바로 請願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똑같은 것이고 國史教育課程이나 國史教科書에 강조되고 있는 바도 바로 請願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은 國史教育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한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請願하신 여러분들의 衷情과 熱意를 높이 사면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指向하고 있는 國史教育이 목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째로 國史教科書라 하여도 世界로 發展하는 韓國人을 養育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國史와 더불어 世界史의 學問成果를 담은 國際的인 眼目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야 하는 基本教科用圖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感情이나 意識이 앞서 韓國社會만의 韓國史로 즉 世界史發展을 외면한 歷史의 解釋이라든지 또는 國粹的인 感情에서 하는 解釋 이러한 것들은 狹小한 國粹感情을 키워낼 罅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教育을 論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희 國史學教授들에게 勸告하는 또한 勸告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歷史學과 더불어 考古學이나 人類學이나 아까 文獻史學하고의 相關關係가 있다는 말씀의 發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런 相關은 어떻게 간에 可及의이면 이 모든 學問分野 광범한 隣接科學과의 긴밀한 學問協同關係에서 確認된 內容이 國史教科書에 收錄될 때 비로소 이러한 목적을 達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民族史의 榮光을 確認하는 한편 過誤에 대한 歷史的인 省察에서 歷史的 教訓을 흡수하여 探究學習的 教授學習展開가 오늘날 가장 소망되는 教育의 現場이라고 世界 教育思潮들은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學問中心의 教育課程의 思潮 現代 教育課程의 思潮에 있어서는 知識만이 아니라 知識과 더불어 知識을 얻는 過程까지도 教育에 포함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過程을 통해서 그 知識에 到達하는 過程에서 歷史的인 能力과 바른 價値觀을 體得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教育目的을 達成하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世界教育思潮의 흐름에 입각한 國史教育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李基白선생이 말

씀드린 바와 같은 黨爭의 事例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觀點 또는 그 밖의 觀點에서 그 원인을 考察하고 잘못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점을 被教育者들 스스로의 歷史的 探究를 통해서 知得하고 社會性의 차이에 서 오늘날 다시는 그런 愚를 犯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教訓을 찾게 하여야 합니다. 현재와 過去社會의 歷史的인 變遷가운데에서 오늘날의 民主社會에 대한 信念이 또한 생긴다고 믿기 때문에 黨爭은 가리워놓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실제로 教師와 더불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적에 오히려 거기서 教訓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民族과 國家를 염려하는 本 請願인들의 衷心을 十分 理解하면서도 學問과 教科書의 關係에 대한 認識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本人은 歷史教育의 立場에서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여 請願인들의 이해를 바라는 것입니다. 學問과 教育의 문제는 學界와 教育界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法廷이나 議政의 마당에서 歸結을 지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른 國史의 분명한 分野에 罅를 끼쳐 國力을 썩여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차분한 研究成果를 계속 발표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論文에 감명을 받고 同調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妥當하다고 하면 그러한 學問的인 首肯을 얻는 노력이 결국 國史教育의 發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正道가 아닐까 생각울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事情에 의해서 어제 이 자리에 못 나왔읍니다마는 오늘 발표하신 請願人들은 國史學者 全體를 植民史觀에서 벗어나지 못한 者라고 하는 前提下에서 모든 理論을 展開해 주셨읍니다.

百步를 讓步하여 과거의 朝鮮總督府 朝鮮史編修會에 있었던 그분들을 그러한 式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解放後 오늘날 30餘年에 걸친 젊은 學徒들의 研究成果를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후려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간에 쌓아온 韓國史의 研究成果를 全的으로 송두리째 否認할 수가 있겠습니까. 韓國社會가 현재 이와 같은 停滯의 늪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오늘날 全國에 史學科가 49個

가량 있고 또한 歷史敎育科가 30餘個가 있고 大學院의 歷史敎育科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國史學科에 大學院「코스」에서 敎鞭을 잡고 있는 모든 大學敎授들은 도대체 어떠한 群像들이고 또한 그것은 무슨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두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民族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衷情은 十分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간의 學問 成果를 가려서 생각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를 提起해 주셨으면 오히려 더 發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日本의 歷史敎育에 있어서의 韓國史의 취급의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論議가 있어 왔습니다. 이 사람은 本人의 研究의 필요에 의해서 日本의 歷史敎科書를 대략 새 敎科書가 나올 때마다 歷史敎科書를 集中的으로 國民學校에서부터 高等學校에까지 日本史 및 世界史 敎科書를 전부 훑어 보았습니다. 제 研究室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 日本에서 韓國史를 다룬 관계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그러진 韓國의 歷史像을 문제삼기 위해서 日本에 건너가서 日本의 敎科書編者나 日本側 學者들과 「세미나」를 몇 차례 가져본 일도 있습니다. 또한 本國에 있어서도 그러한 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왔습니다. 바로 한달 전에 新聞에 문제가 났을 적에 역시 그러한 偏向된 敎育이 우리 自體內에 이웃나라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日本人 國民自體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서울大學新聞에다가 投稿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歷史를 걱정하고 우리 民族을 걱정하면서 國史敎育에 力點을 두고자 하는 것은 國史하고 관계가 있는 이 사람도 존경하여 마지 않고 또한 환영하여 마지 않는 일입니다.

日本側을 본다면 任那의 문제도 日本의 古代 記錄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결코 首肯할 수 없는 것입니다. 歷史的인 이유에서 首肯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아까 李基白 선생이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敎育의 측면에서 敎科書의 문제를 가지고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歷史敎育이 보다 發展하는데 있어

서 다소간의 도움이 되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韓柄來委員長, 沈相宇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沈相宇 다음은 安承周敎授 나오셔서 陳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安承周 公州師範大學에 있는 安承周입니다.

光復後에 國史敎育을 받은 世代라고 認定이 되어서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所見要旨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陳述하겠습니다. 외람스럽게도 먼저 말씀하신 先輩 선생님의 말씀과 重複된 것이 많아서 죄스럽습니다.

첫째 韓國史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순수한 탐구활동으로서 어떤 주관적이거나 안일한 해석이 개재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엄밀한 科學的인 論證法에 의하여 전체적인 구조적 파악을 지향하면서 발전의 성향과 모형을 밝혀서 한 민족의 發展法則을 논구함으로써 미래상의 확립 現實社會의 方向提示 등의 궁극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로 학자들의 기존 研究結果를 최대한 존용하고 그 研究結果를 넘어선 기술이나 資料 利用이 필요한 경우는 적어도 그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協議를 통하여 研究家들의 研究結果나 推論可能的 범위를 定하고 역사발전의 흐름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技術的으로 삽입하여 敎育效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주신 全海宗敎授님의 말씀에 同意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研究成果를 무로 돌린다는가 學問的 예견이나 추론 가능성의 여지마저 업무에 두지 않고 여지를 넘어선 비약적인 서술이 되어서는 결국은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歷史學徒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請願書의 問題提示는 日本의 植民史觀이 잔존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학자들은 이미 이의 극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이미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植民史觀의 克服問題 자체를 극복하려는 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檀君과 箕子是 實存人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國定教科書에 사용되고 있는 내용의 얘기입니다마는 B.C 4000年頃 韓半島에는 新石器人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C 1000年頃에는 青銅器人들이 新石器人들을 정복하고 새로운 社會를 建設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研究結果입니다.

古代 城邑國家의 成立은 青銅器時代의 일인 때 이보다 훨씬 이전인 氏族社會時代 즉 新石器時代에 國家를 세웠다는 것은 社會發達史的 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研究가 선행되어야 앞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民族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檀君神話는 民族的 理念의 상징으로 神話의 의의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檀君과 箕子의 영토는 中國北京까지였음이라는 문제는 考古學的 연구로는 新石器人들이 제작한 대표적인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는 전적으로 北方系 「시베리아」나 몽고지역의 것이며 青銅器도 初期의 것들은 「스키토 시베리아」系로 非中國系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학계 나아가서 世界學界의 연구결과입니다. 中國 漢人들이 제작한 生活用器들은 B.C 8세기 9世紀頃에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遼河 以東에서 共伴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만든 것으로 인정되는 유물은 한반도 또는 北京에서 出土되지 않고 있으므로 具體的인 研究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異質文化圈을 같은 領土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樂浪郡은 北京지역에 있었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金元龍教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양의 土城里 遺蹟調查 결과 그곳이 樂良郡 治所로 짐작되어 지금 거의 認定이 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北京地域의 溟河遼水(河)의 地名을 좀더 구체적인 研究가 필요하고 添言해서 말씀드리다면 地名論을 따로 발표해 주셔서 學界大多數의 認定을 받은 후에야만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王儉城은 中國의 요령성에 있었음이라는 문제입니다.

王儉城의 位置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지 않으나 지금의 평양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북편에서 나온 韓國史 史記 115朝鮮列傳 第55元封 二年條에 武帝가 王儉城을 征服했다고 하는 내용이 자세히 記述되

어 있는데 그 자세한 內容은 시간이 없어서 소개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內容을 보고 이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新羅의 처음 영토는 東北滿洲요 統一新羅의 國境선은 한때 北京이었음이라는 문제는 여러 선생께서 滿洲源流考에 대한 사적개조의 말씀을 주셨음이다마는 제 所見도 滿洲源流考의 記錄보다는 우리 三國史記 內容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史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문제인 百濟가 3~7세기동안 北京에서 上海에까지 이르는 中國의 東海岸을 統治하였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遼西地方 經略은 戰略的인 價値를 지니는 植民地 海岸植民地 또는 商業植民地같은 性格으로 볼 수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미 中學校 韓國史 23「페이지」에 記述되어 있다고 全海宗선생께서도 紹介를 해주셨고 宋書 梁書 百濟傳에 遼西 晋平二郡을 두었다고 함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高句麗 新羅 특히 百濟사람들이 日本文化를 建設하였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高等學校 國史 44「페이지」와 中學校 國史 46「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記述된 內容을 紹介 말씀드리면 高句麗 新羅 百濟의 文物이 일찍부터 日本에 건너가 各處에서 그들을 教化시켰을 뿐만아니라 高句麗 百濟系 新羅系 사람들이 가지고 간 새로운 文化가 그곳 土著 社會를 성립시켰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教科書에 收錄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請願內容을 지금의 教科書와 좀더 자세히 檢討한 후에 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곱가지 큰 項目中에서 이미 韓國史 教科書에 收錄되어 있는 內容을 지적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主體的인 韓國史가 檢討될 수 있게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께 指導 嚮導 있으면서 저의 陳述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沈相宇幹事, 韓柄來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韓柄來 이상으로 여섯분의 陳述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를 하시겠습니다. 質疑하실 때에는 어느 분에게 質疑한다는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可及的 간단하게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朴在旭委員의 質疑가 있겠읍니다.

○朴在旭委員 언 이불동안 평소애 존경하는 여러 碩學들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많은 공부 가 되었읍니다. 또 그 동안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國會에 나오셔서 發表를 해 준에 대해서 감사할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金元龍先生님에게 좀 물어보겠읍니다. 그 講議하시는 도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서글프다 또 時間浪費다 學問은 學界에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金元龍先生님은 아마 國史編纂委員會의 委員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對面은 하지 않았지만은 평소애 존경을 해 왔읍니다. 거기에 서글프다 時間浪費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여기는 國會 議員 個人이 모인 곳도 아니고 民意의 殿堂인 國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물어 봅니다.

國會議員 朴在旭이가 金元龍先生님을 만났시다 했을 때에 그때야 내가 바쁘니까 뭐 時間浪費할 필요가 없다 해도 내 할 말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民意의 殿堂인 國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은 이제 金先生님께서 가진 그 國史觀을 發表를 할 때에는 아마 때와 場所가 없이 發表를 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國會 뿐만아니고 저 먼 어떤 시골이라도 누가 請하면 가서 그 國史觀을 밝히는 것이 學者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셨는가 그 底意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그 한가지 學問은 學界에 맡겨라 그 말씀 옳읍니다. 우리 國會議員들도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우리 公聽會는 檢認定 教科書도 아닌 國定教科書 國歷教科書內容 是正 요구에 관한 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學問을 가지고 論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點도 참작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이제 말씀드린 點에 대해서 解明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아마 이번 이 公聽會는 短時日 內에 어떤 結論에 도달한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이 公聽會를 契機로 國史研究가 더욱 活性化되는 契機가 되지 않는가 믿고 있습니다.

또 本委員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제 文敎部와 國史編纂委員會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지금은 우리 國史學界에 여러 碩學들이 참 많아서 마음이 든든하고 또 國史研究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各 大學入試에 보이면은 考古學科 志望生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歷史科 志望生도 과거보다는 적고 또 그 質도 많이 低下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公聽會를 통해서 또 여러 學者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때에 우리 이 國史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큰 걱정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國史研究가 活性化되기 위해서는 文敎부와 國史編纂委員會는 豫算을 비롯한 各種의 支援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國史研究 특히 考古學研究에 있어서는 보다 더 科學的인 方法으로 研究를 해야만 先進國들의 그 歷史研究 考古學研究에 뒤지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科學的인 方法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 方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遺物保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언뜻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國史研究의 底邊擴大를 위해서 숨은 研究家들을 많이 찾아내서 그들의 의견도 우리와 參照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억척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마 숨은 그 研究家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다시 말하면 李朝時代의 그 歷史 傳統들을 그대로 받아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各 地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歷史觀을 어떤 學者들 몇 분에게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 보다도 좀더 많은 學者들의 의

견 또 그 研究家들의 의견 다시 말하면 專攻學者나 非專攻學者나 모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 國史研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本委員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文敎부와 國史編纂委員會는 이제 말한 諸問題를 實踐할 수 있도록 國史編纂 및 國史研究機構와 政策을 劃期的인 改編 또는 改革을 단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文敎부에서는 國史敎科書編纂 또는 改編을 위한 그 과정은 어떠한지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參與하고 있는지 이제 어떤 教授께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國史編纂委員 任命過程은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學派가 있다고 그러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 요새 우리 歷史나 考古學 志望生들이 적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도 됩니다마는 현재 國史編纂委員들 중에 우리 解放 이후에 敎育을 받은 다시 말하면 젊은 學者들이 얼마나 參與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學界의 異論을 國史編纂이나 우리 國定敎科書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받아 들이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이번 公聽會한 結果가 어떤 여기에서 結論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學者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의 國史編纂이나 이제 말하는 國定 國史敎科書에 거기에 받아들여질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金吉俊委員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金吉俊委員 金吉俊委員입니다. 연 이를 동안 서로 反對立場을 取하고 있는 雙方의 견해에 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신 斯界의 權威 學者님들의 公述內容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請願要旨를 支持하는 견해는 相對方을 日帝時代 植民史觀을 답습하고 있는 國史學者들로서 올바른 國史敎育과 民族的 自尊心 形成에 심한

害毒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規定을 하고 있습니다. 反對로 請願要旨를 反對하는 견해는 相對方을 國史 專攻學者의 입장에서 보면 一顧의 價値가 없는 것으로 일축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學者들이 長久한 時日에 걸쳐서 眞理 深究의 結晶으로써 얻어진 雙方見解를 國史專攻이 아닌 本委員으로서의 偉라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本委員의 希望으로서는 國會에서의 이 公聽會가 아무쪼록 우리나라 國史學 研究에 보다 發展的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몇 말씀 質問하고자 합니다.

먼저 請願者側에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本件 請願要旨를 볼 것 같으면 文敎부가 發行한 現行 初中 高等學校 國史敎科書에는 日帝時代 植民史觀에 의하여 자기들 目的에 附合하도록 意圖的으로 歪曲시킨 내용이 있어서 올바른 國史敎育과 民族的 自尊心 形成에 심한 害毒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是正해 주기를 要望하면서 現行 國史敎科書中에서 고쳐야 할 점으로써 첫째 檀君과 箕子는 實存人物이라는 項目을 비롯해서 마지막으로 高句麗 新羅 특히 百濟사람들이 日本文化를 建設하였다 라는 項目에 이르기까지 7個 項目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國會에서 討論을 통해서나 혹은 文敎部當局者의 一方의인 決定으로써 또는 學者들의 一時的인 公聽會를 통해서 당장 決定할 性質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本 請願은 學問分野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政策的으로 決定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斯界의 專門家들이 특히 相反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學者들이 同參을 해서 討論과 說得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성질의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正說에 到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通說에 의해서 決定할 도리밖에는 없지 않은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決定하는 限界性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文敎部側에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國定敎科書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學說이 對

立되어 있는 部分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定說이 있으면 定說을 取하고 定說이 없는 경우에는 通說을 取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國史編纂의 경우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原則論的으로 말하면 眞理를 찾아서 教科書를 編纂하는 것이 가장 正當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眞理에 대해서 學者間에 견해의 一致를 보지 못한 점에 관해서는 부득이 當時에 있어서의 通說을 取하는 도리밖에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當時에 있어서의 通說이 絶對眞理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通說을 取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政策的으로 부득이 혼란을 豫防하기 위해서 通說을 取하는 것이 妥當하리라 생각하는데 文教部의 方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例外的으로 特段의 경우에는 通說이 아닌 少數說을 教科書內容으로 取하는 경우도 있는지 만약 少數說을 取하는 경우에는 어떤 基準에 의해서 어떤 方法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冒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雙方的 견해가 이렇게 極限的으로 對立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각자 學者의 立場에서 研究結果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人間의 認識能力에는 불행히도 限界가 있습니다. 따라서 學問을 하는 立場에서는 항상 反對學說을 無視하지 말고 경청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되리라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文教部에서는 國史教科書를 編纂하는데 있어서 長期間의 研究를 쌓아 올린 結果 反對學說을 내걸고 있는 本件 請願者側에서 같이 參與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 가지고 서로 討論을 하고 說得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眞實한 國史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좋은 方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李潤子委員 質問해 주세요.

○李潤子委員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答辯을 바라는 質問이라기 보다 이틀동안 공부한

結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國史學 또는 歷史學이라는 學問을 모르는 文字 그대로의 門外漢인 사람으로써 이 여러 討論의 學問的 內容을 따라가기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討論의 贊反 兩論 全部를 통해서 歷史에 門外漢으로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國史가 우리의 主體的인 意識으로 叙述되어야 하겠다는 점이었습니다. 專門家的인 立場에서만 아니고 온 國民이 共感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國史의 主體的인 叙述이라는 생각은 이 討論의 贊成論이나 反對論이나 兩論에 걸쳐 共通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差異點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差異點이란 植民地史觀을 벗어난 우리의 主體的인 史觀을 확립하는 즉 歷史科學的 學問研究方法에 있는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討論의 근거로 提示되어 있는 여러 史料에 共通되지만 例를 들어서 “滿洲源流考”라는 史料에 대해서 한 討論은 상당히 무겁게 價値를 두는가 하면 또한 討論은 이같은 史料에 대해서 信憑性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本人의 생각으로는 이 史料의 信憑性 與否를 더 또는 다시 한번까지는 그야말로 學術的인 歷史學的인 檢討作業이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檢討를 거치면 그 史料가 信憑性이 있다든지 없다든지의 어느 하나로 누구나가 認定할 수 있는 定說的인 結論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論爭이 되고 있는 史料의 多角的인 檢討를 충분히 하고 國內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共通된 歷史學的 方法에 맞춰서 수궁이 가는 結論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러한 結論을 내리기 위한 學界의 研究結果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姜棋弼委員 質問해 주세요.

○姜棋弼委員 한국국민당所屬 姜棋弼입니다.

歷史라는 그 자체가 원체 딱딱하다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連 이를 상당히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드럽게 쉽게 제 의견을 提示하면서 이 의견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셔도 좋고 答辯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連 이틀동안 論議된 問題의 焦點이 植民地史觀의 克服程度가 어떠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느냐 상당히 극복이 되었다 또 전혀 극복된 것같지 않다 하는 이것이 焦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 植民地史觀이 명실공히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거의 극복 완전히 극복되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大學의 李元淳教授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句節을 引用하겠습니다. “學問과 教育의 問題는 學界와 教育界를 通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法廷이나 議政의 場에서 歸結을 지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本委員도 여기에 贊同합니다.

다음은 檀君神話와 關連해서 全海宗教授께서 말씀하신 部分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答辯을 안하셔도 좋고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神話는 民族的 理念이 象徴的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것은 人間의 歷史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神話를 格下시키는 結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格下시키지 않는 方向으로 어떻게 歷史的으로 記述할 수는 없겠는가 本質的으로는 아마 큰 大差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에 대해서 學術的으로 어떻게 可能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大목이 하나 중요한 大목인데 “歷史는 거울이라고 한다. 옳았던 歷史는 그 거울에 비추어 더욱 發展시키고 옳지 않았던 것은 이에 비추어 反省하여야 한다. 歷史를 任意로 꾸미는 것은 結果的으로 得보다 失이 많다” 이것은 全的으로 저도 同感입니다.

그 다음에 歷史를 보는 眼에 대해서 李基白教授께서 말씀하신 大목에 部分的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大목이나 하면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은 우리와 같은 작은 領土 밖에 못 가졌지마는 大國을 建設한 사실이 있다 希臘도 작은 나라였지만 위대한 文化的 創造를 하여 世界文化에 가장 중요한 遺産을 남겨줬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領土의 넓이로써 歷史를 測定하는 尺度로 삼으려는 견해를

否定하고 있다” 이런 大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論議되는 것은 領土의 작고 크고 넓고 좁고 그 問題보다도 事實 眞實을 밝히려 하는데 큰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점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 大목에 가서는 제 생각하고도 같은 또 內容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強調하고 싶은 것은 領土가 넓으면은 偉大하고 領土가 좁으면은 열등하다고 하는 식으로 國史教育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絶對同感입니다.

그래서 이 大목하고 위에 나온 大목은 제가 여러가지 不足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좀 疑問이 나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請願者側에 대해서 한가지 이것은 質問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滿洲源流考”에 대해서 論難이 상당히 많았는데 滿洲源流考外에 다른 記錄을 가지고 考證을 提示할 具體的인 것은 없으신지 보다 더 좋은 考證이 있으시다면은 問題 해결에 상당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案 다음은 崔昌圭委員 質問이 주세요.

○崔昌圭委員 日帝에 의해 쓰라리게 끊어진 歷史 35年보다 1年이 더 많은 光復 36年의 자리에서 民意의 전달에서까지 우리 國史間 題를 진지하게 討論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울 합니다. 모름지기 歷史學은 歷史學者의 對象이지만 歷史 그 自體는 國民의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같은 모임은 의미가 깊고 다만 안타깝다고 한다면 우리 國史의 깊은 問題에 대해서 직접 合議하며 解答을 내려주셔야 할 이 高名하신 碩學님들이 오히려 이 자리에서 請願者와 被請願者가 되어 가지고 解答이 아닌 公述하시고 이런 立場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다소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여하튼 우리들에게는 歷史를 얘기할 때 커다란 前提가 세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누가 뭐래도 5000年 歷史에서 最初이자 마지막으로 끊어진 斷絶된 歷史의 상처를 이어야 한다고 하는 連續의 使命이고 두번째는 그동안 끊어짐으로 해서 遲滯 당한 歷史의 正體를 빨리 달려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이와같은 迅速의 論理고

세번째는 단순히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소위 흔히 강조했던 植民史觀에 의해서 짓밟힌 잘못된 歷史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匡正의 使命이 三重으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양쪽에서 말씀하신 內容을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共同의 關係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양쪽 다같이 우리 民族性의 歷史的인 總量을 넓히자고 하는 데에 同意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잘못된 歷史는 지체없이 언제나 바로잡자고 한다는 점에서 同意한다는 사실이고 또 세번째 긍정은 歷史가 他律에 의해서 傷處를 입었다면 아니 日帝 36年동안 他律로 끊어진 歷史의 傷處를 가진 우리들에게 그 歷史의 幅을 넓히기 위해서 請願者가 저 侵略者인 日帝가 아니라 同族안에서 같은 歷史안에서 여하튼 主體史觀이라는 共同目標을 가지고 提出했다는 점에서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內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次의으로는 누가 뭐래도 歷史 그 자체의 使命은 歷史學의 뒷받침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論議하는 이 문제 앞에서는 歷史學 이상의 여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內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들 앞에서는 光復 36年동안이라고 하는 자기 歷史의 成長이 있다고 하는 이 基盤에 대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歷史學 그 자체보다는 오늘 이 論議의 對象이 歷史學의 敎育을 통해서 풀어야 할 오늘의 民族史의 현실이라고 하는 歷史敎育의 문제가 두 번째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歷史가 歷史敎育으로 넘어갈 때는 오늘의 史學自體의 문제보다는 다음 世代가 짊어질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時間的인 敎育的인 操縱과 融通과 可能性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民族史 그 자체의 次元입니다. 우리에게서 國史學이 되었던 國史敎育이 되었던 이것을 뛰어넘고 提示되는 엄연한 民族史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어떠한 史觀의 說明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여하튼 끊어진 歷史의 同族의 傷處가 엄연히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否認할 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檀君始祖의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들 歷史의 거의 전체의 문제와 直結되는데 檀君始祖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들이 歷史意識속에 存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神話의 형태든 사실의 형태든 여하튼 그것은 우리들 歷史意識속에는 檀君이 우리 國祖라고 嚴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歷史意識속에 嚴存하고 있는 이 사실은 마치 저 開天節이 國慶日이 되거나 檀君紀元 4314年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歷史的 사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될 소중한 사실이라고 보았을 때 神話自體로써 存在하는 檀君國祖는 거기에 담겨진 文化的인 精神史的인 의미가 더 확인됨으로 해서 그것이 더 事實的인 次元으로 이것이 整理됨으로 해서 우리들 앞에 보다 넓고 확실한 國祖로서 우리앞에 存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저 主體史觀 民族史觀 이야기를 잠시 質問 檢所感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植民史觀의 克服問題가 이것이 根本的으로 提起가 되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植民史觀 克服의 論理는 누구도 強調합니다. 6,000萬이 다 같이 表現은 안해도 마음속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植民史觀의 克服은 植民史觀을 克服하겠다고 하는 소리침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植民史觀을 克服하기 위한 전제는 누가 뭐래도 植民史觀의 傷處를 입힌 日帝보다도 우리들이 더 높은 文化能力을 갖출 때에 植民史觀은 克服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植民史觀의 克服을 위해서는 오늘의 歷史學이나 歷史敎育의 內容에다가 植民史觀으로 加害者인 日帝보다도 더 水準의 文化能力을 담아야 하는 것이 根本問題인데 만약 이러한 前提를 내 놓으면서도 우리 특수한 要件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日帝가 植民史觀의 傷處를 입힐 때에 그들의 正常的인 文化能力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소위 저 악랄한 무리한 힘을 가지고 강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받았던 그 植民史觀의 傷處를 뽑기 위해서는 그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生命력을 가지고 對應 對處해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무엇이나 물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

들의 民族意志속에 담겨있는 歷史意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늘은 순수한 歷史的인 學問的인 成果 이전에 우선 그 歷史的인 成果를 學問的인 成果를 이루어 나가는 歷史的인 意識自體가 대단히 重要的 獨立變數로다가 여기에 더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請願者側에서는 이 歷史意識을 強調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陳述하신 쪽에서는 주로 이것을 文化能力에서 이것을 說明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로 만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歷史學의 學問的인 水準이 만약에 저 100年前 日本의 明治維新때와 비슷한 水準에서 아무리 우리의 民族性을 強要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發展했기 때문에 日本의 植民史觀의 傷處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提起하면서 저는 여기에 꼭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日帝가 우리에게 植民史觀을 強要할 때 그것은 상당히 발전되었던 近代史學의 形態였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近代史學의 形態를 갖추지 못한 文化能力에서 그 被害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발전된 史觀이나 또는 그 文化能力만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발전된 文化能力을 가지고 傷處를 입어야 했기 때문에 日帝時代의 그러한 史觀이라든가 그러한 文化能力에만 依存한다고 보아서는 우리들의 解答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民族史觀의 가장 重要的 內容으로 들고 있는 丹齊의 史觀이 學術面이라든가 學問的인 水準으로 보아서는 우리에게 強要된 日帝의 近代史學의 水準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을 때 단순히 學問水準만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들이 발전된 學問體系를 가지고 加害者가 되었던 植民史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文化能力보다도 더 소중한게 民族史觀 그 자체를 이룰 수 있는 역시 民族精神 倫理的인 基盤의 바탕이 소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저 植民史觀을 克服하기 위해서 文化能力을 향상을 시키며 日本式 水

準의 그러한 방향 위에서 學問能力이 결코 아니라 韓國民族的인 文化水準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延長上에서의 우리들의 이 史觀 文化能力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請願者들께서 특히 強調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陳述하신 쪽에서도 반드시 한번 解答을 내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結論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歷史가 斷絶속에서 連續이라고 한다면 非連續 가운데에서 連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歷史의 의미도 오늘의 현실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歷史에서 이와 같은 連續을 可能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實證史學觀이라는 이름을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歷史는 언제나 客觀的으로 확인된 科學的인 사실을 바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科學性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科學性 그 자체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科學性이 우리의 歷史를 얼마만큼 合理的으로 效率的으로 說明을 하고 그 量을 확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合理性 때문에 科學性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科學性外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 필요한 前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끊어진 歷史를 잇기 위한 오늘의 직접 國史教育을 통해서 解答받아야 할 오늘의 젊은 世代 學生들에게는 科學性 못지 않게 자기 歷史에 대한 正統性의 拷問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光復世代는 자기들이 體驗하지도 못했던 그 以前世代의 歷史的인 傷處 斷絶이라든가 同族相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以前世代가 남긴 쓰라린 傷處에 대해서 자기가 體驗하지도 않았고 解答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자기 正體性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正體性과 만나지 못하는 어떠한 科學性도 오늘의 歷史教育으로는 說得力이 적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오늘이 아무리 科學的인 바탕위에서 提示된 論理라 하더라도 오늘의 韓民族이 日本民族보다 못해서 36年 겪었다고 할 때에 오늘의 國史教育에서는 說得力이 없고 學生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科學性이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 절실한 오늘의 世代 앞에서만은 正統性의 문제를 前提로 한 그것과 連結되는 科學性 이것이 정말로 우리 歷史를 풀 수 있는 民族史의인 科學性이 아니라 客觀的인 하나의 自然科學的인 科學性이 아니라 우리 民族의 歷史의 總量을 合理的으로 傳達하고 最大化할 수 있는 科學性이 우리 歷史의 眞實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번째 이 사실 자체가 아무리 強調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存在形態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사실은 歷史册속에 存在하는 사실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우리들의 歷史意識속에 자리잡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 더 우리들에게는 소중한다고 보았을 때 이 歷史的인 사실이 國史教科書를 통해서 이 世代들의 歷史意識속에 하나의 참된 모습으로 連結된다고 보았을 때 歷史意識속에 가장 잘 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은 國史教科書는 傳達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러한 내용을 綜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우리들의 主體性의 能力은 첫째로 보았을 때 만약에 主體性을 強調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의 歷史가 안고 있는 制約을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하겠는데 이같은 能力은 오늘의 弱點을 느낄 수 있는 자기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이와같은 批判的인 主體性이 前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主體性을 내 세울 때에 일방적으로 自己美化를 시킨다고 主體性은 存在하지 않습니다.

主體性 가운데에서 가장 값진 主體性은 자기 자신의 弱點을 알고 이것을 克服할 수 있는 참된 創造力이 나올 때에 이것이 主體性으로 보았다면 우리들은 歷史에서 무엇이 우리들의 弱點이고 아픔이었나를 먼저 찾는 이 提示가 있어야 할텐데 이러한 提示가 오늘의 國史教科書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가 싶어서 質問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볼 때는 새 文化에 대한 創造能力이 있어야만 正統의 참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는 5000年 歷史의 그 많은 歷史의 總量을 만약에 다 담으려 한다면 그 5000年 歷史만을 強調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文化能力을 먼저 길러야 하는데 이것도 바로

國史教科書에서는 教育的인 次元에서 받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어떠한 主體性도 世界的인 合理性이 있을 때에만 그 힘이 있다고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우리들의 오늘의 文化能力을 가장 넓히기 위해서는 世界史的인 合理性이 무엇인가를 함께 담으면서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歷史의 總量을 최대로 再生産할 수 있는 오늘의 國史教科書의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오늘의 請願者側에서 提示한 이와 같은 歷史意識問題를 좀 바탕으로 깔면서 앞으로의 歷史教育이나 歷史의 學問的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오늘의 이 請願者와 陳述者가 만날 수 있는 길이고 두번째로 主體意識을 強調하되 그 主體意識을 단순히 意識의 狀況이 아니라 國史學의 學問的인 바탕과 만날 수 있는 次元에서 이것이 넓어질 때 이 合理性이 바로 가장 이 자리에서 이 열면 討論을 歷史앞에 民族史觀이나 歷史의 光復 그 자체를 이루어질 수 있는 소담한 結論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가지 말씀을 여기에 덧붙여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방금 崔昌圭委員 質疑하신 것 어느 公述人이 答을 해야 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昌圭委員 지금 말씀한 內容에 대해서는 만약에 同意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양쪽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同意를 하시면 答辯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장시간 회의로 지쳐 있습니다. 可及的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林在正委員 質疑해 주세요.

○林在正委員 民韓黨所屬 林在正委員입니다.

이들간에 걸친 歷史學界의 巨頭들이 열면 論爭을 벌리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척 호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歷史學을 專攻한 史學家는 아니지만 어렵듯이나마 韓國古代史의 輪廓을 어느정도 짐작할 것 같고 또 두번째로는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의 國史教科書가 바로 잡히진다면 그 이상의 바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去頭截尾하고 이쪽 저쪽에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가 드리는 이 質疑가 결코 國史教科書 是正要求에 관한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請願을 내신 安浩相博士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教科書를 대개 살펴보면 특히나 現代史에서 바로 우리가 많이 겪고 또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 教科書 後尾에 많이 나왔습니다. 4·19義擧와 또한 5·16革命의 必然性이랄지 하나의 그들 正當化시킨 대목이 많이 나와있고만요. 그리고 18年間에 걸친 刮目할만한 維新政權의 治績도 많이 여기에 記錄이 되어 있습니다. 이 教科書를 보니까 中學校 教科書 및 高等學校 教科書에 더더구나 내가 한번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大韓民國은 1971年 급변하는 國際情勢에 對處하고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達成할 政治 社會 風土를 造成하고자 憲法을 改正하고 10月維新을 斷行했었다 이로부터 社會의 非能率的인 非生産的인 要素를 拂拭하고 前近代의 生活意識과 事大思想을 제거하여 韓國 民主主義의 定立을 推進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記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安博士님께서 물론 5000年 歷史에 공하는 이 방대한 改正作業을 일시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나 維新을 合理化시킨 이 教科書의 改正에 있어서는 改正할 必要性이 없거나 그대로 놔둔 것인지 이번 請願에서 빠뜨리셨는지 이것을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은 改正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改正할 필요가 있어도 너무 방대한 要求를 하게 되면 請願 審議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두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文教部가 答辯해도 좋고 國史編纂委員會 崔永禎委員長께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분명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範圍內에서 볼 때는 이 教科書를 현재 改正을 위해서 상당한 作業을 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本 委員이 지적한 10月維新의 合理性 이 대목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앞으로 教科書 改正作業에서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改正해 나갈 것인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시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는 個人的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다소 國史學者들과 상의한 연후에 아까 말씀드린 編修過程을 거쳐서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간단히 나오실 줄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왕 우리 國會 文公委員會만큼은 이러한 重要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國民教育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순수한 입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李元淳教授님께 묻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소위 歷史의 記錄은 不變아닌 可變이다 教科課程改正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常識的으로 알기에는 하나의 教科書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부피나 많아지고 적어지고 또는 冊값이 달라지고 또는 紙質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國史教科書가 어떻게 해서 教育課程이 改編될 때마다 不變아닌 可變的인 현상으로 둔갑할 수가 있느냐 나는 李教授님 말씀에 대해서 언뜻 이해가 안갑니다. 이 점을 조금 補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質問을 하는고 하니 우리는 분명히 國民教育을 위해서 國史教科書를 만들고 있고 이 教科書가 正統한 사실에 입각한 외곡된 教科書가 아닌 바른 國史教科書가 돼야만 우리가 올바른 教育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과거 어느 때처럼 소위 일부 學者들이 政權의 侍女로 타락한 나머지 한 政權의 合理性이나 美化를 주장할 정도의 人物들에게 이러한 教科書 製作을 國民의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맡길 수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 데에서 李教授님께서 언젠가 教育課程에 따라서 國史의 教科書의 內容 記錄은 분명히 不變아닌 可變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國史教科書가 돼야만 우리가 올바른 教育을 해 나갈 수 있다는 前提下에서 본다면 과거 어느 때처럼 소위 一部 學者들이 政權의 侍女로 타락한 나머지 한 政權의 合理性이나 美化를 주장할 정도의 人物들에게 이러한 教科書 製作을 國民의 이름으로서는 도저히 맡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金元龍教授님께서 언젠가 教育課程

改編에 따라서 國史의 教科의 內容 그리고 記錄은 분명히 不變하는 可變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李寧熙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寧熙委員 먼저 安承周教授님께 여주어 보겠습니다. 安教授님께서 提出해 주신 이 「판플릿」을 보니까 모두에 韓國史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순수한 探究活動으로서 어떤 主觀的이거나 安逸한 해석이 記載되어서는 아니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歷史의 叙述이라는 것은 언제나 主觀性 다시 말하면은 選擇性과 現在性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사 순수한 客觀的인 主觀性을 排除한 歷史 叙述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無意味한 叙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教科書 中學校 國史 教科書입니다. 13「페이지」 檀君神話에 대한 叙述이 있는데 이 神話가 지닌 意義는 매우 크다 獨立國家로서 우리나라의 歷史가 中國과 같은 오랜 傳統을 가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 建國神話는 民族의 獨立과 統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히 韓末 日帝下에서는 우리 民族에게 勇氣와 矜持를 불러 넣어 주었다. 따라서 우리 民族은 이 神話를 자랑스럽게 간직하여 왔다. 이것을 순수하게 主體性을 排除한 歷史 叙述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金元龍博士님께 여주어 보겠습니다. 韓國美術 5000年展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海外에서 大盛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國史教科書 여기에 叙述에는 2000年정도 밖에는 記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遺物이 있으니까 5000年前 이렇게 박았을텐데 遺物은 있으면서 왜 教科書에는 記載안 된 이유가 무엇이나 그것을 門外漢으로서 얼른 納得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說明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遺物을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린 2000年 내지 3000年 이것을 찾기 위한 어떤 作業을 그간 學界에서는 해 오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金博士님께서 B.C 철팔百年 이렇게 말

씀하셨고 길게 잡아 높이 上限線을 잡아도 B.C 100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遺物은 어떻게 해서 5000年展에 끼어있었는지 그 遺物의 根據라든가 여러가지 그 뒷받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文教部側 특히 文教部傘下 國史編纂委員會側에 대해서 여주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政府에서는 南北韓 文物交換展을 提議했습니다. 이에 대한 北韓側의 應答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準備作業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서둘러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民族史觀의 定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文教部側은 특히 國史編纂委員會側은 中共이나 北韓側에서 현재에 亞細亞 古代史研究에 대한 資料를 入手한 적이 있는지 入手하였으면 그 資料를 學者들에게 提供해서 연구를 시킨 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혀 없었으면은 앞으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公述을 오늘 모두 듣고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과 안타까움입니다. 냉철하고 科學的이고 論理的인 學理論을 展開해 주셔야 할 學者님께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입씨름을 하신 것같은 그런 印象을 받았읍니다. 피차 가슴을 열고 이 機會에 아량과 學術的인 學究心으로서 學者的인 學究心으로서 合同研究委員會 같은 것을 마련해서 피차 學問的인 立場에서 討論도 하시고 學究를 하시는 그런 모임을 組織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면서 提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科學的이면서도 自主的이고 民族에 대한 愛情을 가진 그런 자세로 民族史觀을 定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金元龍博士님께서 學問은 學者에게 맡겨라 하셨는데 그런 廣場을 통해서 충분히 學問이 學者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定立돼 주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金春洙委員 質疑해 주세요.

○金春洙委員 제가 시간도 없는데 자꾸 어제 오늘 連이를 質疑을 하는 것같아서 죄송합니다. 連이를동안 열한분 陳述人의 진지한 陳述을 들은 所感이 많았습니다. 우선 文教當局하

고 國史編纂委員會의 崔永禧委員長이 계시니까 이 두분께 質疑를 하겠습니다. 뭐나 하면은 이 檀君과 그 開天節과의 관계인데요. 이 教科書에는 檀君을 神話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神話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제가 質問만 던져놓고 바쁜 일이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答辯이 나왔는지 아직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도 이것 虛構아닙니까? 물론 그 속에는 世界觀이라고 하는 어떤 진실이 담겨있긴 합니다만도 虛構입니다. 만들어진 얘 기입니다. 이래서 특히 우리 그 檀君神話라고 하는 것은 建國神話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께서 4000年이나 5000年 前에 어떤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建國에 대한 회의의 陳述이 여러분들께서 있었읍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할 적에 거기에다가 開天節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볼 적에 하나의 「딜레머」에 빠질 그런 우려가 없지 않는가? 이를테면 開天節할 적에는 우리가 10月3日이라는 特定日을 정해 가지고 慶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檀君께서 建國하셨다 이래서 慶祝을 하고 있습니다. 그 精神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慶祝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月3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歷史的인 그런 根據가 있어서 制定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딜레머」가 아닌가 神話가 어떻게 갑자기 慶祝을 하기 위해서 歷史를 분간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開天節이라고 하는 慶祝日을 가지려고 하면은 檀君神話가 歷史가 되어야 되겠고 檀君神話를 神話로서 인정하려고 하면은 開天節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딜레머」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이 두機關에서는 그러니까 歷史編纂機關하고 文敎部하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별로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토당토 않은 妄發인가 하는 이런 點에 대해서 조금 책임있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사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마는 또 全海宗教授입니까? 아까 하시고 나가신 것같은데 이 분은 또 다른 분에게 質疑가 있으면 答辯을 맡기고 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문습니다.

中國인들이 쓴 中國正史에는 誤謬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具體的인 事例를 한 두個 들어주면 좋겠는데 가능한 限 韓國의 歷史에 관계되는 우리 國史를 討論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國史에 관계된 誤謬를 그 事例를 한 두個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安承周教授입니까? 이 분이 말씀하신 滿洲源流考의 記錄보다는 三國史記 內容을 認定함이 올바른 史觀이다 이려고 여기에 일체 說明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說明이 없는데 그 說明 안해도 아는 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같은 사람은 說明을 좀 듣고 싶네요. 三國史記가 그 內容이 왜 滿洲源流考보다는 그 쪽을 認定하는 것이 올바른 史觀이 되느냐 史眼이 되느냐 歷史를 보는 눈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다 하는 納得이 가는 說明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더 質疑하실 분 안계시면은 다음 答辯은 30分間 停會한 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20時32分 會議中止)

(21時21分 繼續開議)

○委員長 韓柄來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늘 答辯의 순서는 文敎部側과 國史編纂委員長의 順으로 하고 公述하신 분의 順은 오늘 質疑하신 분이 지적한 그 順으로 公述하신 분에게 答辯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피로하실 것 같아서 可及의이면 간결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敎部側 答辯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文敎部次官 答辯해 주세요.

○文敎部次官 鄭泰秀 朴在旭委員님의 물음에 먼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國史研究의 活性化方案은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國史는 國民教育의 核心的 要素이기 때문에

政府機構로서 國史編纂委員會라는 機構를 두고 있고 또 그래서 國史研究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校教育을 통해서 國史教育을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教授에게 대해서는 國史研究를 돕기 위해서 文敎部에 學術研究造成費를 약 年間 1億원 정도 나누어서 各 大學으로 各 歷史學界에다가 補助를 하고 研究를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生에 대해서는 國史研究를 하고 專攻하는 大學校 大學院生 즉 碩士 博士「코오스」學生들에게 그 會員에게 登錄金水準의 獎學金을 지금 支給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도 碩士 博士課程의 大學院生을 두고 있고 寄宿舍에서 收容하고 있으면서 學費全額을 負擔하면서 研究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國史編纂委員의 任命過程을 물으셨습니다. 國史編纂委員會의 委員은 定員이 15名인데 任期는 3年이고 連任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委員은 國史編纂委員會의 提請에 의해서 文敎部長官이 任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人選할 때에는 國史 東洋史 西洋史 考古學 經濟史 등을 研究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물음

敎科書의 編纂節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敎科書는 歷史學界의 各 分野의 代表들로서 敎科書編纂審議會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敎科書를 만드는 要目을 決定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編纂을 하는데 人的構成으로서는 國史編纂委員을 비롯해서 各界의 專門家로서 執筆陣 研究陣 協議陣으로 分離해서 構成합니다. 執筆은 學校의 定說을 토대로 해서 執筆하게 하고 執筆하면 研究陣과 協議陣 그리고 國史敎科書編纂審議會에서 各各 檢討하게 하고 그 후에 各 學校에서 現場實習을 거친 뒤에 그 意見을 취합해서 敎科書印刷에 들어가게 됩니다.

各 委員會의 人員은 國史編纂委員會에 8名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協議陣에 8名 執筆陣에 6名 檢討專門家로서 各 大學教授가 17名 그 다음에는 各種 圖書編纂委員會에 國史分科委員會를 두는데 거기에 審議委員으로서 教授 校長 教師를 포괄해서 21名 그래서 國

史敎科書가 成立되면 다음에 實驗學校를 指定해서 實習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現存敎科書를 執筆할 때의 例를 들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數의 變化는 있지만은 이러한 순서와 節次에 의해서 敎科書를 編纂할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물음 敎科書에 學界의 理論을 받아들이는 過程이 어떠한 하고 물으셨습니다. 敎科書에 반영되는 學界의 理論은 學界에서 多數의 學者들이 合議가 이루어져서 定說化된 때에 敎科書研究開發機構에서 이를 受容해 가지고 研究陣 協議陣의 합의를 얻고 그 다음에 1種 圖書編纂審議會 文敎部에 設置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議決을 거쳐서 받아들이는 순서가 됩니다.

그 다음 金吉俊委員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學說이 對立할 경우에 國定敎科書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그에 대해서 學校는 通說로서 定說化가 될 때까지는 科敎書에 掲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둘째물음 學校의 少數說을 어떻게 실는가? 敎科書에는 이를 실지 않습니다.

세째물음 反對側 意見을 受容할 수 있는 方案은 무엇인가? 定說化되기 이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밖에 金春洙委員님과 李寧熙委員님 그리고 林在正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는 崔永禧 國史編纂委員會 委員長으로 하여금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崔永禧 國史編纂委員長의 答辯이 있습니다.

○陳述人 崔永禧 먼저 林在正委員님의 敎科書中에 維新事項을 새로 만드는 敎科書에는 어떻게 되느냐 改正할 수 있느냐 또는 안하고 있느냐? 지금 改正中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事項으로서만 記錄하지 歷史的 評價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改正하고 있습니다.

○林在正委員 10月維新事項도 改正합니까?

○陳述人 崔永禧 예. 10月維新事項입니다. 예.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春洙委員께서 檀君神話라고 하면 어떻게 이것이 10月3日 開天節은 어떻게 成

立되었으나 실제로 저도 몹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個人的으로……

먼저 왜 10月3日이 開天節이 되었느냐. 실은 지금 安先生님한테도 몇번 물어봤읍니다마는 제가 이제까지 專門家 또는 大倭敎에게 물어봤읍니다. 언제부터 10月3日이 시작됐느냐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上海臨時政府때도 이 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제가 조금 더 추궁해 올라가면 아마도 우리 間島든가 여기서 獨立運動한 분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 歷史資料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陰曆 10月 상달에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陽曆으로 바꿔놨읍니다. 그러면 왜 10月3日이나 확실치는 않으나 3의 숫자로써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檀君의 神話인데 왜 開天節을 지내야 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자신 고민입니다마는 우리의 아름답고 그래도 開天을 했다는 이런 뜻에서는 우리가 國民으로서 그래도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李寧熙委員께서 그러면 國史編纂委員會에서 北韓社會에 대한 研究가 있느냐 또는 그 書籍이 있느냐 이것은 南北文化交流에 있어서 중요한 意義가 있기 때문에 質問하셨는줄 압니다.

저희는 수년전부터 對外秘로 北韓史研究를 하고 있습니다. 또 相當量의 北韓發行 책도 있고 또는 中共의 책도 일부가 있습니다.

또 그 뿐만아니라 歐美에서도 이것을 蒐集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近間에 여기에 대한 資料集을 發刊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轉柄案 다음은 金元龍教授의 答辯이 있겠습니다.

○陳述人 金元龍 제가 여기 나와서 學問은 學界에 또 時間浪費다 서글프다 라고 대답한 底意가 무엇이나 하는 朴在旭委員님에게 答辯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發言하고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곧 委員長님에게 변명과 사과를 할 기회를 주십사 했는데 마침 그렇게 質問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委員長님께서 發言할 때에 상대방의 感情의인 發言을 하지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 뒤를 사실은 안한 것입니다.

제가 부득이 해야 되겠는데 제가 學問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을 請願者側에서 이것을 正當한 論文으로서 發表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要旨를 委員님들 전부 가져다 읽어 보십시오. 이것이 論文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그 속에는 어떤 경우에는 特定人의 祖上까지 들추어내서 人身攻擊까지 격렬한 攻擊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學者로서 참고 참고 왔는데 이것이 司法部에 가서 저희 學校에 被告 무슨 召喚狀이 자꾸 오고 말이지요. 그러니……

○朴在旭委員 지금 이야기들은 내가 解明하라는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다른 이야기는 필요없읍니다. 그것은 學者들 請願者側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國會에 대한 發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陳述人 金元龍 그래서 제가 請願者側에 대한 불평을 말하자면 請願者側에 대하여 왜 여기까지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하는 그 말이 그만 뒤가 빠져서 委員들에게 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제가 結果의으로 여기에 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教科書에 관한 문제로서 당연히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委員님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고 또 請願者들과 처음 이 자리에서 만나서 對話를 해봐서 저는 차차 가까워질 可能性을 發見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아주 意義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朴在旭委員 委員長! 이 解明으로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뜻을 請願側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學者라면 反對側에 가서도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 없이 서글프다 時間浪費다 하는 이야기 없이 오히려 反對側에 가서 說得시키는 그런 사과를 이야기해야 될 것이 學者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陳述人 金元龍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轉柄案 朴委員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정도로서 雙方의 충분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安浩相博士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安浩相 金吉俊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에 答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國史敎科書는 특히 上古史는 완전히 일제(日帝)의 침략적 植民史觀의 꾀거기요 복사판입니다. 먼저 檀君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음이다마는 단군에 관한 과거 우리나라의 모든 漢文책들과 현대 국 한문으로 된 책들과 중국책들을 모두 무시 또는 부정하고 오로지 일제의 식민사관에만 따라 단군조선을 부정하는 것은 비과학적일 뿐더러 비양심적입니다. 이 분들이 옛책들을 널리 보지도 않고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다만 주관적 恣意에 따라 上古史를 쓴 까닭에 국사교과서 자체에서 글들이 서로 너무나 모순되고 相反되고 있는 데 그 보기로써 다음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1974년부터 국사교과서에서 단군을 부정하고 단군기원을 뺐었기에 우리는 이러한 반민족적이며 親日的 국사교과서는 없애 버려야만 한다고 공격하였더니 1981년판부터는 단군기원을 국사연대표에만 형식적으로 올려두었습니다. 먼저 중학 국사를 보면 “서기 앞 2333년에 단군이 아사달에 도읍하고 고조선왕이 됨(삼국유사)”이라 적고 (중·국사 연표 313면) “청동기 문화의 발전을 배경으로 최초로 성립된 국가는 古朝鮮이며 그 군장을 단군 왕검이라고 불렀다”(중·국사 12면) 하고 또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기문화가 성립되었다”(중·국사 3면)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국사에선 “서기 앞 2333 단군 아사달에 도읍(삼국유사), 서기 앞 1000년 청동기 문화의 전개 고조선의 발전…… 서기 앞 195년에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됨”(고·국사 연표 309면)이라고 적고 또 “우리나라에는 청동기문화가 성립되면서부터…… 하느님의 아들인 한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신화를 가지기에 이르렀다”(고·국사 10면)고 하였습니다.

저 중학교와 이 고등학교의 국사에서 서기 앞 2333년에 단군이 朝鮮王이 되었다고 하고

또 다시 단군이 서기 앞 1000년경 청동기 문화에 성립된 古朝鮮의 王이 되었고 이 때에 단군이 古朝鮮을 건국했다는 신화가 생겼다 하였으니 이러한 모순된 역사기술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아동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편인 고고학자 金元龍씨는 앞시간에 한 자기의 강의에서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서기 앞 7, 8세기부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들 역사가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책들을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오로지 서양학자들이 자기들의 역사발전과정에 맞춰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라고 만들어낸 그 틀에다 맞추어서 우리 역사를 꾸미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金哲堉씨와 金元龍씨는 百濟강토가 上海까지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어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通考와 梁書에선 말하기를 晉나라 때(서기 3세기)에 고구려는 이미 山海關 동북지역인 遼東을 모두 차지하였고 百濟는 遼西인 北京지역을 차지해서 이 지역을 百濟自治郡이라 하였고 또 周書에선 百濟가 晉宋齊梁 등의 나라 때부터 楊子江 左(北)側을 차지했다가 後魏때(서기 5세기)에는 中原을 모두 차지하였다 하였습니다. (通考云…… 晉時高句麗 既略有遼東 百濟亦略有遼西晉平二郡地自治百濟郡 註. 柳城北平之間. 滿洲源流考 卷三; 通典 卷百八十六 東夷; 梁書 卷五十四 諸夷; 百濟自晉宋齊梁 據江左 後魏宅中原; 周書 卷四十九)

고구려와 백제가 한 때 中國을 차지하고 통치했다는 것은 崔致遠이 唐나라의 太師侍中(정부의 비서실장격)에게 보낸 편지를 보아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고구려와 百濟의 全盛할 때에 強한 軍隊 百萬명이 남녘으론 中國의 吳나라와 越나라(南京과 上海가 있는 楊子江 남녘지역)를 차지하고 북녘으론 中國 북녘전체를 차지하였으니 이것이 곧 中國의 큰 쯤벌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崔致遠 上太師侍中狀云…… 高句麗 百濟 全盛之時 南侵吳越 北撓幽燕齊魯爲中國之巨蠹: 三國史記 卷四十六 崔致遠).

국사교과서를 쓴 분들이 아마 四書와 三經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들인가 싶습니다. 국사를 연구한다는 분들이 어째서 그렇게도 우리나라의 옛 책들과 中國 책들을 읽어 보

지도 못한 소리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금 과격하거나 용서해 주십시오.

○委員長 韓柄榮 安博士님 發言途中에 최종합니다마는 國政을 審議하는 곳이고 지금 發言하시는 모든 것이 그대로 記錄이 되고 있습니다. 이 國會의 진지한 審議機關에서 할 수 없는 用語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陳述人 安浩相 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高等學校 國史教科書를 또 보기로 합니다. 이 국사에 쓰여 있기를 "고조선이 망한 뒤…… 철제농기구에 의한 농경방법이 발달하여 경제기반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 새로운 경제기반위에서 騎馬民族文化의 영향으로 목축이 성하였으며 한편으로 어업이 발달하면서 양산 김해 응천 등지에 조개무지를 남겼다(고. 국사 12면 22면)"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騎馬民族文化의 영향으로 牧畜이 성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책을 근거로 해서 썼는지 그것은 잠으로 허황맹랑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騎馬民族"이라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 名稱조차 옛날 우리나라 책들이나 中國책들에 도대체 없습니다. 동아전체에 없었던 기마민족이 어찌 우리나라에 들어 오겠습니까? 옛날에는 東夷族의 九族이거나 扶餘族이거나 貉(貊)族이나 朝鮮族이 있었지 기마민족이란 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騎馬民族이란 말은 日本學者 江上波夫가 1967년에 "騎馬民族國家"라는 책을 내었는데 우리 동아는 기마민족이 지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동아전체는 우리 東夷族이 땅과 문화를 개척했다는 것은 韓國 中國 日本의 옛 책들에서 다 밝혀졌는데 江上波夫가 이 사실을 무시하고 騎馬民族이라고 한 것은 일본사람의 민족적 감정과 자존심 때문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아문화와 또 특히 일본을 말한다면 우리 겨레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사람을 가르치고 문화를 발전시켜 준 것은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해서 바로 東夷族이라 부여족이라 조선족이라고는 하기가 싫으니까 기마민족이라 하였을 것입니다.

1940년에 내가 일본 경도에 있을적 朝日新聞에서 일본사람들끼리 논쟁한 글을 보았는데 거기서 한패는 일본민족은 칼쓰고 말타고 용감히 싸우는 민족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패는 그와 전혀 반대로 일본사람의 옷은 밀이

확 브인 「기모노」와 「하오리오」 신은 「조오리」(발가락에만 걸리는 집신)와 「계다」(나막신)로서 말타는 민족인 騎馬民族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말타는 민족 곧 기마민족이란 것은 결코 어떠한 독립 특수적 민족을 가리키는 고유 명칭이 아니라 도리어 "말타는 민족"이라는 일반적 보통 명칭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배타는 민족을 乘船族 낙타 타는 민족을 승낙타족 자동차 타는 민족을 승자동차족이라고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허무맹랑히 거짓으로 꾸며낸 기마민족으로서 우리 동이겨레를 부정하고 우리 배달겨레를 무시 멸시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만들어진 日人 江上波夫의 주장을 어찌서 우리 국사 교과서에다 베껴다 썼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李基白씨는 "일본사람의 말도 보고 일본역사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사람의 거짓말로써 우리 민족역사를 망치는 것을 따라서는 아닐 것입니다.

國立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崔永禧씨는 국정국사교과서가 일제의 식민사관을 거의 탈피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또 李元淳씨도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쳤다 해도 글자와 문장의 표현만 달았을 뿐 그 본 줄거리는 일제식민사관의 복사판 그대로입니다.

어제 내가 자세히 설명한 바와같이 新羅의 三國統一 國境이 처음엔 중국 北京지역이었던 때 그것은 北京지역이 百濟땅이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다가 聖德일금매 만주와 北京지역은 전부 渤海에 빼앗기고 聖德일금매 35년(唐開元二十四年 서기 736년)에 鴨綠江 남녘만을 차지하게 되어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반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책인 "冊府元龜"에선 말하기를 "唐나라 開二十四년에 涇江南녘을 싼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謹按新羅疆土……開元以後 渤海盛強 其西北諸境盡爲所並 新羅所有僅鴨江以南; 滿洲源流考 卷九新羅九州; 冊府元龜曰 開元二十四年 敕涇江以南令新羅安置; 그 곳).

국사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옛 책들을 많이 또 깊이 보지도 연구하지도 아니한 까닭에 그 涇江(水)을 자세히 모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사교과서를 망쳐 놓았습니다. 東

國輿地勝覽卷五十一 平壤條에서도 大同江만이 아니라 鴨綠江등 3 溟水가 있다 하였고(本國內有三溟水 非但大同江也) 또 중국책들과 崔棟의 朝鮮上古民族史를 보면 溟水가 中國에 4 개와 우리나라에 4 개 합 8 개가 있는데 1. 北京지역에 있는 大股河 2. 大凌河 3. 遼河 4. 於泥河 5. 鴨綠江 6. 大同江 7. 禮成江 8. 임진강 등인데 자세한 고증은 나의 지은 책 "단군과 화랑의 역사와 철학"에 있습니다.

李潤子위원님과 姜棋弼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분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만주원류고를 반드시 재검토 해야 합니다. 만일 그분들이 그책을 똑똑히 읽었다면 그 책이 사료적 가치가 없다거나 또는 등의 사료라는 말을 감히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만주원류고 만이 아니라 山海經이나 明一統志나 中國古今地名大辭典도 다시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와 中國의 옛책들을 잘 읽어 보지 못한 까닭에 日人이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騎馬民族說을 우리 교과서에다 옮겨다 쓰고 김철준씨와 같은 이는 "殷은 東夷가 아니다" 곧 殷나라 사람은 東夷사람이 아니다라고 全海宗씨 같은 이는 "東夷는 보통명사요 固有명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孟子와 史記에서도 殷은 東夷族이란 것을 똑똑히 밝혔으며 또 현재 中國學者 林惠祥도 舜은 東夷의 사람으로서 殷의 祖上이요 殷은 東夷族에 속하였다(古書云 舜爲東夷之人... 今人考證 殷商屬東夷系 舜卽殷商之祖: 林惠祥 中國民族史 上卷 10면, 25면)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제 나의 진술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틀동안 우리 반대자들의 주장을 들어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주장이 잘못된 점을 하나도 들어 말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참고서로 제시한 책들만을 들어 그것은 사료적 가치가 없다 또는 시원함은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토론에서 우리나라 책과 中國冊은 한 권도 들어서 고증문으로 하지 않고 다만 간단히 日本人의 말과 또 日本에서 번역한 西洋人의 말을 양념으로 들어 말하니 그 또한 이 토론에 일토당토 아니한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그분들이 漢文歷史冊들을 보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國立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崔永禧씨는 국사교과서는 定說과 通說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 하였고 또 李元淳씨도 여기 동조하였습니다. 물론 그말이 옳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祖上 선배들의 올바른 학문적 정설과 통설은 모두 부정하고 일제 식민사관에 붙들은 젊은 역사도들의 주관적 주장이 정설이요 통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정설과 통설로서 된 현행 국정국사교과가 반민족적이요 거짓투성인데 그들의 통설과 정설로서는 결국 또다시 반민족적 일제식민사관의 복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반대파는 학문은 학자에게 맡기고 국사는 국사학자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거기엔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그들 국사학자들에 맡겼으나 결국은 그닥위 반민족적 교과서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국사교과서 편찬을 맡겼다가는 국사교과서는 그대로 망국적으로 만들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다시 또 맡기겠습니까?

현재 이들 국사가들은 거떡하면 "실증적"이니 "과학적"이니 하고 떠들지만 그들은 아무런 역사문헌들 곧 역사책들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로지 불순한 동기와 의도로써 된 日本人의 책들을 근거로 하고 만든 국사교과서인 까닭에 그보다 더 비실증적이며 비과학적인 것은 없습니다.

林在正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교과서에 維新體制의 끈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이번 청원서에 넣으면 몇분의 국회의원들의 비위를 건드려 이번 국사찾기 청원서에 불리한 점이 있을까 하여 일부러 그 문제는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林委員께서는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李基白教授의 答辯이 있습니다.

○陳述人 李基白 제게 質問해 주신 것은 제가 委員님 姓銜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姜棋弼委員 姜棋弼입니다.

○陳述人 李基白 예. 姜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은 제가 갑자기 原稿를 作成했기 때문에 內容說明이 不充分해서 이해가 잘 안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例를 든 것은 領土가 작기 때문에 그 國家나 民族이 열등하다는데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反證으로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希臘 이런 나라나 地域을 들었습니다. 이 「이탈리아」라는 것은 「로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탈리아」半島에서 「로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무슨 江입니까? 「티벨」江가에 있는 일곱개의 丘陵을 基礎로 해서 成長한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점점 커져서 「이탈리아」半島를 統一하고 地中海世界뿐만 아니라 「알프스」를 넘어서 英國까지 支配한 大「로마」帝國을 建設했습니다.

그래서 地理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條件에 놓여 있지만 이런 大帝國을 建設한 具體的인 例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半島에 있어서 偉대한 國家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地理的 決定論은 承服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비교하는 의미에서 例를 들었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地域밖에 가지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스페인」大帝國이 얼마나 큰 領土를 「포르투갈」은 더 작지만 또 그와 맞서서 큰 海外領土를 建設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希臘도 領土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地中海 一帶에 많은 植民地를 建設했고 偉대한 文化遺産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例들로 보면은 日帝植民主義者들이 말한 우리나라의 領土가 半島에 局限되어 있기 때문에 偉대한 國家가 되지 못하고 事大主義國家 他律性理論에 의해서 支配되는 國家가 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런 宿命論은 절대로 成立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비교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對答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하면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國史를 獎勵하는 것은 저 자신 國史를 研究하고 있으므로 크게 환영을 합니다마는 國史研究단 가지고서는 안되는 局面도 많이 있고 西洋史나 東洋史를 하는 분들의 協調를 얻어야만 이런 局面들이 더 많이 밝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姜模濤委員 제가 質疑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答辯해 주시기 때문에 한가지 이것

은 質疑보다도 아마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나 하면은 여기는 國會 會議場입니다. 會議場이고 제가 제 이름이 여기에 名牌에 쓰여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國會議員이 發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잘 뭐 눈이 나쁘신지 잘 모르신다 이러면은 다른 學問같은 문제도 이것 참 여러가지 저는 그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가지 짐작이 되는 바가 있는데 그 이상 제가 李教授님을 생각해 그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좀 여러가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在正委員 議事進行發言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柄案 예. 林委員 發言하세요.

○林在正委員 비록 所屬은 다름니다마는 여기 국민당 두 委員께서 소위 學者들과 적지 않은 견해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國史教科書內容은 正에 관한 請願問題를 어제 바로 시작할 때 우리 文公委員會 委員長님께서 분명히 이 모임의 성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朴在旭委員께서 금방 金元龍教授님과 몇 마디 對話에서나 금방 國會에 나와서 소위 國政을 다루는 議員들이 진지한 面에서 國民을 代表해서 몇마디 물어 보는데 대해서 그 議員에 대한 성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분명히 성격을 밝혀야 쓰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지금 10시가 다 됐습니다. 國會議員들도 國政審議外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公聽會를 開催하고 이 밤중에까지 앉아 있느냐 이것을 學者님들에게 내가 분명히 밝히고 싶어요. 國會法에는 분명히 國政을 審議하는데 있어서 國民들의 많은 請願이 들어옵니다. 國會法에는 분명히 그 請願을 處理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審議할 權利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從前 第3共和國 4共和國下에서는 請願審査라 하면은 으레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서 行政府로 移送해 가지고 適宜 處理하지요. 이러한 타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第5共和國에서만은 소위 國會法에 엄연히 請願審査制度를 놔두고 그 請願審査 自體가 形式的이고 假飾的이 되어서는 안되고 보다 진지한 立場에서 다루야 한다는 面에서. 우리는 분명히 國史

教科書內容에 관한 請願이 들어 왔기 때문에 文公委員會 全體會議을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 이러한 論議 끝에 이 公聽會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분명히 國史教科書內容是 正要求에 관한 請願입니다. 이것이 만약 國史教科書에 그릇된 誤謬가 發見된다면 앞으로 이 國民教育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前提에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國會 文公委員會에서 다룰만한 素材입니다.

國民教育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國史教科書에 是正할 점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國會의 議決을 거쳐서라도 是正을 文敎部에 要求해야지 그대로 放置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國史教科書是正要求에 관한 請願인 이상은 당연히 우리 文公委員會에서 다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個의 學者들도 어느 時代 어느 民族이나 또 어느 國家에서나 學派間에 싸움도 있고 또 相反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어디까지나 陳情을 통해서나 이러한 公共機關에서 正當하니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어찌해서 지나칠 정도로 國民앞에서... 바로 여기는 國民앞입니다. 지나친 人身攻擊 여기에서도 우리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내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소위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이 國會에 나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신 것은 아닙니다. 결코 請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請願을 내신 側에서도 서로 被請願人側에서 볼 때는 분명히 異端的인 그런 學派에 屬하고 또 자기네들 의견과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말할 것은 그것도 自由입니다. 그것도 民主主義國家이기 때문에 可能한 것입니다. 자기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無條件 請願을 낸 사실 그 자체를 갖다가 마다한다거나 이것을 非民主的으로 봐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學派들간에 學問的인 論爭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國民들 앞에서 人身攻擊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 귀중한 時間을 割愛해서 몇몇한 學者들의 良識에 입각한 자기의 論爭點 다시 말하자면 所見을 發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린 것은 國民들에게 감사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여기

에 나온 것을 서글프다 하고 지금 금방 姜棋弼委員이 지적하다시피 國民을 代表해서 는 말에 대해서 어느 委員이 지적하신지 모르지만 그러한 態度로써 歷史的인 學究를 계속한다면 이 歷史冊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學問에서는 물론 자기의 주장을 貫徹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相對方의 의견도 尊重해줄 줄 알고 또 타협도 할 줄 알고 調整 能力도 있는 그런 雅量을 베푸는 것도 또한 學者들의 良識입니다. 자기의 主張과 다르다고 해서 相對方을 갖다가 異端視한다거나 또 우리 國會 文公委員會에 현재 나와서 영광스러운 所見을 發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國會 文公委員會를 갖다가 處事에 대해서 誤解를 하는 그러한 一部 學者도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失望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國民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방금 우리 姜棋弼委員님과 林在正委員님의 發言은 國民의 代表機關으로서 國民의 소리로 諒解를 하시고 文敎部側에서 나와 있는 분은 敎授님들이 오늘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고 또 座席도 名牌를 보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文敎部側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協調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李龍範敎授께서 答辯이 있으시겠습니다.

○陳述人 李龍範 제가 이 全海宗先生이 저하고 分野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全海宗先生님께서 마침 오늘 自己自身이 主宰를 해야 될 한 會議이 있어서 나가셔서 제가 이것이 옳은 對答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全海宗先生을 대신해서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姜棋弼委員께서는 質問하시기를 檀君神話가 만약 神話로 그치지 歷史的인 事實로 할 때는 格下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나 格下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歷史的인 事實로 만들 수 없겠느냐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質問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이 문제는 아까서부터 상당히 이것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 복잡하느냐 하면 사실 아까 魏書云云 하지만 그 魏書 自體가 지금 어떤 魏書인지 모릅니다. 자꾸 魏書 魏書 그러지만

그 魏書云云하는 그 自體부터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三皇五帝얘기가 자꾸 여기에 붙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堯임금과 桀을 같이 했다 우리가 禮紀 4200년 計算도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三皇에 대해서도 說이 여섯 가지가 잇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五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堯임금 舜임금을 認定하는 것은 史記뿐입니다. 그전에 한 30년에 呂氏春秋란 冊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堯임금 舜임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堯임금 舜임금은 儒敎에서 하나의 자기 道德을 具現化시키는 理想의 人物이다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傳說이다 神話다 中國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中國敎科書에서는 그 밑의 夏임금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中國에서 안 믿는 그 堯代 堯임금을 가지고 그와 桀을 같이 했으니까 우리도 4200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神話나 歷史的 事實이나 말이 많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歷史的 事實과 國民的 信仰으로서 擧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우리가 4200년... 좋다 이것은 國民的 信仰이다 歷史로 못받아 들일 때는 國民的 信仰으로 하고 10月 3日도 信仰이라고 하는 것은 理性을 超越할 때가 있습니다. 理性을 超越한 信仰으로서 우리가 하나 이것은 偶像的인 存在를 하나 만들자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 사실은 이것이 여러가지가 저도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있지만 저로서는 여기서 얘기 안하겠습니까마는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金春洙委員께서 質問하신 것과 결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檀君說話와 똑같은 說話가 全世界에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라오스」의 建國傳說이 바로 똑같습니다.

이것이 桓因의 아들 「콤바문」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려와서... 이것은 꿈하고 다릅니다. 龍하고 結婚합니다. 그래서 龍 15마리를 낳아 가지고 다스렸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이에요 檀君說話가 이것이 왜 훌륭하냐 여기서 弘益人間이 안 들어 갔습니다. 弘益人間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檀君說話에는 弘益人間이라고 하는 우리의 建國理念 平和的인

우리 國民 이러한 난제없는 神話가... 神話라고 제가 감히 합나다마는 神話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어느 傳說보다도 神話보다도 우리가 자랑스럽고 이것은 알마든지 이것은 말하자면 敎育해도 좋다 다만 이것을 歷史的 事實로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堯임금 自體가 中國에서 否定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堯임금에다가 두드려 맞춰 가지고 이렇게 歷史的 事實로 보는 것은 이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國民的 信仰으로서 믿자. 歷史的 事實이 아니고 國民的 信仰으로 믿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또 아까 金春洙委員께서 이 正史에 틀린 것이 있다고 全海宗先生께서 말씀하셨는데 正史에 틀린 것이 많으나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例를 못 듭니다.

제가 參考삼아 한 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王鳴盛의 十七史商榷이라는 冊이 있습니다.

○金春洙委員 조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분명히 지금 우리는 國史를 이야기하는 마당이니까 아마 그것을 옆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제 추측이 그러니까 可能한 대로 그 誤謬를 우리 歷史에 關連된 誤謬의 例를 具體的인 例를 한 두個 들어 달라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陳述人 李龍範 에. 그것은 말이에요 遼史에 볼 것 같으면 遼史 第1卷에 遼太祖 阿保機가... 正史입니다 阿保機가 나왔을 적에 新羅에서 寶劍을 갖다 바쳤다 이때는 벌써 新羅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阿保機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國史 古代史를 하는데 基準으로 되어 있는 三國志魏志東夷傳에 볼 것 같으면 日本의 여러 「히미코」라는 여자가 王이 되어 가지고 여러 50餘國이 그 이 수가 말이에요. 500里 1000里 도저히 좁은 그 九州에서부터 大阪까지 가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日本서도 그 「야마토」朝廷이 어찌서 싸우느냐 맨날 싸움의 원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류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例 들었지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歷史가 얼마나 많이 틀리느냐 하는 것은 全泰현이의 17史상가 이것은 그것만 보아가지고 考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史 攷異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몇 가지 22史 또는 25史 그 틀린 것만 가지고 이 冊을 엮은 것이 中國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25史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24史입니다. 元史가 하도 틀렸기에 이것이 20世紀에 들어와서 柯邵忒이라는 사람이 다시 元史를 엮어 가지고 東京大學에서 博士를 땀습니다. 그러니까 元史가 얼마나 틀리느냐 正史라고 하는 것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全海宗先生 얘기는 아마 이것으로써 對答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딴 분이 아마 質問이 없는 것같은데 아까 全先生께서 떠나실적에 저한테 한 마디 자기 얘기하다가 빠뜨린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이 書經 얘기를 자꾸 꼬집어내는데 書經이라고 하는 것이 舊傳 이것이 지금 57卷인가 8卷 되는데요 거기에 約 23卷이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것은 中國에서 2000年 동안 싸우다가 싸우다가 清代에 와서 閻若璩가 古文尙書證疏라는 冊을 내어가지고 하나하나 그 文句서부터 따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安先生께서 들으신 舊傳 堯典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거짓말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歷史學界에서 전연 쓰지 않는 史料라는 것을 덧붙여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林承國教授의 答辯이 있겠습니다.

○陳述人 林承國 林承國입니다.

지금 李龍範教授께서 하신 말씀에 사실 제가 한 말 보텔 것이 있습니다마는 質疑者가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韓柄來 答辯中에 죄송하지마는 委員들 質疑한 것에 대한 答辯만 해주세요. 지금 時計가 10時 넘었습니다.

○陳述人 林承國 예. 우선 金吉俊委員께서 이른바 “通說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時點에서 이 通說이라고 하는 낱말의 定義를 내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通說”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認定하고 있는 說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다른 社會科學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韓國의 民族史學的 입장에서는 通說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多數의 說을 通說이라고 한다면 數字를 따지는 多數決을 말합니다. 多數決이라고 하는 것은 數學的인 眞理는 될 수가 있어도 어떤 眞理를 갈음하는 基準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우기 解放直後의 狀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解放直後에 韓國史의 通說은 두말할 것도 없이 “植民史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國史”가 “通說”을 좇아 쓰여졌다고 한다면 당연히 “植民史學”을 通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解放後에 取擇된 이 “通說”이 解放後 지금까지 36年 동안 持續되어 왔으므로 이제 “植民史學”은 “通說”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秩序體系를 形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文教部로부터 여러 차례 歎願書나 陳情書에 대한 答辯을 받아왔는데 특히 漢四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學界의 一般的인 通說이 그러하므로 귀하의 의견을 採擇할 수 없다”는 答辯書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文教部의 常套語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의 이 “通說”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厭症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學界에서는 通說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植民史學”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反證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講演初頭에 今年는 植民史學 71年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현실을 얘기한 것뿐이지 결코 확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解放前後를 통해서 韓國史와 관련된 史論내지 學說의 變化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解放前後의 史學이 같다는 말씀이요.

급직급직한 例만 한번 들어볼까요. 漢四郡問題는 왜놈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 다 踏襲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解放後에 우리 考古學界에서는 많은 研究成果를 올렸다고 떠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난 35年 동안 倭인들이 쌓아놓은 考古學的 研究業績에 올라 앉아서 무엇을 發展시켰습니까? 더우기 北쪽 金日成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北韓땅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는 100%가 과거 日本 사람들이 해 놓은 研究成果에서 一步도 前進안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新聞考古學으로 혹은 外信考古學으로 新聞에 報道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 研究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考古學 본래의 研究姿勢가 아닙니다. 一步도 前進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現實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번 말씀드렸음다마는 韓國을 하나의 試鍊史的인 敗北主義의인 祖國觀으로 보게한 史觀도 지난날의 植民史學의 大方向이요 원칙이었음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음다?

아까 나는 여러가지 例를 들었음다.

文敎部에서 國史 副教材로 내놓고 있는 冊 가운데 “試鍊과 克服”이라고 하는 冊이 있습니다. 이것은 通學年用입니다. 中學校에 하나 高等學校에 하나씩 있는 책입니다. 國史를 試鍊史的인 측면으로 보게 된 史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나 그 말씀이요? 그런데 언필칭 우리나라의 史學家들 특히 文敎部傘下의 여러 史學家들은 붓을 들면 “解放後 36年 동안 植民史學을 脫皮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賊反荷杖”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先盜呼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먼저 도둑이야!”하고 소리치는 것 말이에요. 植民史學에서 脫皮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나는 努力!”을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植民史觀의 守護者라고 외치고 糾彈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植民史學을 脫皮하기 위해서 “36年 동안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하니 이것은 “先盜呼賊”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姜棋菴委員님께서 “植民史學을 어느 정도 克服했는가?”하고 그 정도를 물으셨음다. 물론 저한테 물은 質問은 아님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음다. 植民史學은 解放後 지금까지 36年 동안 復習되고 復唱되고 재탕되었을뿐 결코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교착해야 語句나 바뀌고 文字의 「뉴앙스」나 바뀌었을 뿐이요. 그것을 가지고 “國史 바꿨다”고 한다면 國民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植民史學과 그 通說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規定을 이렇게 내리고 보면 저들이 克服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을 克服했다고 하는지 한번 따지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지금까지 “漢四郡問題!” “敗北主義 論理” 또 “士大夫社會의 不

正腐敗!” “四色黨爭!” 그 어느 하나 과거 왜놈이 있을 적에 해놓은 植民史學의 原則에서 그 어느 하나도 改正된 것이 없다고 宣言합니다. 조금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狀況속에서 아까 金吉俊委員님께서 들으신 “通說에 관한 말씀”은 지금 이러한 狀況속에서 “通說”을 따져 봤자 그 通說은 “植民地史學에 뿌리를 박은 通說”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물론 植民史家들은 數字가 많아요. 지난날 建國初에 “우리 太極旗의 陰陽 八卦를 配置하는데도 多數決로 決定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眞理가 多數決로 決定되는 것은 아님다. 그것은 오직 數學的인 眞理일 뿐입니다. 「나치스」의 「아돌프 히틀러」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음다. “多數決이라고 하는 것은 數學的 眞理일 뿐이다 책임을 질 사람이 大衆의 치마폭속에 숨어 버린다 多數決은 대가리 數字主義이니 頭數主義일뿐이다”라고 했음다.

이러한 頭數主義原則으로 史學이나 國史를 決定할 수는 없습니다.

또 祖國史의 냉엄한 現實을 다루는데 있어 이 多數決이나 소위 “通論”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말로 “韓國史學”의 학문적 깊이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저한테 解明을 요청한 것은 아님다마는 제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렸음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李元淳教授의 答辯이 있겠음다.

○陳述人 李元淳 林在正委員님께서 國史教材內容이 바뀔 수 있다 可變的이라고 하는 저의 陳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음다. 전문을 발표하는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眞意는 이렇습니다. 國史敎育課程이 改正되는 경우에 그때 그 동안에 學問的인 研究의 成果가 反映이 될 수 있는 것은 敎科書에 收錄된다는 점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例로서 日帝의 35年의 例나 또는 百濟의 遼西支配등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임다마는 그것이 새로운 敎科書에 內容化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安承周教授의 答辯이

있겠습니다.

○陳述人 安承周 李寧熙委員님께서 質問을 주신 첫번째의 어떤 主觀的이거나 안일한 解釋이 掲載되어서는 안되겠고 한 내용의 例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는 歷史 考古學을 한 學徒입니다. 例를 든다면 青銅劍으로 만든 칼을 이 考古學的인 研究만 가지고 年代를 主觀的으로 3世紀다 4世紀다 이렇게 日인들이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카본데이팅」을 한 그 年代決定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혹시 인구조같은 것이 있으면 형질 人類學을 하는 사람들의 解釋도 받아들여서 綜合的인 그러한 解釋을 하는 이러한 合理的인 방법이 안일한 解釋이 아닌 그런 말로 表現을 했습니다.

특히 사과말씀 올릴 것은 사실은 5時까지 草案을 한 30「페이지」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장황할 것같아서 筆耕士를 研究室에 대기시켜놓고 줄이라고 했더니 內容을 너무 팍줄여가지고 內容說明이 좀 부족하게 된 점을 寬容해 주십시오.

두번째 中學校 國史教科書 13「페이지」는 檀君의 建國神話는 民族의 獨立과 統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특히 韓末 日帝下에서는 우리 民族에게 勇氣와 긍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이 精神史的인 측면에서 日帝下니까 상당히 強調가 되었고 또 勇氣와 긍지가 사실은 불어넣어졌다고…… 제 소견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寧熙委員 지금 答辯해 주신 것 잘 알겠는데 제가 여쭙어본 것은 그런 趣旨가 아니라 歷史敘述에 있어서 主觀性을 排除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選擇性이라고 할까요 現在性을 歷史敘述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순수하게 主觀性을 排除한 歷史敘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無意味한 것이 아니겠느냐 가령 여기에서 國史教科書 13「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主觀的인 敘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質疑입니다.

○陳述人 安承周 제가 또 지금 答辯을 드리는 內容이 李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內容에 對答이 꼭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記錄을

쓸 때의 狀況 그리고 그 記錄을 쓰는 사람의 歷史的인 能力 내지는 眼目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記錄을 檢討할 때 이것이 史觀이라고 그러는데 이 史觀이 결국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거슬러서 推定해 올라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歷史的인 眼目이 없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때 그 記錄을 우리가 바꾼 史觀을 가지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史論으로 이것을 이끌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安浩相博士님께서 質問해 주신 滿洲源流考를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은 여러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金春洙委員님께서도 質問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여기 金元龍教授님과 그 武寧王陵을 發掘하고 그 支石을 저희가 읽고난 그 때에 그 느낌은 三國史記가 적어도 政治史的인 面에서는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여러 委員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內容입니다마는 하여간 죽은 年代 달 이런 것이 支石에 記錄된 그대로가 三國史記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先人들이 쓴 具體的으로 金富弼이 쓴 三國史記가 重要하지 이 乾隆때 아규가 쓴 것이 우리가 더 重要하다고 하는…… 왜 三國史記의 重要度의 比較史的인 研究는 이 자리에서 受理 안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委員長 韓柄索 더 이상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陳述人 金元龍 제가 李寧熙委員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李寧熙委員 두 가지 答辯해 주실 것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金元龍博士님께서 해주실 것이 남았고 文敎部側에 제가 아까 質疑한 事項이 있는데요 合同學術研究會議 이런 것을 提議했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委員長 韓柄索 예. 그러면 姜棋弼委員의 補充質疑가 있겠습니다.

○姜棋弼委員 이것은 質疑의 性格보다도 제 문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같아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兩日동안 우리 委員님들께서 質疑을 하실 때 所屬政黨과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하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으로 제가 記憶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국국민당所屬 姜棋弼입니다 했읍니다. 그리고 姜棋弼委員이다 소리도 하지 않았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速記錄에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딱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權威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고 尊敬은 자기 스스로가 尊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역시 자기 몸가짐 여하에 따라서 남으로 부터 尊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文教部側 答辯해 주세요.

○文教部次官 鄭泰秀 文教部次官입니다. 李寧熙委員님께서 이러한 合同學術研究會를 開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자리에서 確答하기는 어렵습니다는 이 公聽會 結果를 보아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與否에 대해서 따로 檢討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柄來 다음은 金元龍博士님 答辯해 주세요.

○陳述人 金元龍 李寧熙委員께서 왜 展覽會 때에 2000年展 또 5000年展 그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2000年展 때는 1000년이 짝인 것이 아니냐 그런 質問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國立博物館에서 歷史時代 美術品을 展示할 때에 3000年展이라고 이렇게 써 왔읍니다. 그러니까 三國時代부터 朝鮮時代末 그런데 이번에 海外展示會를 할 때에는 좀 이것을 길게 하자고 해서 先史 말하자면 新石器時代 土器를 두 點을 넣어서 그것이 紀元前 3000년이기 때문에 합쳐서 50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0年展이라고 그랬읍니다.

○李寧熙委員 아까 金博士님께서는 B.C 칠발百年 이전에 또는 上限線으로 보더라도 B.C 1000年 이상을 올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은 歷史時代에 한하는 이야기입니까?

○陳述人 金元龍 그것은 靑銅器時代의 얘기입니다. 靑銅器時代의 年限이 紀元前 1000年頃이고 그 이전은 新石器時代가 됩니다. 그리고 歷

史時代는 좀 더 내려오고 三國時代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李寧熙委員 그러면 우리 國史教科書에 있어서는 「브랭크」는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陳述人 金元龍 「브랭크」는 제가 알기에는 舊石器時代 新石器時代 靑銅器時代 初期鐵器時代 三國時代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브랭크」가 없습니다.

○委員長 韓柄來 朴在旭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세요.

○朴在旭委員 아까 質問 가운데에 빠진 것이 많습니다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國史編纂 歷史編纂委員長님이 答辯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이 歷史研究에 특히 國史研究의 重大性에 있어서 현재 國史 특히 考古學 志望學徒들이 아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對策을 물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는 國史編纂委員會의 다시 말하면 年齡的으로 젊은 學者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았는데 그 두 가지를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陳述人 崔永禧 朴在旭委員님의 그 質問은 실제로는 우리 次官님이 學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저에게 또 온 것은 國史編纂委員會의 研究官의 젊은 사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20代가 있습니다. 그리고 30代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50이 넘어서 이제 물러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대부분 공부를 하면서도 博士學位를 따니다. 그리고 碩士課程은 다 나왔읍니다.

그리고 考古學科가 없다는 말씀인데 저는 間接的으로 들었지만 참 이러다가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國際社會에서 참 이것은 어떻게 해도 考古學 人類學만은 이것이 國際的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國史料도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政策立案쯤도 못됩니다라는 이것만은 정말 어떻게 後援해 주지 않으면 장차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압니다.

○林在正委員 우리 金元龍博士님 아마 서울大學校에 今年에 考古學을 연구하는 學生이 전혀 없지요?

○陳述人 金元龍 지금 3學年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林在正委員 그러면 2學年은요?

○陳述人 金元龍 2學年은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林在正委員 1學年은요?

○陳述人 金元龍 1學年은 그것은 系列別로 되어 있어서……

○林在正委員 1學年은 물론 그렇것을니다마는 거의 全無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原因이…

○陳述人 金元龍 그것은 결국에 考古學 자체에 책임이 있겠지마는 우리나라 靑年들의 價値觀 問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체가 經濟大國이 되어서 무슨 學問을 하든 그 생활이 安定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게 될 때에는 考古學에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林在正委員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기왕에 우리 金博士님께서 소위 考古學을 專攻하는 學生들이 참 많지 않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한탄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入試制度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솔직하게 文教部次官 계시는네 말씀을 왜 못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歷史學과 관련된 考古學의 重要性이랄지 그 價値觀을 몰라서 考古學界에 유능한 學生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入試制度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말씀을 좀 하세요. 바로 이곳에 앉아가시고 말씀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陳述人 金元龍 今年부터는 그 系列別이 文史哲로 되어서 考古學科가 社學科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名인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名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 考古學을 정말 하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林在正委員 그러니까 앞으로는 考古學徒가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委員長 韓柄索 다음은 李元淳教授님 答辯있습니까?

○陳述人 李元淳 朴在旭委員님께서 國史學生들이 좀 주는 傾向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放學을 이용해서 제가 文教部側의 委囑에 의해서 全國의 史學科 運營狀況을 한번 한달간에 걸쳐서 돌아볼 機會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의하면은 제가 직접 各學

校를 訪問해서 보았습니다. 결코 國史學科나 歷史學科는 少數가 아닙니다. 이른바 世稱 人氣學科에 屬합니다. 이것은 서울大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考古學科의 경우를 보니까 좀 各學校에서 考古學科가 있는 데가 대단히 적습니다만 劣勢에 있었던 것을 確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考古學科側에 全國에 있는 教授님들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은 여기에서 議政壇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國外 文學科라고 하는 데에서 考古美術 關係를 담당하는 職員이 專門이 아닙니다. 一般職員들이 一般公務員이 담당하는데 지금 현재에 考古學科를 나와서 솔직하니 갈 수 있는 데가 博物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全國에 있는 이것은 專門家들이 담당해야 할 職分인데 그러니까 결국 國內文學에 一般公務員들이 사실 가까운 民族文化財를 다루고 있다 이것이 좀 이 文公委員會에서 어떻게 힘을 보태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난번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韓柄索 金秉烈委員 發言하세요.

○金秉烈委員 機會가 아쉽고 해서 質問 答辯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것으로 質問 答辯을 끝내고 다음 機會에 다시 또 만나서 質問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주시면은 합니다. 委員長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韓柄索 더 質疑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國史教科書內容은 正要求에 관한 請願審査를 위한 첫번째 公聽會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公述人을 비롯한 關係人士 여러분! 연 이틀간에 걸쳐서 밤늦게까지 公聽會 관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本 請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各界各層의 專門家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公聽會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內容의 重要性으로 미루어 결코 短時日內에 結論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委員會는 本 請願의 公正하고 진지한 審査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關係人士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聲援과 協調를 기매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 會議日時는 追後 通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會議는 이로써 마칠까 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2時36分 散會)

○出席委員

韓柄來	具龍	鉉金	春洙
南載熙	朴源	沈卓	相宇
吳制道	李樂	李薰	大淳
李寧熙	李潤	崔子	圭圭
康源采	金秉	金烈	泰洙
辛相佑	李義	金永	在正
姜棋弼	朴在	金旭	吉俊

○委員以外出席議員

朴敬錫	宋志英	申相式
李鍾贊	高在清	李泰九
洪思德	李東鎮	林德圭

○出席專門委員

金容鈞

○出席政府委員

文教部

次官	鄭泰秀
獎學編修室長	黃哲秀

○政府側參席者

文教部編修總括官 鄭泰範

○其他參席者

韓國教育開發院院長	洪雄善
陳述人 (國史發刊協議會會長)	安浩相
陳述人 (國史編纂委員會委員長)	崔永禎
陳述人 (서울大人文大教授)	朴時仁
陳述人 (서울大人文大教授)	金哲坡
陳述人 (東國大教授)	李龍範
陳述人 (서울大人文大教授)	金元龍
陳述人 (韓國正學學會會長)	林承國
陳述人 (西江大教授)	全海宗
陳述人 (西江大教授)	李基白
陳述人 (서울師大教授)	李元淳
陳述人 (公州師大教授)	安承周